

M46-4-3/2002.10

제4권 제3호

KREI
북한농업동향

- 일반인이 북한 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연구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 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70 전송 02-965-695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정정길 cgchung@krei.re.kr	02-3299-4368

목 차

□ 포커스

-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농업부문 변화 전망 / 3
-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 14

□ 동향분석

1. 재해대책과 피해 / 27
2. 축 산 / 35
3. 감자 농사 / 42
4. 산 림 / 49
5. 이모작 / 53
6. 과 수 / 57
7. 양 어 / 60
8. 기타 보도동향 / 62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81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81
 2. 대북한 지원 동향 / 92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96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97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99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 99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07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113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19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합의문 / 125
- 남북한 식량차관에 대한 합의문 / 126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127

포 커 스

-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농업부문
변화 전망
-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농업부문 변화 전망

권 태 진 (연구위원, kwontj@krei.re.kr)

북한은 금년 7월 1일부로 폭 넓게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 당국자는 가격과 임금의 현실화, 환율의 인상, 배급제의 변화,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확대, 계획의 분권화를 통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제체제를 효율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는 측도 있고 비대해진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는 측도 있다. 우리는 이번 조치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그 성과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현재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쌀의 수매가격을 장마당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판매가격도 현실화하였다. 아직은 식량 배급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판매제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포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농장이라는 틀 속에서나마 ‘가족영농제’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 또한 텃밭 규모를 확대하는 실험도 추진된다고 듣고 있다. 협동농장의 관리운영 방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업부문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사회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농가소득의 변화를 통해 공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침내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변화한다고 해서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라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른 만큼 발전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농업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감안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 농업개발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자재와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남북한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북한이 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1. 경제관리 개선조치 내용과 배경

경제관리 개선조치 내용

북한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이 ‘개혁’이나 ‘개선’이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할 경우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경제운용 방식의 실패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조치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치는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내용과 후속 조치인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지정이나 ‘신탁은행’의 설립 등 잇단 경제조치 내용을 연계시켜보면 ‘개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 북한이 취한 조치가 ‘개혁’이나 ‘개선’이나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이제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7월 1일 단행한 조치를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표현키로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가격과 임금을 현실화하였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쌀을 kg당 80전에 수매하여 8전에 판매하였으나 7월 1일부터 쌀 수매가격을 농민시장 가격과 근접한 40원, 판매가는 43~45원으로 정하였다. 옥수수수는 지금까지 kg당 60전에 수매하여 6전에 판매하던 것을 20원에 수매하여 24원에 판매한다. 이 밖에 지하철 및 버스요금, 생활용품, 주택임대료도 대폭 인상하였다. 주택사용료는 지금까지 한 채에 월 5~10원을 냈으나 이제는 평당 7~15원으로 웬만한 집은 몇 백원을 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군인과 공무원의 월급이 14~17배 인상되었고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0배 인상되는 등 직종에 따라 차등 인상되었다. 종전 110원 받던 생산노동자의 월급은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중노동을 하는 광산노동자의 월급은 6,000원까지 인상되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18배 상승되어 월 평균 2,000원 정도이며 상품가격은 25배 인상되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1,000원 권의 새로운 지폐가 발행되었다.²

¹ 2002년 9월 2일 북한의 김용술 무역성 부상은 동경에서 개최된 한 “북한경제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신탁은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북한에 설립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동안 북한은 단일은행제도(Monobank System)를 채택하여 왔으나 ‘신탁은행’의 도입으로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를 채택하는 은행제도 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개혁에 앞서 은행제도 개혁을 먼저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놀라운 일이다(박석삼,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11).

² 7.1조치 이후 생필품 가격은 남성운동화 180원/1켤레, 세수비누 2원/1장, 빨레비누 15원/1장, 된장 17원/1kg, 간장 16원/1kg, 콩기름 180원/1kg, 소주 43원/1리터, 청어 100원/1kg 등임(조선일보, NK조선, 섹션NK리포트 제93호, 2002. 10. 16).

둘째, 환율이 인상되었다. 종전 공식 환율이 1달러당 2.15원이던 것이 달러당 150원으로 나진·선봉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종전의 바꾼 돈표는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셋째, 배급제의 틀이 변화되었다. 배급제가 폐지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까지 식량 배급표가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배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예전에는 시장가격과 국가판매가격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던 것이 이제 그 격차가 크게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배급제의 틀이 바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활필수품의 경우도 배급가격이 대폭 인상되었다. 북한은 배급제 폐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3, 4월에 함경북도 청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필수품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제 도입을 실험하였다는 보도도 있다(세계일보, 2002. 7. 20). 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식량을 구입할 때는 배급표의 제시와 함께 인상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⁴

넷째, 공장·기업소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기업에는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업소는 원료를 자체 해결하고 기업 실정에 맞는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재공급사업도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영토록 한다. 공장이나 기업소 사이에 과부족이 발생하는 일부 원자재나 부품은 서로 교환하고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하되 은행을 통해 결제한다(중앙일보, 2002. 8. 2, 17면). 연합기업소·협동농장 등 모든 공장이나 기업소들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지도·관리하며 공장이나 기업소간 연계와 협동을 강화한다. 사업소별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윤은 임금 인상이나 직원들의 후생복지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생산물에 대한 국가수매를 줄이고 자체 처분권을 확대한다. 농업생산의 15%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는 인상된 수매가로 국가수매에 응하며 나머지 물량은 협동농장의 자체분배를 확대하거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계획의 분권화를 확대하였다. 지방공업은 시·군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표들만 계획하고 세부지표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계획한다. 연간·분기 계획은 성 또는 중앙기관, 도가 담당하고 지방경제부문은 도·시·군의 실정에 맞게 세부지표를 계획한다. 중앙은 재정

³ 필자의 최근 남포 방문시 달러당 150원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인민폐와 북한 원화의 교환비율은 종전 1위안 당 20~25원 정도 거래되었으나 7.1조치 이후 35~4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⁴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급량은 크게 감소하여 금년 7월 이후 성인에게는 하루 300g 이하로 배급하고 있다. 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식량 배급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하루 300g씩 배급한다.

원칙과 기준만을 정해주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해당 공장이 자체로 생산·판매토록 하며 가격도 자체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공업은 수요에 맞게 품목을 늘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여러 가지 규격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개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1991년에는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1994년에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편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법을 정비하였다. 1996년에는 농업부문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다. 1998년에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 부문에서는 독립채산과 원가개념을 명문화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800여명의 간부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란 신사고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개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은 개방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7월1일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2년 전 상해를 방문하여 경제적 발전상을 확인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많은 경제 실무자가 동행하였으며 이들도 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하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 위원장 일행의 중국 방문 기회는 북한이 이번 조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극심한 2중 가격의 모순을 해소하고 비대한 비공식 부문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번 조치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계획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번 조치의 본격적인 조치에 앞서 일선 당·정 기관 간부들과 장교들의 강연·학습 자료용으로 배포된 문건에서 “지금 국가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 낮은(낮은) 데로부터 장사행위가 성행해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하나 개인들에게는 상품이 쌓여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

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액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는 표현으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NK조선, 섹션NK리포트 제93호, 2002. 10. 16, <http://nk.chosun.com>). 국가예산에서 생산적 지출보다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되는 몫이 더 크고 그 가운데 공짜로 나가는 몫이 74%나 된다고 한다. 식량공급에 지출되는 국가부담이 연간 수 십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한 것만큼 벌고, 번 것만큼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다시 기준을 정하였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조치에는 획기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어쩌면 개혁을 위한 신호일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임금과 물가를 인상한 것은 중국의 초기 개혁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중국식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화폐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생산주체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가격자유화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시장화라고 볼 수는 없으나 7.1경제개선 조치 이후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이나 신탁은행의 설립을 통한 금융제도 개편 모색이라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북한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이미 과거로 복귀하기에는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북한의 경제개혁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한 이후 장마당의 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경제조치 이전 장마당의 쌀 가격은 kg당 50~60원으로 새로 정한 수매가 40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수매가 인상 이후 장마당의 쌀 가격은 95~155원으로 폭등하였다고 한다(조선일보, 2002. 9. 11, A20). 쌀 수매가 현실화 이후 쌀 판매소에서는 판매할 쌀이 바닥나고 옥수수마저도 사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이 식량 배급제를 폐지하고 판매제로 전환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은 식량 배급표를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배급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배급제를 완전 판매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어 국정 판매가와 장마당 가격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쌀과 옥수수 등 다른 곡물간의 균형가격이 존재해야 한다. 품목간 균형가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장마당에서 식량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법으로 거래하는 상황에서는 균형 가격을 형성할 수가 없다. 식량 가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유통망을 확립코자 할 것이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는 장마당이 공식적인 유통망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도 이에 상응하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쌀 수매가의 인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쌀의 수매가 인상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각종 농자재 가격도 원가 개념에 따라 대폭 인상될 것이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의 인상폭과 농자재 가격의 인상폭 중에서 어느 가격의 상승이 더 큰가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변화 정도가 정해진다. 또한 국정가격과 장마당 가격 사이에는 일정 정도 격차가 존재하고 장마당 가격이 국정가격을 선도할 것이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수매에 응하는 것보다는 생산물을 장마당에 팔려는 욕구가 강한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과거보다는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필요한 영농자재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할 것이고 농자재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농자재를 할당하는 방식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북한이 원가개념과 독립채산제를 수용한 이상 원자재 시장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개별 공장이 자체 생산한 물품에 대해 가격을 매길 경우 농산물과 농자재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라 농자재 가격을 변동시킬 것이다.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협동농장의 농자재 수요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농자재 가격 상승률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혁 조치 중 새로운 사실은 토지사용료를 부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토지는 농장원들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전인민의 소유이고 협동농장은 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수확량의 일부를 토지사용료 형태로 국가에 바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협동적 소유는 토지라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소유라는 의미가 된다.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협동농장의 경리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사용료를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결정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토지사용료는 토지의 등급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량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15%)을 세금 형태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을 국가에서 공급한 농자재 비용, 관개사용료, 농기계 작업료 등을 현물로 지출하게 된다. 이때 국가에 납부하는 제반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농장원에 대한 결산 분배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만일 협동농장이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생산물의 구성도 달라지고 농자재의 사용비율도 달라지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할당된 생산 목표에 따라 농작물 구성을 변경하기가 곤란하였지만 앞으로 가격이라는 신호가 주어지면 협동농장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농작물의 구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활용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7.1경제개선 조치

이전까지 쌀과 옥수수의 교환비율(국가수매가격 비율)은 3:4였다.⁵ 쌀과 옥수수의 국가수매가격이 이제 kg당 각각 40원과 20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교환비율은 1:2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자재의 상대가격에 변동이 없는 한 협동농장에서는 옥수수보다는 쌀을 더 많이 생산코자 할 것이다.⁶ 협동농장의 자율권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서로 상승 작용을 할 경우 개별 협동농장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코자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 자원의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며 농산물이나 농자재의 상대가격이 변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아직은 농자재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농자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집중될 것이지만 차츰 농자재 공급이 증대됨에 따라 농자재의 한계생산성이 높은 품목부터 확보하려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협동농장의 작업반우대제가 폐지되고 분조관리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 이는 평균주의를 배척하고 일한 만큼 번다는 이번의 조치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미 1996년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일한 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농장에 나가 일한 만큼 평가받아 분배를 받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의 변화 전망

북한은 금년부터 ‘가족영농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분조원 규모를 10명 내외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시 분조원 규모를 4~5명의 가족단위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북한은 올해 초부터 신의주와 온성에서 3~4가구를 한 분조로 묶어 농사를 짓게 하고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분배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농업분야에도 자본주의식 이윤 추구하고 경쟁이라는 원리가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도 개혁·개방 초기에 ‘가족청부제’를 채택하여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⁸ 중국의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전국적으로 일

⁵ 쌀 1kg의 국가수매가격은 80전이었고 옥수수 1kg은 60전이었으므로 쌀 3kg과 옥수수 4kg이 서로 교환될 수 있다.

⁶ 북한은 이미 이모작 확대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경험한 바 있다. 옥수수와 밀/보리의 교환비율이 옥수수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밀/보리가 식량으로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생산을 선호함으로써 협동농장 단위에서는 밀/보리의 이모작 확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경험이다. 밀/보리 재배의 기피 현상은 생산할당이라는 문제와 생산체계의 미확립에 따른 위험 회피라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즉, 이모작 확대 정책에 따라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밀/보리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⁷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 『최근 북한경제개혁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2002. 7.

⁸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인 1973~77년 동안 농업총생산액 증가율이 연평균 3.2%였으나 개혁

시에 추진된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점차 확산된 다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였다. 북한이 향후 가족영농제를 채택할 경우 중국과는 채용 방식이 전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지방에서 채택한다는 것은 현재의 북한 제도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역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다음 그 성과가 확인되고 제도의 파급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영농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써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참여 농가는 초과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는 초과생산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상된 가격으로 국가수매에 응하거나 장마당에 팔거나 자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다. 국가수매에 응할 것인가 장마당에 팔 것인가는 장마당에 대한 당국의 통제정도와 당시의 장마당 가격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북한의 곡물 공급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마당 가격이 국가수매가격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 배급제를 점차 축소하고 그 대신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므로 국영상점이라는 유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식량분배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할 것이다. 이는 곧 장마당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북한 당국은 장마당을 강력하게 단속코자 하였으나 식량의 공급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식량배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식량확보가 매우 불안하였기 때문에 장마당 단속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식량의 분배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비공식적인 부문인 장마당 보다는 국영 유통망을 통한 분배제도를 확립코자 할 것이다. 당국의 의도대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수매가를 장마당 가격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조정하고 식량 공급량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경제개선 조치의 배경에는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북한에는 약 40만ha에 달하는 비공식 농경지 면적이 존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비공식 농경지는 주로 텃밭, 뚝배밭의 형태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식량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¹⁰ 북한

초기 인민공사제를 폐지하고 가족청부제를 도입한 결과 1979~83년 동안 농업총생산액이 연평균 15.8% 증가하였다.

⁹ 권태진 외, 『북한의 농업기반 특성과 정비방안 연구』, 농림부, 2002.

¹⁰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최근에는 급경사지 등 경작여건이 불리한 뚝배밭은 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예전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기 때문이

당국은 경사지 경작의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식량사정이 차츰 완화됨에 따라 비공식 경작지의 개발과 이용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지방을 중심으로 개인의 텃밭 면적을 종전의 3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였다고 한다.¹¹ 텃밭은 뽕기밭과는 달리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농형태이다. 만일 텃밭 경작면적이 확대된다면 이는 개인영농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량사정이 어려운 내륙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텃밭 경작이 조심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공식부문으로 흡수되어 생산물의 일정 비율을 세금형태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하기만 한다면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머지않아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머물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고 먹는 문제의 해결은 물론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북한도 개혁·개방을 한다면 중국처럼 될 것인가?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러시아와 동구권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개방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나라마다 제각기 처해있는 여건이 다르고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정치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당시의 내부적 여건과 외부적 환경을 고려하여 개혁·개방의 속도를 조절하고 추진 방식을 적절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초기 여건이 매우 상이하다.¹² 중국은 ①개혁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어 있었으므로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과감한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 ②중국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경험을 이미 축적하고 있었으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부작용을 소화할 수 있는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기도 하지만 뽕기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경작자의 분배몹에서 제외하는 등 뽕기밭 경작의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¹¹ 남성욱, “북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11. 필자는 금년 여름 회령시의 하천부지 근처에 300~400평 규모의 텃밭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개인들이 농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바 있다.

¹² 오승렬, “북한과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및 시사점,”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 2002. 10. 11.

있었다. ③중국은 안정된 거시경제 지표를 갖추고 있었으며 물자공급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 ④중국은 홍콩과 대만 경제와의 연계성을 통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가 용이하였고 수출통로도 확보되어 있었다.

북한이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감안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세아개발은행(A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은 EU, 중국, 러시아와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과는 해결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긴급하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경제개혁 초기에 대만과 화교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셋째, 농업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실정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북한은 제한된 농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와 기후여건도 식량작물의 생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농업부문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제한된 개발재원을 농업부문에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설정하고 식량배급제와 자유판매제를 함께 유지하면서 농자재의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함에 따라 식량소비량이 증가하고 식생활 패턴이 다양해질 것이다. 농산물의 수요도 식량 위주에서 고기, 채소, 과일로 다양화되고 식품가공 산업 및 수출수요의 확대도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식량지급률을 80% 내외로 낮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먹거리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시장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통망의 정비와 함께 시장조성 기능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개발 참여자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1996년 새로운 작업분조제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코자 시도하였으나 물적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농가에게 텃밭 경작 규모를 확대하는 실험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 중국이 농업 개혁과정에서 추진하였던 방

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 개별 영농에 의한 농업생산성이 협동 영농에 비해 2~3배정도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생산수단의 소유화는 현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있으므로 가족영농제를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정책화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존재해야 함으로 물론이다.

다섯째, 농업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농경지를 확대하고 약탈적인 농법으로 영농을 해왔다. 그 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조그만 자연재해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농업투입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져 모든 것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부문만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농업과 공업부문과의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김 영 훈 (부연구위원, kyhoon@krei.re.kr)

최 봉 석 (위촉연구위원, choi3750@krei.re.kr)

1. 서론

최근 들어 북한은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혹은 북한 내외부에서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만 들어도 최근의 변화는 현 정부 출범 이래 벌어졌던 남북관계사에 버금가는 분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그 사안들이 지니고 있는 중량감과 실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신뢰할만한 변화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우선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8.27~30), 대북 식량차관지원 합의(8.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와 제5차 이산가족 상봉(9.6~18), 금강산관광 당국회담(9.10~12), 비료 추가지원분 북송 시작(9.13~),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 협의와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착수(9.13~), 남북 DMZ 군사보장 협의와 지뢰제거 착수(9.15~), 북측 임남댐(금강산댐) 공동조사 실무 접촉(9.16~18),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북한선수단 파견(9.24~) 등이 그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간 북한의 진정한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아 온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상황이다. 왜냐하면 종래 북한은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부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최근의 대외관계 변화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개방적 조치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임금·환율을 현실화하고 단일화하는 경제관리방식 개선 조치(7.1)를 단행했고, 최근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9.1~)하여 전혀 새롭고 강도 높은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이다. 왜냐하면 파격적인 외국인 행정

장관의 임명¹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특구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구체성에서 종래와 다른 개혁개방의 지속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신의주특구 설치 이전 북한의 개혁개방적 조치들을 평가하고, 신의주특구 설치의 의미와 전망을 살펴보며, 특구 혹은 배후지 농업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하고자 한다.

2. 기존의 개혁·개방적 조치와 평가

2.1 개혁·개방적 조치

<합영법 및 합영사업>²

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10호 결정으로 ‘합영법’을 공포했다. 이 법을 통해 북한은 대외경제 교류에 합작경영, 기술협력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해외투자 유치는 채무 부담이 없고 기술 도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되나, 체제변화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그간 선택하지 않았던 정책이었다. 북한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 성공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투자 유치는 합영기업 설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합영기업의 설립 건수와 규모를 보면 외국인 투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합영법 발효 이후 북한은 서방국가와의 합영기업을 설립하지 못했다. 프랑스 기업과 체결했던 양각도호텔 건설사업이 서방 세계와의 유일한 합영사업인데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서방자본의 유치에 실패한 북한은 조총련계 기업들과 합영사업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 합영사업은 주로 1986~1992년에 추진되었다. 합영법에 의한 조·조합영기업 수는 약 100여 개이며 건당 평균 투자액은 약 100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2/3가 소규모 1차산업과 경공업, 식당·상점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3년까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영기업이 2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1980년대 초 합영법 제정과 합영사업 실시는 ‘조·조합영’의 형태로 축소되고 말았다.

서방과의 합영사업 실패는 북한의 낮은 대외신용도에 그 요인을 두고 있으나, 조총련과의 합영사업 부진 요인은 또 다른 데에 있다. 북한은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사업을 종전의 ‘애국공장 헌납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구분하지 않은 채 관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합영기업을 독자적인 사업단위로 여기지 않고 국가계획생산활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등 북한 당국의 기업관리방식 속에서 합영사업을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¹ 초대 행정장관으로 내정되었던 중국의 경제인 양빈(楊斌)은 탈세 등의 혐의로 2002년 10월초 중국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² 통일부, 2002 북한이해(2002), pp.127-128 참조.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³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경제블럭이 해체되면서 기존의 ‘우호무역’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여 1980년대 실패한 합영사업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대외 경제개방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 7월부터 두만강 유역에 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근 국가 간에 ‘두만강개발계획’(UNDP 프로젝트)이 논의되고 있었다. 북한은 이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차 개혁·개방 단계로 진입하려는 중국의 사례도 참조하여 개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0년 10월 당시 정무원 총리가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천, 주해, 천진, 광주 등을 시찰한 후 1991년 12월 함경북도 최북단인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선포하였다.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계획은 나진선봉지대를 2010년까지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중개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47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두 차례에 걸쳐 투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나진선봉특구 설치에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단위도 허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처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 불안정, 인프라 부족, 남한 기업 참여 저조 등 요인으로 2000년 12월 말까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실제 외국인 투자실적은 1억 2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 서비스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중국자본이 65%, 일본의 조총련계 자본이 20%인 반면 서방 자본 투자는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생산 부문의 새로운 분조도급제 실험>

북한 협동농장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분배는 기본분배, 작업반우대제 하의 분배, 분조관리제 하의 분배 등 구성원의 노동투입에 따라 차등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체계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력일수를 중시하거나, 초과 분배몫을 낮은 수매가격으로 분배하는 등 차등분배체계 내에 집단적 평등주의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분배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식량부족이 위기상황에까지 치달았던 1996년에 새로운 분조도급제를 도입하

³ 통일부, 2002 북한이해, 2002. pp.129-130 참조.

는 개혁적 조치를 시도했다. 새로운 분조도급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초과생산물을 국가가 수매하지 않고 그 처분권도 분조에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종의 도급제의 요소를 가지는 분배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곡물의 국정 수매가격과 농민시장(자유시장) 가격이 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⁴ 현물을 분배한다는 것은 생산성과에 따른 소득의 차등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분조도급제 그 자체만 본다면 북한은 농업생산 부문에서 집단적 평등주의를 상당 부분 양보하고 생산효율을 강조하는 개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농업생산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는 농민의 생산동기를 유발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분배제도의 동기유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7년이래 북한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농업생산도 90년대 중반 크게 하락한 이후 정체상태에 빠져 있어 새로운 분조관리제 도입의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 협동농장의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물적 토대의 부족 때문에 실험적인 도입 단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평가⁵

침체된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은 북한 내부에서의 제도개혁과 외부로부터의 자본 확보이다. 북한은 1980년대 합영사업과 1990년대 초반 나진선봉 특구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자본을 해외에서 도입하려 시도했다. 한편 식량위기 상황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에는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농민의 동기유발을 위한 개혁적 조치를 시도한 바 있다. 농업생산부문의 개혁적 조치 이후에도 농업생산이 증가하지 않자 1990년대 말에는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1998~2000))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농업 상황을 대외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시도된 이들 개혁개방적 조치는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개 외부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개방적 조치가 충분한 내부 개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반면에 개혁적 조치는 물적 뒷받침(외부의 자본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들 수 있다. 경제개혁과 대외 경제개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당국의 의지와 비전, 그리고 계획수립이다. 개혁초기 중국은 개

⁴ 2002년 7.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곡물의 국정판매가격이 농민시장의 평균가격과 같은 수준까지 인상되었다.

⁵ 통일부, 2002북한이해, 2002. pp.130-133 참조.

혁·개방이 100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개혁의지가 확고하였으며,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사결정 권한도 안정적으로 분권화하여 정치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개혁개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의지와 개혁개방적 조치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 다양한 개혁개방적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민경제계획법(1999. 4)」을 제정하고 농민시장 등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에서 개혁개방 의지의 취약성을 잘 알 수 있다.

둘째,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경제개방 환경을 초래했으며, 이는 외국 자본의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역관리체제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합영기업들이 중앙의 통제를 받아 활동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커다란 취약점으로 작용했다. 즉, 외국 투자기업의 활동 보장, 국제화, 외환의 사용 가능성, 노동자 채용 및 노무관리, 임금지급 수준, 토지임차 비용,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은 제3세계의 외자유치 경쟁국들보다 크게 불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3. 신의주특구 설치와 새로운 실험

3.1 신의주특구 설치와 그 배경

2002년 9월 12일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내용에 대한 정령’을 발표하면서 나진선봉특구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정령에 의거한 ‘신의주특구기본법’은 특구의 성격에 관해 주목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둘째, 토지와 생산수단 이용권을 50년간 보호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우대관세 적용, 외국인의 무비자통행, 외국인의 요직 취임 허용, 자유로운 외환 유통 등 큰 폭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파격적인 것은 외국인 행정장관을 임명한 일이다. 비록 초대 행정장관의 중국 연금과 체포 사태가 특구 실험을 초반부터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으나, 외국인 장관 임명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배경으로는⁶ ①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사이에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②가깝게는 7월 1일 단행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생산력의 대폭 확대가 시급하며 ③91년말 설치한 나진선봉지대 개발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6 김삼식, 신의주특구 설치배경과 전망(http://www.kotra.or.kr/main/info/nk/research/econo_38.php3)

3.2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주요 내용⁷

북한은 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이후, 9월19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발표, 9월23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9월24일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북한이 9월 19일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은 ①정치 ②경제 ③문화 ④주민의 권리·의무 ⑤기구 ⑥구장·구기(區章·區旗) 등 총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정 치	- 국가는 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부여 - 향후 50년간 행정구 법률제도 불변 -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음. -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 여권 발급 가능
경 제	-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 부여 - 국제 금융, 무역, 상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 -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 보장 -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 - 행정구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
문 화	- 국가는 문화분야의 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 - 첨단 과학기술 수용,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개척
주민의 권리·의무	- 주민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 없음. -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 부여 - 다른 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와 여행은 행정구에 위임
기 구	- 입법회의가 입법권 가짐. -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 - 입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 -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대표 - 장관은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 가짐. - 검찰은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관할 - 재판은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관할
구장·구기	- 행정구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독자적인 구장, 구기 사용 - 행정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치 않음

자료: 중앙일보, 9월 23일 3면.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갖고, 독자적으로 구장·구기를 사

⁷ 이 부분은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2002. 10)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용하며, 중앙기관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큰 폭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중국의 홍콩, 심천(深圳), 상해(上海)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비슷하며, 단동을 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과도 유사한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심천·상해(深圳·上海)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한식 개방 모델’로 볼 수 있다.

표 2 중국 및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구분	북한		중국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홍콩특별행정구	심천경제특구
위치	평북 서부 중국접경	함북 북동부 중소접경	중국 대륙 남동부	홍콩 인근 광둥성
인구	34만명	30만명	6백78만2천여명	7백만8천여명
면적	132km ²	746km ²	1,091km ²	391.7km ²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 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 제도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체적인 여권 발급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관이 직접 통치	-무역성과 나선시 인민 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정부소속 행정기관 -중앙정부 직접 통제 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일국양제 -입법·사법·행정의 자율권 보장 -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통치 -정치적 독자권 소유	-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정치적 독자권 없음
경제적 위치	-서해에 인접, 대중국 교역에 유리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서비스산업 예상	-동해에 인접, 대러시아 교역에 유리 -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	-무역·가공산업·금융 중심지 -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음향 기기 중심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1위(2001년)	-외국자본 및 기술 유를 위한 수출산업단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8위 -전자·방직·경공업·기계산업 중심

자료: 중앙일보, 9월 23일 3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 『국제사회 ↔ 신의주특별행정구 ↔ 북한 내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대내 경제개혁을 위한 조치라면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 경제개방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신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신의주특별행정구 인프라 현황

구 분	현 황
전 력	· 수풍댐(70만kW), 태평만댐(19만kW) 시설노후
항 만	· 신의주항·용암포항 개보수 필요, 수심 낮아 3000 t 급 이하 가능
노 동 력	· 2년 이후 IT기술자 50만명, 숙련도 파악 안됨
임 금	· 파악 안됨(나진선봉 월 80달러, 경수로 월 110달러)
철 도	· 평의선·국제 열차 통과, 경의선 연결이 관건
공 항	· 군용 소형 비행장(신의주공항·구성공항), 국제공항 없음
공업용수	· 압록강 수자원 하루 5600만 t 조달
도 로	· 신의주~단둥 왕복 2차로 경의선 도로 연결이 관건
통 신	· 신의주~평양, 신의주~중국 광케이블 구축
기존공장	· 법창철기공장, 신의주제철공장, 봉화화학공장, 신의주TV 공장

자료: 매일경제 인터넷 기사, 2002. 9. 30.

3.3 전망과 과제⁸⁾

북한은 2~3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이번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법에 부속되는 세부규정 또는 세칙들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 관련법규를 제외한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는 상당 부분 손질을 거쳐 신의주 특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특구 기본법 제정으로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제도는 크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반적인 투자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위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이다. 아무리 법제도의 내용이 좋다 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북한당국의 특구와 관리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 외국인투자법규에 의하면, 투자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모집할 수 없고 북한 기관의 알선을

8) 이 부분은 김삼식(앞의 글)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독소 조항은 향후 후속규정 정비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 토지비용과 같은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외자유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 노동자 임금(각종 간접비용 포함)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임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넷째,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당국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당시 행정장관 내정자는 신의주의 도로망이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의주 특구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하겠다고'고 답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제품의 판로문제이다. 북한산 제품은 최대시장인 미국과 서방세계로 수출이 어렵다는 점이 대북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의거, 북한 제품에 대해 'column 2'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관세는 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금지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는 물론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도 북한으로서는 북미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북한 경제특구와 남북농협협력-

최근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서 보여 주고 있는 변화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개방적 조치 시행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지난 7월에 북한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제관리방식 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는 생필품 및 공공서비스의 가격과 임금을 현실화·단일화하여 화폐와 가격기능 정상화를 시도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환율을 현실화·단일화하여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고 장래 국제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여 개방시 적응력 향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 조치가 성과를 얻으려면 새롭게 형성된 가격신호가 북한의 생산 및 유통부문을 자극하여 전체적인 공급 능력 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재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메커니즘의 작동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족한 자본이 외부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어야 북한 내부의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세계는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 및 그 수준에 따라 자본의 공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 수준에서의 대폭 개혁개방은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해치는 중대한 위험요인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 해외자본 유치

통로로서 ‘특구’ 설치의 중국의 경제개방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좋은 개방방식이 된다. 북한은 나진선봉(1991~)에서 이미 특구를 실험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개혁개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9월 북한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하면서 나진선봉특구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개혁개방 실험에 돌입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특구의 성격에 관해 주목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입법·사법·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둘째 토지와 생산수단 이용권을 50년간 보호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우대관세 적용, 외국인의 무비자 통행, 외국인의 요직 취임 허용, 자유로운 외환 유통 등 큰 폭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파격적인 것은 외국인 행정장관을 임명한 일이다. 비록 초대 행정장관의 중국 연금과 체포 사태가 특구 실험을 초반부터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으나, 신의주 특구는 외자와 선진기술 유치에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면서 취약한 인적 인프라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시도로서, 나진선봉특구와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시장경제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구 설치를 통한 북한의 시장경제 실험을 관망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북한을 보다 개방으로 유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관망보다는 참여이다. 향후 특구 행정부 구성과 관련 법규 마련에 따라 경제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겠지만, 각 분야에서 미리 보완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참여자세라 생각한다.

농업부문에서는 특구의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를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된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특구 내 농업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구 시장을 겨냥한 배후지 농업개발은 추진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남북한간 농업협력이 지속성을 띠고 발전 가능하려면 궁극적으로 상업적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핵심은 시장의 확보이다. 경공업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의 경우 시장은 남한 지역이다. 그러나 농업협력사업은 아직 남한지역이 시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①신선제품이 대부분인 농산물의 물류, ②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③국내 농업보호 등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려면 북한지역 내에 농업개발협력 농장의 시장으로서 특수한 지역이 존재해야 한다. 특수한 지역은 바로 ‘경제특구’이며, 농업부문에서는 그 배후지 농업개발의 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은 또한 장차 소득이 높아질 특구 주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경제특구 내외의 산업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북한의 농업관리 시스템에 긍정적 효과를 파급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또 신의주특구 배후지 농업개발협력 구상이 마련되면 후속되는 ‘개성공단특구’와 ‘금강산관광경제특

구'의 농업개발 구상에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동 향 분 석

1. 재해대책과 피해
2. 축 산
3. 감자 농사
4. 산 림
5. 이모작
6. 과 수
7. 양 어
8. 기타 보도동향

* 북한의 주요 신문인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과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의 농업관련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1. 재해대책과 피해

□ 북한은 본격적인 장마철과 수확철에 대비하여 장마철 피해 방지 대책과 병해충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촉구를 통해 영농 사업에 있어서 수확량을 극대화할 것을 보도

○ 병해충 방지 대책 관련 보도

- 농장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병해충의 발생경로와 발생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1, 6, 8, 11 작업반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로동신문 7.7)
- 최근 개성시 차원에서 효능있는 고려식물성 농약을 생산하여 수천 정보의 면적에 뿌리고 천수 백 개의 잠복소, 수천 개의 유아등을 병해충 발생위험이 큰 농지들에 집중설치하는 등 시농촌경리위원회는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위원회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병해충 피해방지 작업의 중요성을 해설하고 농약, 대용농약 뿌리기, 잠복소와 유아등 설치 등 병해충피해방지작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장풍군 고읍농장, 판문군 월정농장은 병해충 예찰예보체계를 세우고 농장원들은 병해충 예찰초소를 만들어 발생 상황을 관찰하고 있으며 강냉이밭에도 잠복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음.(로동신문 7.13)
- 운정농장은 당조직의 지도 밑에 기술일군과 논물관리공, 시비시약공들로 병해충예찰조를 조직하고 통보체계를 세워 병해충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병해충예찰조 성원들은 논밭에 병해충예찰초소를 만들고 발생징후 등에 대한 상태를 제때에 통보해주고 있음. 또한 논밭 곳곳에 벌레 잡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벌레들이 생기는대로 잡아 없애고 있음. 농장은 농업근로자들에게 병해충의 발생원인과 그 해독성에 대해 해설하면서 병해충 예찰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로동신문 7.17)
- 광천농장은 농장일군들이 작업반에서 병해충예찰예보사업의 중요성을 해설하며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작업에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음.

농장의 여러 작업반들은 논둑의 곳곳에 벌레를 잡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로운 벌레가 생기는대로 잡아 없애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7.17)

- 군당위원회의 지도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적인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농작물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병해충의 종류와 생활습성, 방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부터 시작함. 그리고 일군들을 파견하여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각 협동농장에 파견된 일군들은 직관자료를 만들어 작업반, 분조에서 해설선전사업과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진행함. 또한 필지별, 포전별로 예찰초소를 만들고 작업반기술일군들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보고하며 대책을 세우는 체계를 갖추. 또한 군은 협동농장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해충 구제약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생벌들을 널리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포전 현장에서 농장원들에게 알려주고 있음. 평산읍, 한포협동농장은 농장일군들이 농장원들에게 강냉이대벌레가 강냉이개꼬리가 나오기 전부터 여름 때까지 잎과 대, 개꼬리, 이삭 등에 주는 피해에 대해 해설해 주고 있으며 해월협동농장은 작업반, 분조별 예찰보고 체계를 세우는 등 병해충 피해 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음.(로동신문 7.21)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병해충예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농작물이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 농업지도기관들은 김매기, 비료주기를 비롯한 해당 영농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적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병해충예찰사업과 관련된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함.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포전별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병해충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대책들을 시급히 세워야 함. 특히 감자역병을 비롯해 장마철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함. 협동농장들은 병해충 예찰예보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찰초소들을 기술규정대로 만들고 기술일군들과 예찰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7.22)

○ 장마철 태풍과 홍수 방지 대책 관련 보도

-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태풍 5호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앞으로 있을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음. 배천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태풍피해 방지를 위해 13개의 고인물빼기 양수장을 모두 가동하고 무너진 물길과 논두렁을 흙가마니로 막는 등 논에 찬 물을 빼고 논밭 보호에 노력하

고 있음. 관개관리부문의 근로자들은 양수장 관리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군국토 환경 보호관리부와 제방건설을 맡은 기업소의 당원, 근로자들은 예성강 금곡3호 제방을 보강하기 위해 막돌운반과 제방쌓기를 진행하고 있음. 연안, 청단군은 많은 면적의 논에 찻던 물을 빼고 넘어진 강냉이대를 세우는 등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일피해를 막기 위해 해안방조제에 대한 흙쌓기, 돌입히기를 하고 있음. 강령군과 태탄군, 해주시, 벽성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도 고인물을 빼고 강냉이대 세우는 동시에 해안방조제, 강하천제방, 물길제방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병행하고 있음.(로동신문 7.10)

- 최근 황해남도를 비롯한 농촌경리부문은 홍수와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음. 농촌경리부문 당조직과 농업지도기관은 태풍 피해방지 조직사업을 추진해야 함.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장마철 농작 물가꾸 기를 주체농법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모든 포전마다 높은 소출을 내도록 그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협동농장에 내려가 저수지와 물길, 포전, 강하천 등을 살피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야 함.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머리마다 물도랑을 깊숙히 파서 집중호우에도 배수가 잘 되도록 하며 강한 비바람에도 강냉이대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줄을 설치해야 함. 이와 함께 양수장과 트랙터 동력을 이용한 고인물빼기 양수설비들을 미리 갖추도록 함. 협동농장들은 앞그루남새작물 거두기와 뒤그루가을남새 심기가 장마철에 진행되는 만큼 제철에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실속있게 해야 함. 강하천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들은 강하천정리사업에 군중들을 조직동원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은 강바닥 파기와 동 뚝 쌓기, 돌과 잔디입히기 등을 잘하여 홍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저수지와 강하천언제, 갑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를 잘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해야 함.(로동신문 7.10)

- 인민경제발전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들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대하는 입장과 관점을 제대로 가지는 것임. 모든 부문,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는 전제 밑에 이 사업을 한결같이 추진해야 함.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방지대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만드는 것임. 피해방지대책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세우는 문제 또한 이 사업에 광범한 대중이 어떻게 동원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음. 농업부문의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을 전면

적으로 조사·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함. 물길과 논두렁 정리를 실시하고 받머리에 물받이도랑을 깊게 터서 고인 물이 신속히 빠지도록 하며 받고랑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강냉이밭에서는 비바람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로동신문 7.11)

- 군당위원회의 지도로 염주군은 비바람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작물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음. 무엇보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강하천과 농장을 살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들을 확정함. 또한 고인물빼기 양수설비와 강하천 제방실태를 알아보고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를 군중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군은 전반적인 강하천의 바닥을 파내고 제방을 보강하도록 공장, 기업소들에 작업을 분담시키고 있음. 한편 협동농장들은 집중호우에도 농지에서 물이 신속히 빠질 수 있도록 물도랑을 깊이 파고 있으며 비바람에 곡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알맞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로동신문 7.13)
- 함경남도 덕성군 군인민위원회는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을 동원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7.15)
- 황해북도 토산군 봉불협동농장은 집중호우에도 논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도랑을 깊숙히 파고 강냉이대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새끼줄을 치고 있음.(로동신문 7.15)
- 개성직할시 판문군 월정농장은 도로 옆에 물도랑을 깊이 파서 산사태가 나지 않게 돌쌓기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강냉이밭 둘레에 물도랑을 만들고 집중호우에도 밭이 유실되지 않도록 강냉이 포기마다 북을 충분히 주고 있음. 또한 강하천과 제방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음.(로동신문 7.15)
- 시당위원회는 시와 구역, 군당 및 행정책임자들의 긴급협의회를 열어 장마철 피해방지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의함. 이에 따라 구역,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나서서 지난 7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에만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 천리마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일군들과 함께 구역 내 배수·양수장들과 배수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현지에서 필요한 조직사업을 진행함. 강선협동농장의 한 배수양수장에서 책임일군은 전동기 고장으로 양수기 가동이 중단된 것을 보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정치사업을 벌여 고장을 신속히 수리하도록 함. 홍수 및 장마철 피해방지를 위해 구역의 여러 기관, 기업소들은 고창협동농장의 강하천

정리 작업을 전격적으로 벌여 많은 제방둑을 보강하고 강바닥을 정리하였음. 항구 구역당위원회는 일군들을 일제히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직접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함. 또한 20여 개의 양수장을 살펴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함. 책임일군은 도지협동농장의 배수양수장에서 양수기의 가동 상황을 세밀히 알아보고 양수공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장마철 피해방지대책을 세움.(로동신문 7.21)

- 배천군 군당위원회는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여 농촌당조직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 군책임일군들이 한 개 지구씩 담당하여 위험개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사를 진행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고 있음. 특히 홍수에 잠겼던 지구에 대한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부족한 전력상황에도 고인물빼기 양수장들에 발동기를 가동하고 연료를 보장하면서 양수기 수리정비에 힘을 쏟고 있음. 배천군은 수북지구에 연 180리 물길공사를 진행하여 3천여정보의 논을 홍수로부터 보호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수원농장과 홍현, 조옥희, 방현협동농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군은 최근 며칠 사이에 100여 리의 물길을 정리하였음. 또한 예성강 금곡3호제방 보수작업은 제방 건설을 맡은 사업소와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적극적인 작업성과에 힘입어 제방둑 돌입히기를 진행 중에 있음.(로동신문 7.21)

- 평안남도에서는 각 시, 군들에 홍수피해방지 지휘부를 조직하고 지휘부일군들로 하여금 농촌 현지의 고인물빼기 양수장 수리정비, 배수갑문실태, 해안방조제 공사 및 보강 등 홍수피해방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 군들은 물길트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항시 방류가 가능하도록 배수갑문에 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개천-대성호 지선물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돌림물길을 트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인물빼기 공정을 더욱 완비해 나가고 있음.(로동신문 7.26)

- 책임일군들이 앞장서서 도 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회와 전화회의를 진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함경북도는 도와 시, 군, 공장, 기업소들에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음. 김책시는 룡호배수양수장에 대한 정비보수를 끝냈으며 군일군을 파견하여 새별군의 금수배수양수장과 은덕군의 학송배수양수장의 정비보수 상황을 살피게 하는 등 만반의 가동준비를 하고 있음. 또한 청진시의 수성천, 수남천, 직두천과 길주군의 남대천 등 도의 강하천들에 대한 강바닥 낮추기와 제방쌓기, 돌입히기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7.26)

- 지금 농촌경리부문에서 장마철 홍수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올해 농업에서 생산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 사업임. 농촌경리부문은 장마철에 한 평의 경작지와 한 포기의 곡식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홍수피해를 막자면 강하천과 물길에 대한 보수정리와 강하천 제방과 물길둑을 보강해야 함. 또한 고인 물을 제 때에 빼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 관개관리소는 배수양수설비들의 모든 가동을 보장할 수 있게 수리정비를 확실히 해야 함. 그리고 양수장이 없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 물빼기 설비들을 기동성있게 가동할 수 있도록 동원준비를 갖추어야 함. 비바람에 곡식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협동농장에서는 강냉이밭에 새끼줄을 치고 논두렁을 보강하며 포전 둘레에 물도랑도 깊숙히 파 놓아야 함.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농업부문에 복무하는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홍수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을 현지답사를 통해 피해 위험성이 있는 대상들을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선후차를 가려 인력과 기계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해야 함.(민주조선 7.11)
- 석산협동농장은 석산배수로와 서정배수로들에 대한 정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여 개의 위험예상 대상에 1,200여m³의 토량을 쌓기 위해 배수로 정비보강에 인력과 운반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배수양수장에 대한 보수정비를 끝냈으며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음. 농장원들은 수로둑 보강과 강냉이밭 새끼줄 늘이기 등 피해방지 준비에 한창임.
- 함경북도 어랑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배수로체계를 완비하고 양수장과 배수장이 고인 물을 제때에 뺄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관개시설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장마철피해방지사업을 실시함. 또한 일군들을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실정에 맞게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룡전협동농장은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대상들을 파악하여 해당 대책을 실시함. 이미 50여 정보의 강냉이밭에 새끼줄을 늘였으며 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체계를 강화하고 논두렁 보강과 관개망의 보수정비를 끝마침. 수남협동농장은 양수설비와 수문들이 홍수에도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리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부평협동농장은 위험개소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에 한창임.(민주조선 7.19)
- 평안북도 박천군 룡곡협동농장 일군들은 홍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을 파악한 데 기초하여 해당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논이 많은 농장의 실정에 맞게 논두렁을 보강하고 수로둑 정리, 물길둑 쌓기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양수장들의 수리정비를 하고 관리위원장, 기사장을 비롯한 농장 일군들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고인

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작업반, 분조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가마니, 말장 등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음.(민주조선 7.19)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일군들을 파견하여 군의 협동농장에서 홍수피해 예상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류정협동농장은 짧은 기간에 200m²의 토량을 처리하고 200m²의 장식공사를 진행하여 수십m의 저수지제방을 보수정비하였으며 하천의 제방보수와 강바닥 파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청계협동농장은 해당 부문과의 연계로 예상되는 날씨상황을 작업반들에 제때에 알려주고 논둑 보강과 강냉이밭의 물도랑 치기, 새끼줄 둘러치기 등을 실시하고 있음. 가촌, 지탑, 읍협동농장들은 자연지리적 조건과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맞게 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7.23)
-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은 이상기후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실정에 맞게 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각지 농촌들은 당면한 농작물의 비배관리와 함께 장마철 피해방지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지난 7월 초 태풍5호에 따른 폭우와 비바람 피해를 받은 강원도와 함경북도, 황해남도의 협동농장들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음. 각도들은 해안방조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저수지들의 독 상태 및 물저장 능력을 따져가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 이 밖에 평안북도, 남포시, 개성시 등의 농촌들도 항시 고인물을 뺄 수 있게 양수기에 대한 보수정비, 시운전을 끝냄.(민주조선 7.25)
- 기상현상은 때로 태풍, 집중호우, 가뭄, 번개, 우박 등 이상기후현상을 보이며 그 피해는 엄청남. 정확한 기상정보는 농업부문에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미리 알고 가능한 대책을 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함. 기상정보를 적극 이용하면 품종배치와 토지관리, 물관리 뿐만 아니라 농약뿌리기와 비료치기, 가을추수, 난알보관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음. 정확한 기상통보는 농업생산과 판매봉사조직에서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며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농업과학기술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함.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기상정보에 발맞춰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공강우기술, 인공우박제거기술 등이 바로 그것임. 비록 날씨에 영향을 주는 인공기술의 범위가 넓지는 못하지만 그 경제적 의의는 매우 큼.(로동신문 8.6)
- 농업성에서는 일군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현지에서 장마철 피해방지사업 상황을 파

악하고 해당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함. 일군들은 현지 아래단위 일군들과 함께 답사를 통해 홍수피해 예상 위험 대상들과 개소들을 살피고 배수 및 양수설비의 수리 정비와 제방, 해안방조제 보강 등 피해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음. 또한 아래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논밭과 연결된 물길상태를 파악하고 홍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길바닥파기와 독보강 등 물길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농기계운영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은 농산국과의 연계로 각지 피해방지에 필요한 자재와 영농물자들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장마철 피해방지 사업에서 부서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민주조선 8.3)

- 함경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시, 군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장마철 피해방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길주군에 나간 양길웅부위원장과 위원회 일군들은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홍수피해 예상대상들을 현지에서 확정하고 신속히 강하천제방공사를 완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위원회 일군들은 여러 대상의 배수양수장을 정비하고 돌림물길과 배수로들을 말끔히 가셔내는 일도 성과있게 끝냈음. 어랑군은 어랑천과 두남천의 3개소에서 긴 구간의 제방 보수공사를 짧은 시일 안에 끝냈을 뿐만 아니라 10여 개소의 고인물빼기 시설공사를 완성함. 새별군은 오룡천의 4개소에서 제방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20여km의 돌림물길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음.(민주조선 8.10)

2. 축 산

□ 북학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축산업을 진흥시키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에서는 가금류와 유제품, 토끼 사육을 통해 고기와 가죽을 얻으려는 가운데 각지의 가축 사육 동향을 중점 보도

- 석화협동농장 제8작업반 비육분조를 방문함. 네모나게 지어진 비육분조 건물에는 닭, 거위, 오리들이 사육되고 있었음. 벽면을 따라 규모있게 배치된 토끼우리마다 우량품종의 어미토끼들과 여러 마리의 새끼 토끼들이 있었는데 토끼관리공 신영복동무는 100여 마리의 어미토끼들이 한배에 평균 8 마리 이상 새끼토끼를 낳았으며 벌써 세 배째라고 알려줌. 토끼관리공 혼자서 한 해에 수백마리의 새끼토끼를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많은 토끼고기를 생산한다고 함.(로동신문 7.3)
- 관리공들은 하루 토끼먹이를 알맞게 주는 것과 함께 토끼우리와 바닥을 늘 깨끗이 하여 여러 가지 병균과 기생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음. 방역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종훈, 최현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호동을 위생문화적으로 관리 하는 사업, 불길소독과 소석회에 의한 소독 등 토끼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 특히 일군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관리공들에게 장마철 토끼사양 관리 지식을 알려주고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음.(로동신문 7.3)
- 당조직의 지도 하에 작업반은 수의방역체계를 세우고 돼지, 염소, 토끼, 닭, 거위 등에 대한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하고 있음. 축산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은 돼지와 염소를 비롯한 가축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약물과 불길, 햇빛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있음.(로동신문 7.13)
- 강원도 천내군 로운협동농장은 염소의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좋은 풀판을 만들고 염소 이동방목을 잘하고 있음. 또한 여름철 염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방역체계를 세우는 등 과학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로동신문 7.16)

- 지난해 12월 공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동지는 전기와 닭먹이 보장, 알 포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살펴보고 고기와 알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일러주었음. 그리고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에 나선 공장의 일군과 노동자들은 고기와 알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섰음.(로동신문 7.21)
- 자강도 우시군 우중협동농장은 초지가 좋은 곳을 방목지를 이용하여 염소와 양을 대대적으로 사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장은 초식가축 사육을 담당할 분조를 새로 조직하고 염소우리와 양우리로 규모있게 만들었음. 분조는 우량품종의 염소와 양을 늘이기 위해 앞선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끼분만조직을 잘 짜고 있음. 이로써 농장은 지난해보다 1.5배의 새끼염소와 새끼양을 생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로동신문 7.21)
-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산을 하지 않던 광덕농장은 초식가축 사육을 장려한 당의 의도에 따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양을 대대적으로 사육할 목표를 세우면서 축산을 시작함.(로동신문 7.22)
- 토끼사육을 군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함경남도 리원군 염성협동농장은 여름철 토끼사육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설하면서 작업반, 분조마다 토끼를 길러 고기와 털가죽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제4작업반은 올해 1,000마리 이상의 토끼사육을 목표로 빈 땅을 찾아 먹이작물을 가꾸는 등 질 좋고 영양가 높은 먹이를 넉넉하게 장만하고 있음. 또한 매 가정에서 토끼를 평균 50마리씩 길러 고기와 털가죽 생산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7.22)
- 과거 김일성동지는 순천시의 협동농장에서 오리와 거위를 논과 밭에 놓아 기른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할 것을 가르쳤음. 그 때부터 반곡협동농장은 오리와 거위를 논밭에 놓아 기르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서 오리와 거위 놓아 기르는 사업에 대한 열의가 시들해졌음.(로동신문 8.2)
- 전체 군 면적의 95%가 산인 창성군은 산을 잘 이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한 김정일동지의 교시에 따라 축산기지를 조성하였음. 옥포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수십마리의 종축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돼지우리, 위생방역사업과 거름생산에 유리하게 설계된 양우리, 염소우리, 토끼우리, 가금우리에 먹이가공실과 젖가공실까지 갖추었음. 또한 수백 마리의 양, 염소, 토끼, 수천마리의 거위, 오리, 닭을 사육하고 있음.(로동신문 8.6)
- 4년 전 김정일동지는 당의 의도를 따라 염소 등 초식가축 사육에서 큰 성과를 거둔 구빈리를 높이 평가하고 염소사육과 젖가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량품종의 종자염

- 소, 좋은 풀씨, 현대적인 젓가공설비와 룬전기재들을 지원해주었음.(민주조선 8.10)
- 강동군 구빈리, 함흥시청년염소목장, 구성시 남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 단위들에서 염소를 많이 기르고 있으며 염소젖으로 젓가공품을 생산하여 탁아소, 유치원은 물론 가정세대들에게까지 공급하고 있음.(로동신문 8.12)
 - 도와 군의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봉산군 은정지구와 황주군 삼훈지구의 적지에 축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여 은정지구에 3,200여 정보의 초지를 조성하고 많은 염소를 방목하고 있음. 또한 삼훈지구에 1,600여 정보의 초지와 1,200여 마리의 염소를 사육하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음.(로동신문 8.17)
 - 농장은 농장원을 대상으로 오리와 거위의 부화와 사양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지식과 좋은 경험을 지도하면서 가축사육을 장려하는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장의 매 농가마다 평균 30~50마리의 오리와 거위를 길러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고 있음.(로동신문 8.18)
 - 함경남도의 염소목장들과 협동농장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략 염소 5만 마리, 젓생산량 2.2배가 증가했으며 유제품은 지난 3달 동안에만도 1,100여 톤이나 생산해냈음. 특히 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서는 치즈와 케피르, 요구르트, 버터를 비롯한 영양가 높고 건강에 좋은 유제품 생산에 앞장서고 있음.(로동신문 8.24)
 - 함경남도 북청오리종금장은 도의 시, 군 오리종금장들에 종자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하는 단위임. 1976년에 건립된 이 종금장에서 생산지도원으로 근무하던 리은호동무가 1979년 지배인으로 임명되면서 여러 동의 종금우리와 부화실 건설사업을 추진함. 논의를 거쳐 설계도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공법을 창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종금우리를 새로 완공하고 종자새끼오리 생산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음.(로동신문 8.24)
 - 구빈축산협동농장 젓가공반에서 생산한 유제품은 매일 냉동운반차량으로 각 작업반마을에 정해진 시간에 보급되고 있음. 구빈리에서는 유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면서부터 구빈리사람들의 식생활과 건강이 개선되었음.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신젖을 먹인 결과 구루병이 완전히 없어졌음. 또한 쌀보다 영양가가 높은 유제품이 공급되면서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많은 식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음.(로동신문 8.29)
 - 올해 6월 중순 새로 건설된 안주닭공장을 방문한 김정일동지는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닭고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만족을 표시함. 한평생 인민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온 김일성동지의 유훈에 따라 김정일동지는 각지에 현대적인 닭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친히 닭공장부지를 선정하며 건설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지도했음.(로동신문 9.6)

- 리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농장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해설하면서 염소 사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청년염소작업반에서 생산하는 새끼염소를 농업근로자들의 가정에 공급하고 있음. 제 1, 2, 3작업반에서는 어미염소를 5~6마리씩 기르는 가정이 증가하는 등 염소사육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로동신문 9.11)

□ 북한은 축산업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현대적인 축산 기지를 건설하고 더불어 식당과 가공실을 만들어 축산업의 공업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염소목장을 비롯하여, 양목장, 닭공장 등의 축산기지의 동향에 대해 보도

- 창성연석회의 40주년을 맞으며 인산리에 군 자체적으로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함.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염소사육에 유리한 적지를 선정하고 수백 마리의 염소 사육이 가능한 3동의 염소우리와 종합식당, 젓가공실을 갖춘 현대적인 염소목장을 짧은 기간에 완공함.(로동신문 8.6)
- 부전군은 짧은 기간에 양을 1만 마리 이상 늘릴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목장 건설과 자연초지 및 인공초지 조성사업을 지난 5월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 중임.(로동신문 8.12)
- 광대리지구에 종합적인 양목장 건설을 계획하고 광대리와 차일노동자구, 문천리, 백암리, 한대리 등 14개 협동농장에 작업을 분담시켜 양목장 건설을 끝냈으며 현재 살림집과 청년합숙,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등 공공건물을 건설 중에 있음.(로동신문 8.12)
- 양목장분장은 읍에서 25리 떨어진 호반노동자구 팔구골에 건설위치를 정해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건설을 맡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함. 목장과 분장의 양우리는 2층으로 아래층은 양우리, 윗층은 먹이창고로 이용하게 됨.(로동신문 8.12)
-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14개의 현대화된 닭공장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확장되어 고기와 달걀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닭공장들은 산란과 부화에서부터 닭관리공정, 먹이가공에 이르는 전 생산공정이 최신식 설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

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있음.(로동신문 8.13)

- 김정일동지는 몸소 닭공장 부지를 선정해주고 최신식 설비와 종자알까지 보내주면서 닭공장 건설방향과 방도를 일러주었음.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애쓰는 김정일동지의 관심 속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신적으로 짧은 기간에 닭공장을 훌륭하게 건설해냈음.(로동신문 8.13)
- 강계닭공장, 112호닭공장, 9월27일닭공장, 황주닭공장, 구성닭공장, 안주닭공장 등 현대적으로 건설된 닭공장을 방문한 김정일동지는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고기와 달걀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로부터 설비관리문제, 생산물의 공급과 보관관리문제, 방역문제,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닭공장 관리운영에 대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었음.(로동신문 8.13)
- 부전군은 지난해 5월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초지가 풍부한 광대협동농장 구역에 양목장 건설을 시작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축산과 일군들의 주도적인 공사작업 진행에 힘입어 건설자들은 특색있는 양우리와 먹이가공실, 2동의 청년합숙, 7동의 살림집을 완공하였음.(로동신문 8.30)
- 지난해 12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한 김정일동지의 홍주닭공장 개건, 확장에 대한 현지말씀에 따라 자강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홍주닭공장을 개건,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건설역량을 조직하고 큰 공장, 기업소들에 작업을 주어 시멘트와 목재 등 건설용 자재들과 먹이가공, 고기가공, 알깨우기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함.(민주조선 8.3)
- 30여 개 호동의 생산건물과 11개 호동의 보조건물을 건설해야 하는 홍주닭공장 개건확장공사는 대규모공사로 작업이 방대하나 공사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만㎡의 부지에 30여 개 호동의 생산건물 건축, 상하수도망, 오수정화장이 기본적으로 끝나는 등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음.(민주조선 8.3)
- 7월 18일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을 방문한 김정일동지는 분장의 건설정형과 축산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자체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훌륭히 건설한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음.(민주조선 8.17)
- 군당위원회의 지도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염소목장 건설이 현재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위원회 일군들은 현장에서 건설자들과 침식을 함께 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책임일군들은 시공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자재 공급에 힘

을 쏟았음.(민주조선 8.31)

- 홍주닭공장 개건확장공사 지휘부의 일군과 건설자들은 이미 20여 개 호동에 달하는 생산건물과 보조건물 건축공사를 끝내고 10여 일 동안에 3.5km의 도로포장공사, 20여 정보의 지대정리, 나무심기작업, 5개소의 웅벽쌓기공사, 2km의 돌올타리공사를 해냈음.(로동신문 9.1)
- 평양시 강동군 구빈, 란산, 태잠 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 등에서도 수십 개의 협동농장이 축산전문협동농장으로 조성되고 수천 동의 염소우리가 건설되어 염소 등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기 시작하였음.(로동신문 9.3)
- 지난해 김정일동지의 함흥시청년염소목장 현지도 이후 은파군은 초지조건이 좋은 적지에 현대적인 염소목장 건설을 추진했음. 초구리 꽃절골, 옥현리 매화지구 등 넓은 지역에 걸친 염소목장은 초지면적만 1,800여 정보에 달하며 여러 개의 염소분장과 양, 염소, 토끼 종축장, 젖가공공장 등을 갖추게 됨.(로동신문 9.11)
- 금야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염소방목지 건설 목표를 세우고 우량품종의 어미염소 확보사업과 염소종축장 건설을 선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민주조선 9.12)

□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축산기지 현대화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설된 축산기지를 중심으로 현지도

○ 평안북도 구성시 종합축산분장 현지도(7.18)

- 김정일동지는 축산물 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종자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축산업 발전에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함. 이와 함께 농장의 올해 영농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효과적인 비배관리를 위해서 김매기와 비료치기 등 모든 영농공정을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알곡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자혁명을 강화하여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배치하여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함.(로동신문, 민주조선 7.19)

○ 함경남도 함흥시 청년염소목장 현지도

- 김정일동지 현지도 이후 목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천연화강석을 다듬어 소재지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김정일동지의 현지도 표식비를 세우고 《김일성동지 혁

명사상연구실》도 특색있게 건설하였으며 문화회관도 새롭게 건설하고 있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빨간 지붕의 젓가공직장임. 목장지배인에 따르면 젓가공직장의 현대적인 설비들이 김정일동지의 지원에 힘입은 것임. 새롭게 건설된 젓가공직장은 지난 6월 4일에 조업하여 제품 생산을 시작함. 염소젖을 계량하는 공정부터 버터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500kg의 요구르트 제조탱크와 2대의 치즈 탱크, 현대적인 염소젖 저장탱크가 흐름식 공정에 맞게 놓여 있음. 자동적으로 온도가 보장되는 제품저장실, 제품포장실과 냉동기실, 나무보일러실, 기술준비실과 컴퓨터실 등이 갖추어져 있음.(로동신문 7.22)

3. 감자 농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주요 농정과제의 하나인 감자농사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농장으로 지정된 양강도 대흥단군종합농장과 삼지연군 포태종합 농장을 비롯해 함경남도 부전군은 감자 생산 증진을 위한 감자밭 가꾸기와 감자 역병 방지 대책, 노동 파견 등이 있었음을 보도

- 감자심기를 제 철에 질적으로 끝낸 대흥단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김매기와 비료주기 등 감자밭 가꾸기에 한창임.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감자밭 가꾸기로 분주한 농장포전에서 대중을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이고 있으며 군급기관의 일군들은 농장, 작업반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7.2)
- 신흥, 신덕, 농사동, 창평, 홍암농장들은 당에서 지원받은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기계 김매기의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짧은 기간에 농약뿌리기를 전부 끝냈음. 대흥단군에서는 김매기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후치질과 비료주기를 진행하고 있음. 농업 근로자들은 감자를 심은 날짜와 작황상태, 토양성분에 따라 질 좋은 거름을 공급하고 있음.(로동신문 7.2)
- 1950년대 초 김일성동지의 대규모농장 창설 기치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대대적인 개간작업이 이루어졌고 대흥단군은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 2년 전 3월 대흥단군을 방문한 김정일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함. ‘1950년대에는 백두고원의 원시림을 개간하여 밀보리 설레이는 대규모농장을 펼쳐 놓은 개척자들이 나왔다면 2000년대에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식량문제 해결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개척자들이 나와야 합니다’(로동신문 7.13)
- 감자농사혁명을 구상하던 김정일동지는 대흥단군에 1,000명의 당원제대군인들을 파견함. 식량문제 해결이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여는 핵심임을 놓고 볼 때 식량 문제 해결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백두대지의 제대군인들이야말로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음.(로동신문 7.13)
- 군에서는 김매기와 후치질, 역병을 비롯한 병충해 방지대책, 비료주기 등 감자밭

가꾸기에 따르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일군들이 한가지씩 맡아 해결하도록 함. 이미 군은 수백대의 배낭식 분무기를 마련하여 협동농장, 분조들에 보내주었으며 모든 협동농장에 고려약 비료, 고려식물성 농약, 미생물비료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역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면밀히 세움.(로동신문 7.15)

- 군은 김매기와 후치질 계획을 높이 세우고 군의 역량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군당 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직접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에 내려가 솔선수범으로 대중을 이끌도록 하고 있음.(로동신문 7.15)
-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읍지구의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에 나가 가루거름 생산을 군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비료주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도 농장, 작업반에 나가 감자밭 가꾸기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지키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7.15)
- 몇해 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에 따라 부전군은 감자조직배양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군당책임일군, 군협동농장 경영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석달 만에 공장이 완공되자 종업원들은 조직배양에 돌입했음.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부족한 시약과 설비 마련에 힘쓰고 있을 때 김정일동지는 수많은 현대적인 조직배양설비를 지원해주었음.(로동신문 7.15)
- 우리가 공장 세척실을 거쳐 시약조제실에 들어섰을 때 무균함, 정온기, 냉동설비, 전자천평 등 현대적인 설비를 이용하여 조제공이 조직배양에 필요한 영양액을 조제하고 있었음. 멸균실을 거쳐 접종실에서는 접종공이 무비루스 시험관모를 영양액이 들어 있는 배양병에 옮겨 심고 있었음. 배양병에 옮겨 심는 조직배양모를 단련시키는 실내배양실과 박막식 온실에서 우리는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에 정성을 다하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로동신문 7.15)
- 도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올해 감자밭 김매기작업 계획을 높이 세우고 일군들로 하여금 김매기작업 현장에서 화선식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활발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로동신문 7.26)
- 갑산군은 비가 자주 내리는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감자밭 김매기계획을 매일 1.2배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7월 20일 현재 수천 정보에 달하는 감자밭에 대한 세벌김매기를 끝내고 네벌김매기를 진행하고 있음. 김정숙군과 운흥군, 보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도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김매기를 실시하는 등 대흥단군과 백암군에서 감자밭 김매기가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7.26)
- 광복 이후 몇 해가 지나 김일성동지는 현지도도 중에 한 일군을 불러 백두고원의

넓은 대지를 개간하여 알곡생산기지로 조성할 구상을 제시하면서 그 준비를 잘 해야한다고 일깨워 주었음. 또한 한국전쟁 와중에도 김일성동지는 건설인력도 보장 해주고 바람막이숲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면서 농장건설을 이끌어 주었음. 이로써 1950년대의 백두고원의 원시림은 개간되어 대규모 농장으로 개설되었음.(로동신문 7.29)

- 오늘날 대홍단군은 현대적인 기계화 수단을 갖추고 감자심기로부터 김매기, 감자 캐기와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기계로 하는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거듭나고 있음.(로동신문 7.29)
- 군당위원회는 대홍단군 읍지구 조성사업에 군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음. 군은 33인민반을 본보기 단위로 꾸려 살림집구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음. 그리고 연장길이가 4,000m가 넘는 읍내 살림집들의 울타리를 지방에 흔한 나무로 새로 만들고 있음.(로동신문 7.29)
- 읍지구에 흐르는 홍단수제방공사를 보름 안에 끝낸데 이어 여러 개의 독을 쌓아 물의 흐름을 늦추어 어린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복판에 여러 개의 분수를 세워 놓았음. 뿐만 아니라 군 소재지에 있는 공공건물들의 개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적인 군여관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회관의 내부와 외부가 개조되고 있음. 또한 전기난방화된 살림집 건설도 기존 건물들의 개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로동신문 7.29)
- 대홍단군은 감자포전 가꾸기와 함께 밀, 보리 수확을 제 철에 끝내고 감자캐기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한창임. 감자수확기, 감자수송을 위한 자동차 등 기계수단의 정비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감자종자보관을 위한 사업도 해나가고 있음.(로동신문 8.23)
- 지금 홍암농장은 농기계를 앞세워 보리 수확작업에 한창임. 마력수 높은 트랙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농기계를 보내준 김정일동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기계화초병들은 보리수확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기계화작업반의 선반공은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제작 하는 등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음.(로동신문 8.23)
- 대홍단군의 각 농장에 파견나온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높은 연구성과와 훌륭한 감자 작황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을 분담함. 현지에서 연구사들은 농장의 다수확품종 감자포전에서 각자의 연구과제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또한 농장에서 제기된 문제들

- 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농장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로동신문 8.23)
- 감자캐기가 한창인 백암군은 감자캐기와 수송, 보관, 가공 등 모든 작업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9.8)
 - 원봉농장은 지난해보다 감자밭면적을 확장한 실정에 따라 인력조직을 실시하고 감자캐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옥천, 은덕농장도 감자캐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수송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감자를 저장고와 전분공장에 실어 내고 있음. 읍, 덕립, 동계, 상담협동농장 등도 감자캐기 실적에 맞게 수송과 보관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9.8)
 - 감자캐기가 한창인 백암군은 감자캐기와 수송, 보관, 가공 등 모든 작업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9.8)
 - 올해 예년보다 서둘러 많은 면적의 밭에 통알감자를 질적으로 심고 비배관리를 착실히 해온 대흥단군은 감자캐기에 앞서 홍암농장에서 기계수단을 총집중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 공정 간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짜는 문제, 감자를 신속히 가공처리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작업반, 포전별로 감자캐기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각 농장에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민주조선 9.12)
 - 홍암, 농사동농장은 작업반별, 포전별로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교대조직을 운영하여 각 기계별 감자캐기실적을 1.2배 이상씩 초과달성해 나가고 있음. 창평, 신덕, 삼봉농장은 수확한 감자를 실어 가공하는 등 기계 간, 공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모든 작업공정이 원활히 진행됨으로써 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민주조선 9.12)
 - 각 농촌에 파견된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포전별로 감자캐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인력 및 자재와 기계수단을 총집중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민주조선 9.14)
 - 대흥단군의 모든 농장은 감자캐기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25정보 이상씩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음. 백암군의 옥천, 증산, 광덕, 은덕, 원봉농장 등에서도 감자캐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김형권군, 풍서군, 갑산군, 삼수군 등 개마고원에 자리잡은 협동별도 감자캐기 일정계획에 따라 감자캐기 성과를 올리고 있음.(민주조선 9.14)
 - 지금 도의 농촌들은 1,000여 정보의 밭에서 감자를 캐냈으며 그 성과를 계속 확대

해 가고 있음.(민주조선 9.14)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감자캐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시하고 포전마다 방송선전과 직관선전 등 화선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 이와 함께 수시로 감자캐기 상황을 파악하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어 모든 단위들이 일정계획대로 감자캐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민주조선 9.14)
- 읍협동농장은 날짜별, 포전별로 세운 일정계획에 따라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면적에서 감자를 캐고 있으며 대흥, 련화협동농장도 감자캐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9.14)

□ 기타보도동향

<감자역병에 관한 해설과 담화>

- 삼지연군 농업경영위원회는 군당위원회의 지도 하에 감자역병 예방 및 방지에 힘써 오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결산하고 모든 일군들이 감자역병에 대한 지식학습을 벌였음. 역병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대책을 숙지한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각 농장의 초급일군들에게 역병방지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을 대상으로 감자역병에 대한 해설과 담화를 진행함.(로동신문 8.16)
- 감자역병이 퍼뜨리는 병균이 서식하기 알맞은 온도는 15~24℃이며 이 병균이 포자에서 나오는 가장 적합한 온도는 12~13℃임. 이 병균은 높은 온도와 햇빛에 약함. 감자역병은 장마철과 같이 습기찬 날씨가 계속되어 강수량이 20mm이상 되고 습도가 70~75%가 되는 상태가 5~7일 동안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함.(로동신문 8.16)
- 감자역병에 대한 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함. 각 감자연구소들은 감자역병 발생조건이 예상될 때 각 농장들에 감자역병예보를 해주어 모든 단위들이 감자역병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감자역병예보를 받은 때로부터 2~3일 후에는 약을 뿌리기 시작해야 하며 과학기술적으로 약을 쳐야 함.(로동신문 8.16)
- 감자역병은 그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역병에 걸린 감자포기들은 제때에 뽑아주어야 함.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감자밭 이랑을 깊이 후치질해주고 복을 높여주어 물이 잘 빠지게 해야 함.(로동신문 8.16)
- 삼지연군 포태농장은 다수확품종 감자밭 관리원들이 역병예찰사업에 책임있게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8.16)

- 다수확품종 감자밭을 맡고 있는 분조장 배성철동무의 말에 의하면 감자역병은 감자의 줄기와 잎 그리고 알에 생기는데 첫 증상은 잎에 누런색을 띤 불명확한 작은 반점들이 나타난다고 함. 이 반점들은 처음 감자잎 끝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점차 커지면서 밤색 또는 어두운 밤색으로 변함. 그리고 잎뒷면에는 반점의 둘레에 흰 곰팡이들이 생김. 만일 곰팡이가 생기는 시기에 흐린 날이 지속되면 반점이 커져 잎 전면에 퍼지며 마지막에는 잎이 까맣게 되면서 말라 죽음.(로동신문 8.16)
- 줄기와 꽃대에 이 병이 생길 때에는 먼저 반점이 생겨 점차 커지면서 줄기 전체를 둘러 싸게 됨. 이렇게 되면 줄기가 자라지 못하고 병든 부위로부터 윗부분까지 시들면서 말라 죽음.(로동신문 8.16)

<내각, 성, 중앙기관의 지원사업>

-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내각사무국, 도시경영성, 김창섭동무가 일하는 단위, 국가검열성, 직총중앙위원회 등 성, 중앙기관들에서 백암군의 감자농사를 지원하고 있음.(로동신문 9.8)
- 증산농장에 나온 내각사무국 일군들은 지상식 감자저장고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지원하였고 김창섭동무가 일하는 단위 일군들도 지상식 감자저장고 건설을 지원하여 큰 성과를 거둠. 옥천농장도 설비와 자재를 가지고 온 지원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지상식 감자저장고 건설이 경쟁적으로 벌어져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음.(로동신문 9.8)
- 농산작업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금속기계공업성 일군들은 수송기재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보급하여 수송기재의 가동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음.(로동신문 9.8)

<감자보관을 기술규정대로>

- 감자보관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가 생긴 감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임. 군일군들은 크기가 알맞고 상처가 없는 감자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감자는 켈 때부터 상처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운반 중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또한 감자를 켈 다음 15~29일 동안 말려 보관해야 하는데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로동신문 9.8)

<전분공장>

- 감자 가공을 통해 감자의 허실을 줄일 수 있음. 백암군은 감자전분공장을 보수정비

하고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음. 전력 및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 등이 부족하지만 부속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전력공급부문과 긴밀한 연계로 전력을 최대한 적게 이용하면서 감자전분을 생산하고 있음.(로동신문 9.8)

<성과를 내는 수송기재들>

- 얼마 전 당에서 수십 대의 자동차를 지원받은 백암군은 수송조직을 짜고 수송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광덕, 청봉, 원봉, 동계, 상담지구 등에 나간 트랙터 운전수들은 캔 감자를 제때에 실어냄으로써 감자의 허실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9.8)

<새로 건설된 지상식 감자저장고>

- 백암군 협동농장들과 농장들에 새로 건설된 지상식 감자저장고의 저장능력은 100톤 이상에 달한다고 함. 종전에 사용하던 감자웁은 습도가 높아 감자가 부패·변질되거나 썩이 빨리 자라 운반 도중에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상식 감자저장고는 감자를 안전하게 많이 저장할 수 있음. 감자웁은 보통 10년 정도 이용하고 재건설해야 했지만 지상식 감자저장고는 수십 년 동안 이용할 수 있음.(로동신문 9.8)

4. 산 림

□ 북한은 에너지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황폐화된 산림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우량 품종과 식용품종의 개발을 통한 복원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을 보고

- 산림과학원에서는 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 포플러나무, 잣나무, 은행나무와 같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꽃이가지와 접가지채취, 종자채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동나무, 큰 개암나무, 호두나무, 노란버드나무와 같은 세계적인 우량 품종의 나무들을 도입육종하기 위한 연구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종자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7.12)
- 외국의 친선들과 해외동포들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게 보낸 2,800여 종류에 4,600 그루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중앙식물원은 수백 정보의 부지에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휴식터이자 나라의 경제림 조성과 원림화를 실현하는 원종장임.(로동신문 8.1)
- 김정일동지는 중앙식물원에서 우리나라의 식물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없는 차나무, 커피나무, 야자나무, 계피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국의 식물들과 희귀식물들도 함께 조성하도록 함. 또한 경제적 효용이 큰 나무들과 관상용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길러 전국을 녹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로동신문 8.1)
- 열매에 비타민 A, B, C, E, F, K와 그 계열이 다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만 더운 지방에서는 해충피해를 많이 받고 잘 자라지 않음. 이번에 새로 육종된 비타민나무 《북청1호》는 추운 지방은 물론 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며 다른 비타민나무에 비해 열매수확고가 1.3배나 높음. 열매는 장수식품으로, 제약공업의 원료로 이용가치가 높으며 뿌리는 근류균을 형성하기 때문에 척박한 땅을 개량하는 데 유리함. 뿌리의 갈래가 복잡하고 엉켜있어 제방보호수종으로 쓸모가 있으며 발열량이 높아 땀나무로서의 가치도 큼. 다른 비타민나무와는 달리 가시가 없음.(민주조선 8.2)

- 송이벗나무는 나라 산림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래종 소나무림을 개조하는데 쓸 목적으로 육중한 나무임. 그렇기 때문에 토심이 얇은 곳이나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잎모양과 꽃모양, 열매가 달리는 모양이 불만하여 도시나 농촌풍경을 가꾸는데 효과적임. 나뭇잎이 크고 광택이 나며 보기에 좋아 원림관상용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재는 재질이 치밀하여 고급가구재로 이용할 수 있음. 다른 벗나무와는 달리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되어있으므로 수확량이 1.4배정도 많음. 열매는 8, 9월에 수확하며 25m정도까지 자람.(민주조선 8.2)
- 김정일동지는 작년 8월 아카시아나무림 조성사업을 군중적으로 활발히 진행할 것을 지적했고 온 나라가 산과 들에 아카시아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민주조선 8.17)
- 경제림 조성을 장려한 당의 의도에 따라 평원군은 20여 년 전부터 신성리의 야산에 동백나무림을 조성해왔음. 현재 그 면적은 120여 정보에 달하며 일군과 근로자들은 양묘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계획적으로 동백나무림을 확대해왔음.(로동신문 8.20)
- 지난 3월 김정일동지는 속성백양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100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이곳 양묘장에 보내주었고 도시경영성의 책임일군을 비롯한 성하위의 수백명의 일군들, 노동자들이 적극 나선 가운데 근 한달 동안 진행된 나무심기 작업에서 속성백양나무 30여만 그루, 은행나무 10여만 그루, 느티나무 3만여 그루를 비롯하여 가로수로써 좋은 100만 그루의 나무모들이 모두 양묘장에 심어졌음.(로동신문 8.23)
- 군산림경영소는 나무모 기르기에 유리한 지대에 나무모밭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과 리의 여러 곳에 나무모밭이 마련되었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단위도 나무모밭에서 많은 아카시아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로동신문 8.28)
- 덕천시는 경제적 효용이 큰 창성이깔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전망계획과 현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함. 창성이깔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굳으며 토양을 비옥하게 해줌으로 동발나무(깡목)로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로도 사용됨.(로동신문 9.1)
-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과 평양시녹화생산사업소에는 김정일동지가 올해 3월에 보내준 속성백양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100만 그루의 나무들과 150만 그루의 아카시아나무들, 이 부문 연구사들과 노동자들이 종자를 채취하여 심은 자귀나무, 황목련, 두충나무, 수유나무,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앓은향나무, 측백나무가 있

음.(로동신문, 민주조선 9.6)

□ 기타 보도 동향

<평안남도 은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 군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은산군은 몇 해 전부터 나무심기를 국토관리사업의 중요 항목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나무모밭을 재정비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나무모밭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함. 이와 함께 나무모밭에 지대적 특성과 용도에 맞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도록 함. 현지에서 일군들은 나무모밭 적지를 정하고 나무모밭 건설에 힘을 쏟는 한편 나무종자확보사업도 실시함.(로동신문 9.13)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 북청군은 강하천제방공사와 가로수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음. 전력난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에 북청강 정리를 하면서 수천m의 제방공사와 여러 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작업을 함께 진행하였음. 지난 기간 가로수조성사업을 활발히 벌려왔으나 나무들의 사름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가로수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음.(로동신문 9.13)

<강원도 세포군 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에서>

- 여러 해 동안 나무모 생산계획을 수행해온 세포군 산림경영소 청년양묘작업반은 나무모 생산을 늘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받아들였음. 그 중 한가지가 10여 년 전부터 실시해온 숲사이 나무모기르기로 영양물질이 풍부한 땅에서 나무모를 기르기 때문에 비료와 거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나무모에 해가 되는 벌레들이 적어 안전하게 나무모를 키울 수 있었음. 다른 또 한가지 방법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물농약을 만들어 이용한 것임. 산에 흔한 박새풀과 닥풀을 우려낸 액체를 벌레가 잘 생기는 6~7월에 이용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였음. 작업반은 올해도 지난 시기 나무모 기르기에서 얻은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80여만 그루의 아카시아나 나무모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생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음.(로동신문 9.13)

<온 나라에 푸른 숲 우거지게>

-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산림조성사업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동지는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할 것에 대해 지도하였고 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모든 부문,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조성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고 김정일동지의 의도대로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 함.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산림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함. 산림부문 일군들은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중요도로 주변과 주민지구, 주변 산, 땔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대에 심도록 해야 함. 또한 종자따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함. 일군들은 종자를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담과제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빠른 기간 내에 계획된 종자를 따야 함.(로동신문 9.13)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 태천군은 아카시아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위해 아카시아나무모를 군중적으로 생산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했음. 군급기관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들에서도 아카시아나무모를 키우게 하고 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 아카시아나무종자 공급과 나무모발 적지 선정을 담당하였음. 현재 태천군은 1,40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할 수 있는 나무모를 키우고 있음.(로동신문 9.13)

5. 이모작

□ 북한은 주요 농정추진 과제의 하나인 2모작의 원칙을 제시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맞게 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름과 가을철을 맞이하여 뒤그루 작물에 대한 농사 방침을 교시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장들의 동향을 보고

- 이모작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김정일동지의 현지도에 고무된 금정, 내동 협동농장을 비롯한 강령군의 협동농장들은 지난해에 비하여 유채밭과 밀보리밭, 감자밭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등 이모작농사면적이 크게 늘어났음.(로동신문 7.1)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이모작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그루작물 거두어 들이기와 논밭갈이, 미생물비료와 거름주기, 강냉이심기와 모내기 작업 등을 주체농법대로 제 철에 맞게 하였음.(로동신문 7.1)
- 북부산간지대의 특성상 이모작에 불리한 장강군은 채소와 채소 또는 채소와 알곡을 위주로 이모작을 하였고 알곡과 알곡농사는 일부 농장에서만 시험적으로 하였음. 그러나 알곡과 알곡 위주의 이모작을 장려한 당의 의도에 따라 올해 새롭게 이모작을 실시하기로 함.(로동신문 7.12)
- 알곡과 알곡 위주의 이모작에서 일군들이 역점을 둔 것은 종자임. 북방의 높은 지대에 자리한 이 고장에서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종자를 선택하여 심으면 앞뒤그루 알곡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임.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 일군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검증된 우량종자들을 찾아내는 한편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 품종의 종자를 마련하는 사업을 조직함.(로동신문 7.12)
- 또한 군은 마련한 종자를 확대 증식하여 군의 이모작에 필요한 종자들을 확보하고 제 철에 질적으로 심기 위한 조직사업을 수립한 것에 기초하여 올해 장강군은 가을밀과 감자 혹은 강냉이, 강냉이와 감자 등 알곡과 알곡 위주로 이모작을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7.12)
- 곡산, 신계, 수안군의 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면

적에 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일정계획대로 무씨불임을 진행하고 있음. 몇 해 전 김정일동지는 미루지대의 농사정형을 살피고 뒤그루로 무를 심을 것에 대해 지도 하면서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음. 김정일동지의 현지도에 따라 황해북도와 미루지대의 일군들, 농업 근로자들은 뒤그루 무농사를 성과적으로 해왔음.(로동신문 7.26)

- 감자 대 감자 이모작은 생육기일 보장, 감자가꾸기, 종자보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음. 농장일군들은 감자 대 감자 이모작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수확고가 높고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여 심기로 결정함. 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일군들은 해당 기관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방조 밑에 자기 고장에 적합한 종자의 확보·확대 사업을 추진함.

종자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앞그루로 심어 수확한 감자를 그대로 뒤그루 감자종자로 이용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감자종자의 잠깨우기가 더딜 경우 뒤그루감자의 생육기일을 보장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음. 농장일군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섰음.(로동신문 9.9)

□ 북한은 박윤화 동무가 사업하는 농장의 이모작 경험을 토대로 이모작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와 생산증대를 꾀하며 장려하고 있음을 보도

- 박윤화동무가 사업하는 농장에서는 이모작을 장려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침에 따라 앞그루 밀보리농사와 뒤그루 강냉이농사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음. 이 농장을 방문한 김정일동지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이 농장의 경험을 전국의 모든 농촌들에서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음.(로동신문 8.3)

○ 농업생산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

- 박윤화동무가 사업하는 농장지도일군들은 일년 열두 달의 대부분을 농장에서 보내며 모든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영농공정에 대한 지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지난날 김일성동지는 일군들에게 실제적인 지도를 한다는 것은 아래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알맞게 조직사업을 실시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 부문 책임일군들이 올바른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농업생산을 지도하도록 일깨워주었음.(로동신문 8.3)

○ 기본은 이모작

- 이 농장에서 전체 경작지의 93% 면적에 이모작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임. 올해 농사준비에 한창이었던 농장의 모든 작업반이 끝내야 할 일들은 중소농기구에서부터 종자되박, 모의자, 모매끼 등 60여 가지에 달했음. 뿐만 아니라 땅의 지력 향상을 위한 거름생산과제가 작업반, 분조, 농가세대별, 개인별로 할당되었으며 그 수행 상황도 포전에서 생산량과 질을 함께 평가하였음.(로동신문 8.3)
- 이모작 준비에는 제2, 4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제대군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두 배나 늘어난 거름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들은 농가마다 조성된 퇴적장을 이용하여 가축우리에서 밍혀낸 북데기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함. 제대군인들의 열의에 고무된 농장원들은 열두바닥을 파내고 마을 주변의 곳곳에서 부식토를 생산하는 등 거름생산에 적극 나섰음.(로동신문 8.3)
- 이처럼 넓은 면적에 이모작을 실시하면서 농장에서는 분조관리제의 기준으로 매일 노력일 평가사업을 포전에서 정확히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 한편 초급선동원들의 비중을 높여 포전경제선동을 인민군대처럼 활발히 벌였음. 그리고 계절별로 농장원의 휴식날도 다양하게 조직하였음.(로동신문 8.3)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맞게

- 이모작에서 기본은 종자임. 농장지도일군은 이 고장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종자를 선택하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수확고가 높은 우량종자를 마련하였음. 땅을 가리지 않고 가뭄에도 강하며 바람에 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확이 안정적인 뿐만 아니라 실용적 가치가 높은 앞그루 밀보리종자였음.(로동신문 8.3)
- 농장지도일군은 씨뿌리기와 가을걷이를 비롯한 이모작의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과 땅의 지력 향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음. 우선 작업반, 분조에 내려간 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여러 초식가축을 길러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고장의 토양조건과 그에 맞는 과학적인 땅다루기 방법을 인식시키기 위한 농업과학기술 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였음.(로동신문 8.3)
- 이 고장은 골짜기밭과 비탈밭이 대부분이어서 봄철에 냉기를 막고 지온을 높이자면 습한 땅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야했으며 비탈밭에도 유기질비료를 내야 농작물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여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 또한 밀보리가 여무는 시

기에 가뭄을 타지 않게 등성이포전까지 강우관수와 고량관수를 할 수 있도록 10개의 대형굴포를 건설한 것도 이모작을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비결이었음.(로동신문 8.3)

6. 과 수

□ 북한은 겨울 동안 관리한 과수나무들의 수확과 가을철 과수 수확 및 나무 관리에 대한 교시 등을 보도하고 있으며, 올과일의 종류인 살구와 복숭아, 자두, 포도 등의 수확량에 대한 동향을 보도

- 나라의 야산을 과수원으로 조성하도록 한 김일성동지의 북청회의 교시 이후 안변군의 바다기슭은 수백정보의 과수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농장에서는 겨울 동안 봄내 과일나무 관리를 잘하여 단벚을 수확한데 이어 지금 살구와 6월 복숭아, 자두 수확에 인력을 집중 하고 있음.(민주조선 7.6)
-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기 위해 나라의 과수업 발전과 정원 과일나무 조성사업에 큰 관심을 쏟았던 김일성동지는 모든 농가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배, 살구 등 과일나무를 심을 것에 대해 교시하면서 과일나무모 보장 대책까지 친히 세워주었음. 김일성동지의 과일나무 조성사업에 대한 유훈이 실현된 피현군은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어 철따라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자급하고 있으며 잔여분은 탁아소와 유치원, 건설장들에 보내주고 있음.(로동신문 7.8)
- 지난 6월 초 이곳 농장을 방문한 김정일동지는 과일나무종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고 과일농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도록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었음. 이에 따라 농장일군들은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대로 대규모 과일생산기지인 100리 청춘과원 과일군을 견학하면서 과일농사경험을 배워왔고 과일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특히 새 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고 과수재배를 기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망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세워 실현해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7.21)
- 농장은 과일생산을 과학화·현대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종자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기존의 과일나무를 수종별, 품종별로 파악하고 빠른 기간에 좋은 수종의 과일나무들로 그루바꿈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음. 이와 함께 나무모밭 면적을 약 2배정도 확장하고 좋은 수종의 과일나무모를 확보하여 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과일품종을

선택하고 과일나무도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과일나무도 생산을 담당한 분조원들은 덧거름 주기와 김매기, 결순치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방지대책도 세워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8.10)

- 호암협동농장 과수작업반의 왕밤나무분조는 왕밤나무의 모양만들기와 약뿌리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어린 왕밤나무에 붙인 접가지들이 장마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여름철 왕밤나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로동신문 8.18)
- 만경대농장을 비롯한 청년영웅도로 주변 농장과 사리원 과수농장에서는 포도를 정성들여 수확하고 있으며 평양과수농장에서는 8월에 복숭아도 수확하였음.(로동신문 8.23)
- 문화협동농장은 6월 농장을 방문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대로 과일나무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농장원들은 사과밭을 기름지게 가꾸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으며 약뿌리기도 적극 기계화하여 과일의 병해충 피해를 방지해나가고 있음. 또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대로 전망성 있게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수업을 과학화·전문화·기계화하기 위해 일군들은 대규모 과일생산기지인 황해남도 과일군의 과일농사방법을 배워왔음. 일군들은 농장의 과수업 발전전망계획을 세우고 맛이 좋고 수확고가 높은 새로운 품종의 과일나무모를 심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8.30)

□ 기타 보도 동향

○ 8월 17일자 <민주조선>은 평안북도 정주과실가공공장을 방문보도

-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고 26호모범기대공장영예상을 수상한 정주과실공장 정문을 지나 구내에 들어서니 과일향기가 가득했음. 기사장 김령집동무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도로 공장이 현대적인 일터로 변모되었으며 생산능력과 식료품의 종류, 질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함.(민주조선 8.17)
- 먼저 방문한 옥당작업반에서 원료투입부터 당화, 착즙, 여과, 졸임공정까지 모두 압수송에 의한 흐름식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장동무의 안내를 받음. 과일작업반에서는 원료투입부터 마감공정까지 기계흐름식으로 되어 있었고 사과, 복숭아, 자두 등 여러 가지 과일을 가공하여 과일단물도 만들고 과일통조림도 생산해내고 있었음. 오이통조림 작업반과 청량음료작업반도 모두 현대적인 설비들로 공정이 이루어져 있었음.(민주조선 8.17)

-
- 식료공장의 현대화할 것에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공장의 일꾼들, 노동자, 기술자들은 당화조와 착즙기, 여과기를 비롯한 기계장치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 수 있었음. 또한 공장은 자체적으로 원료기지를 조성하여 여기서 수확한 강냉이로 매해 30여 톤의 물옥당을 생산하며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음.(민주조선 8.17)

7. 양 어

□ 양어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종자의 확보를 통한 양어의 과학화·집약화를 촉구하는 한편 각지의 양어사업 추진 동향을 중점 보도

- 당의 양어방침을 잘 받아들여 모범적인 메기양어로 널리 알려진 이곳 양어사업소의 일군들은 메기양어에서 기본은 종자메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함. 올해 이 양어사업소는 지난해보다 1.6배 이상의 새끼메기 생산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메기알받이를 하고, 새끼메기를 부화시키고 있었으며 길 건너 비육못에서는 메기를 계단식으로 길러내는 등 각 공정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음. 이 양어사업소는 재배인, 초급당비서, 기사장들이 나서서 우리 식의 배합 먹이 생산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풍부한 식물성, 동물성 첨가제들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질을 자체로 해결하여 새끼메기의 성장속도를 지난해보다 1.8~2배 이상 높일 수 있었음. 비육양어장에서는 기사장과 양어 제2작업반장을 비롯한 양어공들이 메기양어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현장에서 토론하고 있었고 여관리공들이 먹이를 뿌리자 비육못에서 80~120g의 무게가 나간다고 했던 메기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음.(로동신문 7.12)
- 은덕군종어사업소는 양어장의 물고기를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기 위해 물고기의 생육조건을 보장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어미물고기못과 새끼물고기못에 10여 만 마리의 잉어를 넣고 여러 가지 배합먹이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장만하여 제때에 공급해주고 있음. 또한 가축배설물로 미생물을 대량번식시켜 먹이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먹이원료기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회령시종어사업소는 이미 10여 정보의 양어장을 건설한데 이어 지난해 8개의 어미물고기못과 새끼물고기못, 비육물고기못을 추가로 건설하고 먹이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음. 사업소에서는 여러 정보의 빈 땅에 농작물을 심어 물고기 먹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거위와 오리 등 가축의 배설물도 물고기먹이에 이용하고 있음. 길주군종어사업소는 장마철을 맞아 물고기 생육을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면서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둠. 이외 어랑군, 무산군, 화성군 등 도 안의 여러

종어사업소에서도 양어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음.(민주조선 8.14)

- 김정일동지의 외국방문 성과에 앙양된 양어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어에 과학화·집약화의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사업소에서는 양어의 과학화·집약화를 실현하도록 한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에 따라 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소에서는 수집 정보의 양어못 관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관리공들은 새끼고기못에서 살 찌우는 고기못에 이르기까지 물고기의 영양상태에 맞게 질 좋은 배합먹이를 공급하고 있음. 또한 매일 못의 수질상태를 살피고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물을 공급해주고 있음. 이와 함께 질 좋은 속성먹이와 자연먹이를 계획대로 생산하여 먹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먹이주기를 정확히 하고 있음.(로동신문 8.30)

○ 9월 10일자 <로동신문>은 제1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양어장 건설에 대해 보도

- 연합기업소 당위원회는 지대정리와 함께 인민생활에 유용한 대규모 양어장 건설을 추진함. 수량이 풍부한 태천언제 하류일대가 양어장 적지로 선정되고 연합기업소의 타입직장, 운수직장, 선별직장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 양어장을 완공함. 또한 8월 초에 1,500~1,750m² 규모의 10개 못에 잉어와 붕어를 넣어 기르고 있음.(로동신문 9.10)

8. 기타 보도동향

□ 북한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들에서의 김매기와 논물관리, 풀베기에 대한 영농관리 진행 사업 동향을 보도

○ 김매기 동향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 군들에서 모내기와 앞그루작물 수확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김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안악군 안악농장과 로암, 대추, 원룡, 구와협동농장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조직한 결과 애벌김매기를 끝내고 두벌김매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재령군 재천협동농장과 재령읍, 금산, 석탄 등 많은 협동농장들도 매일 수백 정보의 김을 매고 있음. 웅진군 남해, 송월, 본영, 수대협동농장들은 강냉이밭 네벌김매기와 논 두벌김매기를 기계적 및 화학적 방법으로 논김을 잡으면서 손김매기로 다그치고 있음.(로동신문 7.1)
-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농촌경리위원회는 강냉이밭김매기를 올해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사업으로 삼고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김매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장풍군 장좌, 구화, 읍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장마철전으로 김매기 1회 추가 실시를 목표로 매일 김매기일정계획을 120%씩 수행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강냉이밭 세벌김매기를 먼저 끝내고 네벌김매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판문군 대룡, 립한 협동농장은 멀고 구석진 포전에서 도로주변의 포전에 이르기까지 김매기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판문점, 봉동협동농장들에서도 김매기를 잘하여 강냉이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음. 풍덕, 려현협동농장을 비롯한 개풍군의 협동농장들은 김매기에 후치질을 적극 앞세우면서 분조단위마다 한 개 포전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강냉이밭김매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음.(로동신문 7.4)
- 황해남도 신천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알곡증산을 위해 김매기를 주체농법대로 실시하는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분조, 작업반 단위로 논김매기의 본보기단위를 만들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며 기술지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음. 명석, 백석협동농장은 김매는기계들을 정비하여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김매기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서원, 복우협동농장에 나간 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작업반장, 기술원,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김매기 기술 지도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청산, 반정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전에 논포전들의 김상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작업준비를 갖추어 논김매기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민주조선 7.4)

- 평안북도는 농촌경리부문 당조직에서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김매기도 모내기에 못지 않게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 공정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김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 논김매기에서는 선전, 구장, 삭주군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김매기에 집중시켜 인력조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포전별, 날짜별 김매기계획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또한 피현, 룡천, 박천군은 후치질을 앞세워 밭김매기를 실시함으로써 밭 김매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로동신문 7.5)
- 황해남도 황주군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을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여 강냉이밭 김매기를 질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이도록 함. 일군들은 여러 가지 형식의 경제선동을 열어 강냉이농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일깨우며 강냉이밭 김매기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영농작업으로 일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맞게 인력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김매기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7.5)
- 도당위원회는 협의회를 열어 모내기에 이어 김매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연계로 논 4회, 밭 5회 김매기목표를 세워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있음. 조직부는 각급 당조직을 통해 당원들이 김매기작업에 앞장서도록 당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선전선동부는 각 농촌들이 김매기를 적기에 끝내도록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일군들이 현지에 나가 선전선동 수단들을 동원하여 김매기에 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도록 하고 있음. 현지에 나간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시, 군의 김매기실태를 매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일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예술선전대와 각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과 함께 방송선전차, 학생가창대를 통한 경제선전활동이 적극 벌어지고 있음.(로동신문 7.13)
- 현재 시 차원에서 강냉이밭 네벌김매기가 마무리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논김매기도 일정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남포시는 논밭 네벌

김매기 목표를 제기하고 중간결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김매기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음. 농촌 당조직들은 김매기를 제 철에 끝내기 위한 문제를 놓고 다양한 정치사업을 벌이면서 김매기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들을 책임자로 하고 리당과 관리위원회 일군들, 편의봉사부문을 비롯한 비생산부문 성원들로 조직된 김매기 지원대들은 섬멸전의 방법으로 김매기에 나서는 등 각 농장들에 김매기 지원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 또한 시당위원회는 농산분조들에 김매는 기계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역, 군 농기구공장들과 농장수리분조를 비롯한 단위들은 김매는 기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로동신문 7.14)

- 강원도 천내군과 협동농장 일군들은 김매기 일정계획을 세우고 작업반과 분조의 초급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김매기를 다그치도록 하고 있음. 방송선전차, 기동에 술선동대 등 군의 선전선동 수단들과 역량이 농장별에 집중되어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열의를 높이고 있음. 룡담협동농장은 김이 돌아난 상태를 따져 가면서 한 포전씩 섬멸전으로 김매기를 하고 있으며, 로운 염전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은 인력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고 부림소를 이용하여 후치질과 김매기 횃수를 늘려 나가고 있음.(로동신문 7.22)

○ 논물 관리 동향

- 농장일군들은 작업반에 나가 논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해설하고 논물관리공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제4작업반의 물관리공은 물이 새지 않도록 논두렁을 손질하고 논물온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면서 기술규정대로 물을 대고 있음. 제5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에서도 논물대기 상황을 매일 결산하고 물관리공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논물관리를 잘하는 작업반과 물관리공을 소개선전하여 농업근로자의 작업열의를 북돋우고 있음.(로동신문 7.4)
- 황해남도 봉천군 한촌협동농장 특히 제1, 2작업반은 논물깊이와 온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고 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물대기를 정확히 실시하고 있음. 또한 논판의 물이 새지 않도록 논둑정리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평안남도 문덕군 인흥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의 논물관리공들은 논판의 물 깊이와 온도를 정상적으로 재어보면서 물대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밤에 수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낮에 햇빛을 받아 더워진 물이 논판에 흘러들게 하여 벼들이 더 빨리 자라고 있음. 황해남도 안악군 신촌협동농장 제7작업반은 모내기를 한 날짜와 비료치기를 진행한 날짜를

따져 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 9, 12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도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로동신문 7.12)

- 황해북도 황주군 장천협동농장 제3, 10작업반은 벼가 온도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논물을 대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물관리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음. 강원도 천내군 금성협동농장은 논물온도와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고 논판의 물이 새지 않도록 논둑다짐을 실속있게 하며 물깊이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음. 또한 논물관리공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앞선 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평안북도 염주군 삼개협동농장 제1, 2작업반은 논두렁 다지기와 관리를 통해 논판의 물이 새는 것을 막고 앞선 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로동신문 7.15)
- 평안북도 동림군 잠봉농장은 논물관리공들을 위한 기술학습을 조직하고 물대기방법을 비롯하여 논물온도를 높이는 문제와 논물깊이를 잘 알려주고 그에 맞게 물대기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고 있음. 함경남도 함주군 천원협동농장 논물관리공들은 필지별, 포전별 토양조건과 날씨에 맞게 논물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논물온도와 깊이를 측정하면서 물조절을 실속있게 하고있음. 평안남도 대동군 팔청협동농장은 논물관리공들을 위한 방식상학과 기술학습을 진행하여 물관리에 대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지도하고 있음. 평안북도 룡천군 신대협동농장은 논물관리공들에게 온도계와 물자를 비롯한 기구들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로동신문 7.23)
- 요즘 벼농사에서 중요한 문제는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임. 농촌경리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물관리에 관심을 돌려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해야함.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각지 일군은 급수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물길마다 물을 채워 놓아야 함. 또한 관개관리소에 내려가 양수기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양수기 운전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함. 전력공업부문 일군은 양수기의 만가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교차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운영해야 함. 논물관리공은 논두렁과 물꼬의 상태를 자주 살피고 물낭비가 없도록 하며 비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논물대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함. 또한 협동농장은 집중호우에도 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고인물빼기 양수장의 가동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함.(로동신문 7.25)
- 평안남도 구성시 청룡농장은 논물관리공을 위한 기술학습과 방식상학을 조직하는

등 기술지도를 강화함. 논물관리공들은 벼의 생육상태에 적합한 물깊이와 온도를 보장하며 논판의 물이 새지 않도록 논둑과 물도랑을 손질하고 앞선 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은 작업반과 분조에 매일 날씨와 물공급 상황을 알려주면서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논물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좋은 논물관리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고 있음. 함경북도 화성군 상장리는 논물관리공을 위한 기술강습과 기술전습,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필지별, 포전별 논벼상태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논물관리공들은 논둑을 보강하고 물길정리를 하여 논물이 새지 못하게 하며 물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음.(로동신문 8.4)

-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사전에 각 협동농장에서 논물관리공을 책임감 있고 경험이 풍부한 농장원들로 배치하도록 하고 논물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지도하고 있음. 또한 높은 기온으로 논물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에 맞게 논벼가 높은 온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민주조선 8.7)
-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고 농업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자면 농촌기술혁명 특히 수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 김일성동지는 광복 직후 몸소 보통강 개수공사를 발기하면서 수리화의 역사를 열었음. 또한 전쟁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평남관개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1958년 당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에서 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 위한 계획과 수행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또한 수리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이는 물빠기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리며 밭에 관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했음. 김정일동지는 지금까지 이룩된 수리화의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몸소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발기하고 물길공사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 주었으며 수백 리에 달하는 개천-태성호물길공사는 완공을 앞두고 있음.(로동신문 8.31)
- 농작물의 생육은 물에 의해서도 조절되는데 특히 벼이삭이 여무는 시기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야 하므로 물원천을 확보하여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물관리를 해야 함. 벼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물관리에서 유의할 사항은 관개관리부문 일군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물 낭비를 막고 최대한의 물을 이용해야 하므로 물대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논물관리를 지장없이 해야 함. 또한 토양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물대기방법을 배합하고 논물관리공들은 벼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물대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이와 함께 강한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동뚝, 논두렁, 고인물빠기시설 관리에도 신경을 쏟아야 함.(로동신문 8.31)

○ 풀베기 동향

- 황해북도는 지난해보다 1.2배 많은 풀을 베어 거름 생산을 늘일 목표를 세우고 풀베기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시, 군, 농장별 풀베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당하고 지대별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베기를 대대적으로 벌이기 위한 대책을 세움. 특히 가축우리 주변과 산기슭, 농지 근처에 서로 다른 규격으로 퇴적장을 만들어 풀을 베는 대로 진거름과 배합하거나 가축들에게 밟게 하여 규모있게 쌓고 있음. 일군들은 농장 간, 작업반 간의 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 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풀베기작업에 대중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도 활발히 벌이고 있음. 신평군은 풀이 자란 상태, 풀판조건, 인력과 운반수단 등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역의 산과 들, 강기슭, 밭두둑 등을 일일이 돌아보고 풀원천을 타산한 것에 기초하여 날짜별 풀베기 계획을 확정함. 봉산군은 농작물 가꾸기와 홍수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영농작업을 제 철에 질적으로 하면서 풀베기에 인력을 집중하여 며칠동안에 2만여 톤의 풀을 베는 성과를 거둠.(로동신문 7.13)
-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시, 군들에서 7~8월 풀베기철에 많은 풀을 베어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풀베기작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농장들은 풀베기 적지를 선정하고 날짜별 풀베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인력과 운반수단을 집중, 매일 많은 풀을 베고 있음. 그리고 가축우리 주변과 산기슭, 농경지 가까이에 각기 다른 규격의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풀을 베는 대로 진거름과 섞거나 가축우리에서 밟혀지도록 하고 있음. 군의 농장들은 풀베기작업에 앞서 초급일군들이 자기 구역의 밭두둑과 골짜기, 강기슭 등을 살피면서 날짜별 계획을 세워 작업조직을 결성하여 매일 풀베기실적을 올리고 있음. 또한 김매기와 비료주기, 농작물가꾸기와 물도랑치기 등 영농작업을 제 철에 질적으로 하면서도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며칠 동안에만도 수천 톤의 풀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7.22)
- 운산군은 풀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잡고 농촌당조직의 선동원, 5호담당 선전원을 비롯한 초급선전일군들로 하여금 풀거름생산이 땅의 지력을 높여 알곡소출을 늘일 수 있다는 내용을 해설선전하게 하고 있음. 한편 풀베기작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농장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있음. 룡흥협동농장은 인력과 운반수단을 풀베기에 집중시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축우리에 밟히게 해서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남산협동농장 일군들은 풀판을 조사한데 이어 적지에 인력을 집중시켜 작업반, 분조 간 사회주의경쟁을 통해 풀베기 실적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7.28)

- 함경북도 화대군 토원협동농장의 작업반과 분조들은 풀베기과제를 계획량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제3작업반이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밭머리와 방목지에 150~200톤짜리 퇴적장을 만들어 풀을 베어내는 대로 썰어 거름을 만들고 있음. 평양시 순안구역 태암협동농장에서는 제5작업반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제5작업반은 산기슭과 물웅덩이 주변 등 풀이 자라는 모든 곳에서 풀베기를 실시하여 날마다 풀베기과제를 1.3배 이상 수행하고 있음.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풀베기 상황을 작업반, 분조별로 파악하면서 좋은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황해북도 토산군 봉불협동농장 제6작업반은 분조별, 세대별 풀베기 과제를 정확히 할당하여 그 날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작업반에서는 풀베기 실적이 좋은 분조와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소개하면서 경쟁적으로 풀거름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로동신문 8.1)
- 황해남도 청단군은 매일 평균 6천여 톤의 풀을 베고 있으며 분조마다 5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퇴적장을 조성하여 베어낸 풀로 거름을 만들고 있음. 청단군은 분조에게는 잘 썬 풀거름 500톤, 각 세대에게는 20톤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고 풀베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개성시 장풍군은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 풀베개과제를 정확히 할당하고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성과를 높이고 있음. 또한 베어낸 풀을 현지 퇴적장에 쌓아 놓고 기술규정대로 썬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풀베기 상황을 파악하여 결산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8.3)
- 강원도 원산시는 시당책임비서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협동농장에서 실천적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들을 이끌고 있음. 일군들은 시의 풀판 면적과 인력을 과학적으로 측정된 것에 기초하여 적기를 놓치지 않고 풀베기 실적을 올리고 있음. 신성협동농장, 룡천협동농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풀을 베어내고 퇴적장을 규격별로 만들어 제때에 썬히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자강도 동신군의 일군들은 풀씨가 생기기 전에 풀을 베어야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이고 있음. 또한 풀베기가 다른 영농작업과 함께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양, 수전, 석포협동농장 등에서 풀베기를 일정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 황해북도 평산군의 협동농장들은 밭머리와 산기슭, 농가세대마다 50톤, 100톤 규모의 퇴적장을 만들고 풀을 베는대로 가축우리에 밍혀 내거나 진거름과 섞어 쌓아놓고 있음.(로동신문 8.10)
- 평양시 강남군의 협동농장들은 대동강 주변 물길과 호수, 진펄에 난 풀을 베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신정, 영진, 고읍, 당곡협동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별로 풀베기를 실시하고 베어낸 풀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썬히고 퇴적장에 쌓아놓고 있음.

군의 공장, 기업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풀베기를 진행하고 있음. 자강도 우시군 룡해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매일 150kg 정도의 풀을 베어내고 있음. 제2작업반 5분조는 이미 30톤의 풀을 베어내는 성과를 이루는 등 퇴적장마다 풀거름을 가득 쌓아 놓고 있음.(로동신문 8.11)

-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 작업량을 계획보다 초과달성하고 있음. 봉천군 한촌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농업근로자들은 분조마다 500~1,000톤 규모, 각 가정마다 50톤 규모의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풀베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과일군 연광농장의 제2, 3, 4, 5작업반은 풀베기 상황을 결산하고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등 작업열의를 높여주고 있음.(로동신문 8.19)
- 풀베기작업에 돌입한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남포시에서는 유기질 함량이 가장 높은 적기에 더 많은 풀을 베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만경대구역, 락랑구역, 상원군 등 평양시의 농촌들은 풀원천이 많은 곳들에 작업장소를 정하고 집중작업을 벌여 평양시의 풀베기계획을 107.8% 달성하였음. 북청군, 허전군, 신포시, 함주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농촌들은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을 벌려 풀베기 속도를 높이는 한편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퇴적장들에 베어낸 풀을 쌓고 있음. 황해남도 특히 신원군, 봉천군의 협동농장에서 일군들이 화선식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이끌어 풀베기 계획을 끝낸데 이어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베어놓은 풀들을 진거름에 채워 도적으로 매일 16만톤의 풀을 베어내고 있음.(로동신문 8.23)

□ 기타 보도 동향

○ 7월 16일자 <로동신문>은 '대용비료생산을 늘이자' 라는 글을 게재

- 주체농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시비체계를 세우고 그에 맞게 비료를 치는 것이 중요함. 지금은 나라의 화학비료 사정이 매우 어려움.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대용비료 생산을 적극 늘여 올해 농사작황을 늘여야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대용비료 생산을 다그쳐 생산량을 늘여야 함.(로동신문 7.16)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대용비료 생산의 의의와 중요성을 농업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모두가 대용비료 생산에 적극 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추진해야 함.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 비료를 적극 생산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야 함. 각지 일군과 근로자들도 대용비료 생산에 적극 나서 농촌에 보내주어야 함.
(로동신문 7.16)

- 또한 비료치기를 적기에 해야 함. 농사의 성과여부는 비료를 알맞은 시기에 치는 것에 달려 있음. 각지 협동농장 일군들은 주체농법대로 지대별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비료공급 양을 정확히 규정하고 대용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해야 함.(로동신문 7.16)

○ 7월 23일자 <로동신문>은 평안북도 인민보안원들의 농사지원작업에 대해 보도

- 운전군 인민보안서의 정치일군은 지난 5월 27일 청정협동농장에 인민보안일군들을 파견하여 매 작업반의 영농사업실태를 알아보도록 하는 등 인민보안일군들이 농사일에 나서도록 함. 이와 함께 군의 협동농장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해당 문제를 알아보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 모내기에 필요한 트랙터 부속품과 원동기, 연료 등을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며 양수기와 전동기 수리대책도 마련하고 모뜨기도 적극 도와주었음.(로동신문 7.23)
- 신의주시 인민보안서장을 비롯한 인민보안서 일군들은 자재 부족으로 모내기에 지장이 생긴 협동농장들에 영농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벌려 수많은 물자를 보내주었으며 7차례에 걸쳐 인민보안원들이 협동농장에 나가 모내기를 도와주었음. 룡천군을 비롯한 도의 인민보안서 책임일군들은 모내기조건이 불리한 농장들에 교대로 내려가 농장일을 적극 도와주고 있음.(로동신문 7.23)

○ 7월 30일자 <로동신문>과 7월 31일자 <민주조선>은 국영5호농장 창설 50주년 기념 보고회가 29일 대흥단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 내각총리 홍성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계응태동지와 김중린동지, 김창식 농업상, 리광호 과학원장, 계영삼 농업과학원장, 량강도 인민위원회 리공필 위원장, 량강도 농촌경리위원회 차영철 위원장, 량강도 당위원회 김경호 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대흥단군 일군과 근로자들이 참가함.(로동신문 7.30)
- 대흥단군의 전체 근로자와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홍성남 동지가 전달함. 축하문은 국영5호농장 창설 50주년을 맞아 백두산3대장군의 업적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흥단군의 전체 근로자와 일군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함.(로동신문 7.30)
- 대흥단군의 근로자와 일군들은 백두고원에 개척의 역사를 펼친 당의 의도에 따라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버려져 있던 땅을 개간하고 방풍림을 조성하여 대규모 농장을 조성해냈음. 또한 북부고원지대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맞는 알곡작물들을 육종하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알곡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렸음.(로동신문 7.3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흥단군의 근로자와 일군들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농업 생산과 군 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군을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해 강조함.(로동신문 7.30)
- 계웅태동지는 기념보고에서 국영5호농장이 창설된 이후 대흥단군의 지난 50년 역사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지속적인 현지도 속에 이룩되어 왔다고 말하고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따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 달성으로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함.(로동신문 7.30)
- 이어 대흥단군 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박근수, 신흥농장 초급당비서 리광우, 신태농장 농장원 최창만이 토론함. 토론자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적극 받아 들이고 감자농사를 과학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또한 농업생산의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여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설비들로 감자농사의 성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감자가공공장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발전소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며 군 내 공장들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한편 문화후생시설과 편의봉사망을 확충해나갈 것에 대해 강조함.(로동신문 7.30)

○ 7월 6일자 <민주조선>은 평양농장 2중 3대혁명붉은기 제6작업반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당의 농촌건설구상 실현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 있는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 농업생산을 늘이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당면계획과 전망계획을 농장의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 목표에 반영하고 그 실현에 앞장서고 있음.(민주조선 7.6)
- 작업반은 채소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매 품종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씨불임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고 봄채소모 옮겨심기를 짧은 시간에 끝낼 목표를 세움. 봄채소모 옮겨심기를 단기간에 끝내려면 선행공정인 밭갈이를 제 때에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제반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밭갈이를 끝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작업현장에서 '1950년대 투쟁정신'을 해설하는 등 정치사업과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는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함.(민주조선 7.6)

- 일군들은 트랙터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 소를 이용하여 밭갈이작업을 다그친 결과 작업반원들은 봄갈이를 예정대로 끝냈으며 채소모 옮겨심기를 최적기에 실시할 수 있었음. 이로써 작업반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봄채소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둠.(민주조선 7.6)
- 뿐만 아니라 기술을 혁신하고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적극 받아들여 채소생산을 늘리고 그 가지수를 대략 2배이상 늘린 것,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높여 일터와 마을의 면모를 사회주의답게 일신시킨 것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룩된 것임.(민주조선 7.6)

○ 7월 7일자 <민주조선>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혁명사적관을 방문보도

- 사적관 1호실에서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보고 난 뒤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김일성동지가 1962년 8월 미곡협동농장을 처음 방문한 이래로 16차례에 걸쳐 이곳을 현지지도하면서 농장이 나갈 길을 밝혀주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 김정일동지가 김일성동지의 뜻에 따라 1968년 5월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4차례나 이곳을 찾아서 지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함.(민주조선 7.7)
- 2호실에는 1947년 9월 분여받은 땅에서 거둔 햇쌀을 가지고 찾아온 미곡벌의 농민들을 북조선인민위원회 집무실에서 친히 만나는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과 미곡벌에 수리화를 실현한 혁명사적자료들을 돌아봄. 3호실에서 미곡협동농장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고를 바쳐온 김일성동지의 업적에 대한 사진자료들을 보는 가운데 김일성동지가 황해북도에서 미곡협동농장을 종합적 기계화의 본보기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 30여 대의 자동차와 40여 종에 100여 대의 현대적인 농기계를 선물로 보내주었다고 강사는 설명함.(민주조선 7.7)
- 강사는 다음의 내용을 해설해주었음. 1969년 9월 김일성동지는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려면 토지정리부터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지정리사업에 대해 지도함. 토지정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에 따라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백 정보의 논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였음. 1970년 8월 다시 농장을 찾은 김일성동지는 토지정리 완수에 이어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내는 기계까지 보내주었음.(민주조선 7.7)
- 미곡협동농장의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알곡, 남새, 축산, 과일생산을 늘리고 교육, 문화, 보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주도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음. 7호실에서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가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한 1969년 9월의 사진자료들과 신문자료들을 보고 김정일동지가 이곳 농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과수업 발전과 농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도록 이끈 사적자료들이 전시된 8호실을 둘러봄.(민주조선 7.7)

○ 8월 1일자 <로동신문>은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에 대해 보도

<평안북도 염주군 룡북협동농장의 경험>

- 논김매기철에 작업반별 김매기 상황을 살피던 리당비서 김운복동무는 각 작업반의 김매기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가장 높은 작업성과를 보이고 있는 제1작업반 2분조포전의 작업동향 파악에 나섬.(로동신문 8.1)
- 제1작업반 2분조는 분조의 알곡생산계획과 하루 김매기량, 그에 대한 노력일¹의 크기를 알고 있었으며 작업실적을 올려 생산을 늘이면 분배받는 몫이 커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음. 또한 작업반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분조관리제를 올바르게 실시해왔음. 작업반장은 제1작업반 2분조를 본보기로 분조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분조는 작업 전후로 분조모임을 실시함. 이를 계기로 분조장은 분조원들에게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분조원들이 분조농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함. 분조장은 포전별, 필지별 구체적인 작업조건과 실정에 맞게 하루 김매기 과제를 할당하고 작업결산을 진행한 다음 그에 따른 평가를 하였음. 특히 농장원들의 노력일을 개인별로 따져서 평가하고 노력일 계산서에 정리하였으며 이는 다시 노력일 평가조 성원들과 합의되고 분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로동신문 8.1)
- 분조관리제가 올바르게 실시됨으로써 분조원들의 열의와 책임은 더 높아졌고 매일 진행되는 영농작업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음. 즉, 모든 농사일의 성과 여부는 분조관리제에 대한 지도를 바로 하는 것에 달려 있음.(로동신문 8.1)
- 제1작업반 2분조의 경험을 파악한 농장일군은 당조직의 지도 밑에 분조장들의 모임을 조직하였고 리당비서는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그 실현에 따르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설함. 이와 함께 김매기에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1, 3작업반의 경

¹ 노력일 : 【농장원이 자연적 시간개념에 의해 작업에 참가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노력일 계산기준 즉 “협동농장 기준작업 정량표”에 의해서 평가된 노력일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종자파종을 1일 했을 때는 1점, 살충제 살포는 1.25점, 모심기는 1.5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연말에 이 점수에 따라 노력일이 산정되어 수확량을 분배받게 된다. ※ 출처 : 『북한편람』, 북한연구소, 1995】

힘을 적극 소개하였고 농장일군들을 작업반, 분조들에 파견함.(로동신문 8.1)

- 현지에서 일군들은 농장원들이 분조농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분조의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함. 또한 농장에서는 분조에서 노력일평가조 성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노력일을 정확히 주도록 하였음.(로동신문 8.1)

<책임있는 분조장>

- 량강도 김정숙군 신상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장은 늘 분조원들에게 집단주의에 기초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면서 매일 작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있음. 또한 포전조건과 작업량, 분조원들의 성격과 능력에 맞게 작업조직을 짜고 분조원들에 대한 하루 노력일 평가사업도 질량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8.1)

<노력일 평가조의 역할을 높여>

-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2분조는 노력일 평가사업에서 모든 농장원들이 일한 것 만큼, 번 것 만큼 분배받도록 사회주의분배원칙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노력일 평가조 성원들의 역할을 높인 분조에서는 하루 작업실적을 질적인 수행 상황을 기본으로 작업조건과 작업의 양과 질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고 있음.(로동신문 8.1)

<10일 노력일 공시>

- 자강도 송원군 신양협동농장 제2작업반은 매일 노력일 평가사업을 실시하면서 열흘에 한번씩 노력일을 공시하고 결산사업을 진행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8.1)

○ 8월 10일자 <로동신문>은 강원도 통천군이 지난해 8월 김정일동지의 외국방문기간에 세웠던 목표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

- 군당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김정일동지가 현지도한 구읍리에 80여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과 염소목장 건설 목표를 세우고 김정일동지가 현지도한 마을과 염소목장을 살피면서 설계를 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살림집 구획과 염소목장 적지를 선정함.(로동신문 8.10)
- 군당위원회는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살림집건설작업을 전개함. 군당책임일군들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정치사업을 실시하였고 예정대로 85동

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해냄.(로동신문 8.10)

- 자연초지가 갖춰진 황룡산 기슭에 여러 동의 염소우리와 합숙, 살림집, 사무실, 젓가공실과 생도식 저장고 등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건설작업을 시작함. 군당위원회는 필요한 자재들을 군 자체적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소요인력은 돌격대를 조직하여 충원하고 있음.(로동신문 8.10)

○ 8월 13일자 <로동신문>은 농업연구 성과에 대해 보도

- 감자종자를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게 순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혜산농림대학은 이미 해발 1천m 이상의 북부고산지대에서 수확고를 올릴 수 있는 강냉이종자를 연구하여 이 지대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했음.(로동신문 8.13)
- 계웅상사리원농업대학은 닭고기 생산과 산란율을 높이고 콕시디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제때에 예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로동신문 8.13)
- 숙천농업대학은 새로운 사과 품종을 육종하여 받아 들인데 이어 과일나무 벌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8.13)

○ 8월 18일자 <로동신문>은 평안북도 관산군 원하협동농장의 저수지 건설에 대해 보도

- 리당비서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 건설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농사차비를 앞당겨 끝내는 등 저수지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한달 사이에 제방을 쌓았음.(로동신문 8.18)
- 립해저수지가 완공됨으로써 물공급에서 하위에 있는 100정보 논밭의 용수 공급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음. 립해저수지는 농장의 논밭들보다 높은 곳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양수동력설비와 전기 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함. 또한 물관없이 자연관수로 100정보의 논밭에 물을 공급하고 있음. 저수지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100여 개나 되는 것도 장점임.(로동신문 8.18)
- 농장은 저수지에 양어계획을 세웠으며 저수지 건설로 10정보의 새 땅을 개척해냈음.(로동신문 8.18)

○ 8월 20일자 <로동신문>은 평안북도 의주군의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에 대해 보도

- 김정일동지의 지적대로 의주군은 농장원들이 사는데 편리하도록 농촌문화주택 건설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특히 올해 10월 초순까지 440동의 농촌문화주택 건설목표를 세웠으며 현재 300여 동의 농촌살림집이 이미 완공되었음.(로동신문 8.20)
 - 의주군은 김정일동지가 홍남벌을 현지지도하면서 높이 평가한 농촌살림집들을 본보기로 하여 건설작업을 진행하였음. 또한 살림집 건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속도전으로 살림집 건설을 실시하여 계획했던 건설작업량의 70%를 모내기 전에 끝냈음. 군은 7월부터 농촌살림집 건설을 재개하였는데 계획보다 완공을 앞당길 것으로 보임.(로동신문 8.20)
- 8월 22일자 <로동신문>과 8월 20일자 <민주조선>은 김일성동지의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지도 40주년 기념보고회가 1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 평양원에총국 김동규총국장, 연구소 일군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구소분초급당비서 조태옥이 기념보고를 함.(로동신문 8.22)
 - 보고자는 1962년 8월 20일 김일성동지가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채소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지도한 것에 대해 언급함. 김일성동지는 그 후에도 남새과학연구소에서 채소재배기술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토양연구, 채소용 비료 연구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소가 종합적인 남새과학연구기지로써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하였음.(로동신문 8.22)
 - 또 김정일동지는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비료를 적게 치고 박막을 쓰지 않으면서 높은 작황을 낼 수 있는 채소종자, 이모작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체적인 종자개량방침을 제시하고 채소종자를 보내주었음. 이와 함께 연구소가 전국적 범위에서 채소작물에 대한 품종연구, 채소재배기술 연구와 보급, 교류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 함으로써 채소과학연구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로동신문 8.22)
 - 보고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채소생산에서 나타나는 문제,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며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실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강조함.(로동신문 8.22)
- 9월 12일자 <로동신문>은 자강도 농촌들의 세벌누에치기 동향을 보도
- 자강도는 시, 군에 잠실을 새로 건설하고 부화와 어린 누에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벌이고 있음. 또한 생산성이 높은 뽕나무면적을 확

장하고 비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누에먹이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연관 부문 공장, 기업소에서 누에치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지원하도록 함. 이로써 한 해에 두 번밖에 하지 못하던 누에치기를 3~4번씩 하여 누에 고치 생산량이 증가하였음.(로동신문 9.12)

- 만포고치농장과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은 봄누에와 여름누에치기에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세벌누에치기를 실시하고 있음. 희천시 부흥잠업협동농장과 장강군 읍협동농장 잠업작업반은 잠실소독을 철저히 하고 온도와 습도 조절 등 누에치기에 대한 과학기술적 사항을 지켜 세벌누에치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로동신문 9.12)

○ 9월 14일자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전국농기계 전시회 및 기술혁신 발표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발명제작한 200여 대의 농기계들이 전시되었음.(민주조선 9.14)
- 전시회에는 신천군 농기계작업소에서 출품한 4날틀보습, 문덕군 룡담협동농장에서 발명한 수직파동시시비기,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 만든 축력식 강냉이파종기, 영광군 인다협동농장에서 출품한 돌림식 강냉이종자선별기 등 특색있고 성능이 뛰어난 농기계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민주조선 9.14)
- 기술혁신발표회에서는 영농작업의 기계화에 이바지한 2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이 발표되었음. 5마력 원동기작통 재생방법, 5마력 벼숙직파기와 감자밭 복주기효과를 높인 후치보습, 만능종합탈곡기를 발명제작한 경험 등이 발표되었음.(민주조선 9.14)

○ 9월 15일자 <민주조선>은 김정일동지의 현지도 1주년 기념보고회가 13일과 14일 함경남도 7월6일철도공장, 라흥콘크리트침목공장, 성천강계단식발전소, 영광청년양어사업소, 신흥군 중평협동농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 김정일동지는 새로 건설된 수심 정보의 현대적인 영광청년양어사업소를 둘러보면서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좋은 종자의 연구개발, 먹이문제의 해결 등 민물고기 생산과 양어장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지도해 주었음.(민주조선 9.15)
- 또한 신흥군 중평협동농장을 방문하여 6작업반마을의 발전소와 문화주택, 목욕탕 등 여러 곳을 살펴본 김정일동지는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준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업 생산과 농촌건설에 따르는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 주었음.(민주조선 9.15)

- 보고자들은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해 분발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립해 나갈 것을 강조함.(민주조선 9.15)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3. 교류협력사업 동향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6월 중 남북교역액은 202품목 2,866만 달러로 전월 212품목 5,628만 달러에 비해 49.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83품목 2,466만 달러에 비해서 16.2% 증가했음.
- 반입은 85품목 1,544만 달러로 전월 82품목 1,520만 달러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80품목 1,290만 달러에 비해서는 19.6% 증가했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65.0%, 섬유류 15.7%, 전자 및 전기제품 2.9%, 철강금속제품 4.0% 등임.
- 반출은 143품목 1,322만 달러로 전월 153품목 4,107만 달러에 비해 67.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29품목 1,175만 달러에 비해서는 12.5% 증가했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9.6%, 화학공업제품 9.3%, 섬유류 43.1%, 철강 금속 제품 10.6%, 농림수산물 9.4%, 전자 및 전기제품 6.1% 등임.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003만 달러로 전월 856만 달러 대비 17.2% 증가하고, 전년 동월 618만 달러 대비 62.3% 증가했으며, 6월 전체 반입액 1,544만 달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리의 65.0%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8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8.2%), 기타 축산물부산물 등 축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어패류·수산물가공식품 등 수산물이 72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46.7%)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24만 달러로 전월 194만 달러 대비 36.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6.1%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밀가루 등 농산물이 8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6.5%), 분유·닭고기 등 축산물이 3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4%), 건축용 목제품·기타 목제품 등 임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건조수산물·기타 어류 등 수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80품목 2,640만 달러로 전월 202품목 2,866만 달러에 비해 7.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209품목 2,501만 달러에 비해서 5.5% 증가했음.
- 반입은 59품목 780만 달러로 전월 85품목 1,544만 달러에 비해 49.5% 감소했으며, 전년동월 84품목 1,220만 달러에 비해서는 36.1% 감소했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9.5%, 섬유류 13.8%, 전자 및 전기제품 6.2%, 철강금속제품 21.2% 등임.
- 반출은 133품목 1,860만 달러로 전월 143품목 1,322만 달러에 비해 40.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155품목 1,281만 달러에 비해서는 45.2% 증가했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10.7%, 화학공업제품 13.1%, 섬유류 44.3%, 철강금속제품 10.1%, 농림수산물 10.1%, 전자 및 전기제품 8.2% 등임.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386만 달러로 전월 1,003만 달러 대비 61.5% 감소하고, 전년 동월 638만 달러 대비 39.5% 감소했으며, 7월 전체 반입액 780만 달러의 49.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12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6.4%), 기타 축산물부산물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수산물가공식품 등 수산물이 25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2.8%)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87만 달러로 전월 124만 달러 대비 50.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6.1%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밀가루 등 농산물이 9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5.2%), 분유·닭고기 등 축산물이 5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0%), 제재목 등 임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2%), 명태·기타 어류 등 수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219품목 3,947만 달러로 전월 180품목 2,640만 달러에 비해 49.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197품목 3,088만 달러에 비해서 27.8% 증가했음.
- 반입은 76품목 1,607만 달러로 전월 59품목 780만 달러에 비해 106% 증가했으며, 전년동월은 84품목 1,607만 달러임.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36.5%, 섬유류 45.9%, 전자 및 전기제품 5.8% 등임.
- 반출은 173품목 2,340만 달러로 전월 133품목 1,860만 달러에 비해 25.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133품목 1,481만 달러에 비해서는 58.1% 증가했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12.7%, 화학공업제품 3.1%, 섬유류 50.6%, 철강 금속제품 5.7%, 농림수산물 7.8%, 전자 및 전기제품 13.1%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586만 달러로 전월 386만 달러 대비 51.8% 증가하고, 전년 동월 671만 달러 대비 12.7% 감소했으며, 8월 전체 반입액 1,607만 달러의 36.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1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3.4%), 로얄제리 등 축산물이 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 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36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2.7%)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83만 달러로 전월 187만 달러 대비 2.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2.4%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 · 밀가루 등 농산물이 11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8%), 분유 · 쇠고기 등 축산물이 6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 젓가락 ·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기타 연체동물 · 기타 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를 차지했음.

표 1 2002년 6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344,982	2,809	18.2	농산물	383,346	858	6.5
대두	420,000	252		쌀	15,757	51	
녹두	200,000	115		감자	16,871	45	
팥	271,700	101		밀가루	24,221	15	
강낭콩	40,000	13		들깨	400	-	
기타 곡실류	780	1		사과	13,726	42	
무	9,000	3		배	95,099	25	
기타 채소	287,426	403		기타 채소	300	1	
고사리	89,556	390		고사리	400	2	
표고버섯	18,649	97		대두유	28,800	16	
기타 버섯류	5,760	30		커피	78,700	169	
호도	16,000	74		제조담배	79,082	404	
기타 견과류	140,000	46		식물성 한약재	2,413	7	
식물성 액즙	30	2		맥주	4,300	4	
제조담배	60,000	510		위스키	849	12	
식물성 한약재	651,010	692		브랜드	63	3	
소주	1,866	3		기타 음료	4,334	10	
포도주	3,000	5		사탕	33	-	
기타 주류	9,750	16		면류	3,105	9	
물	12,000	2		빙과류	2,055	7	
면류	15,855	9		기타 농산가공품	12,840	38	
기타 농산가공품	92,600	44					
축산물	485	10	0.1	축산물	179,412	322	2.4
기타 축산물부산물	485	10		닭	4,345	11	
				닭고기	166,641	293	
				로알제리	420	3	
				분유	8,006	14	
임산물	16,640	7		임산물	25,892	34	0.3
목재식탁용품	110	-		건축용목제품	22,505	30	
기타 목재류	180	1		목재틀	298	3	
기타 임산부산물	16,350	5		기타 목재류	3,090	1	
수산물	2,109,077	7,211	46.7	수산물	12,021	36	0.3
명태	463,063	335		기타 어류	9,600	30	
넙치	1,827	17		건조수산물	2,421	6	
기타 어류	9,430	23					
꽃게	6,943	22					
기타 게	15,964	25					
문어	114,579	244					
낙지	8,140	8					
피조개	12,495	25					
기타 조개	104,276	70					
기타 연체동물	399,992	1,091					
기타 해조류	2,555	2					
명란	12,528	56					
어류 통조림	13,740	19					
기타 염장수산물	54,000	102					
건조수산물	470,818	3,682					
기타 수산가공품	395,247	1,295					
기타 수산물	23,480	195					
합 계		10,036	65.0	합 계		1,249	9.4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2호(2001.6.1~6.30).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660,260	1,276	16.4	농산물	654,945	961	5.2
기타채소	75,640	80		쌀	54,956	165	
고사리	90,500	405		밀가루	450,000	94	
고비	표고버섯	15,094	86	대두유	42,555	403	
표고버섯	15,094	86		사료	15,000	15	
기타 버섯류	8,500	40		제조담배	44,552	229	
호도	11,970	53		소주	800	1	
기타 견과류	19,000	6		맥주	35,530	16	
식물성액즙	500	30		위스키	398	9	
제조담배	9,800	85		브랜드	13	1	
식물성 한약재	389,080	416		물	1,788	8	
기타 주류	4,511	14		면류	7,620	15	
면류	24,605	16					
견	120	1					
축산물	2,355	21	0.3	축산물	186,096	564	3
기타 축산물부산물	2,355	21		닭고기	168,074	360	
				소시지	2,094	7	
				분유	11,500	164	
				난류	348	-	
				모류	4,080	33	
임산물	20,000	8	0.1	임산물	242,095	228	1.2
기타 임산부산물	20,000	8		제재목	242,095	228	
수산물	493,492	2,558	32.8	수산물	54,922	124	0.7
명태	27,070	21		명태	26,000	16	
기타 어류	3,906	21		기타 어류	28,822	109	
새우	8,000	54		기타 조개	60	-	
꽃게	9,792	42		기타 연체동물	40	-	
기타 게	430	5					
문어	62,165	134					
기타 연체동물	42,687	213					
명란	11,535	15					
기타 염장수산물	19,125	38					
건조수산물	135,030	1,284					
기타 수산가공품	156,112	636					
수산부산물	11,880	9					
기타 수산물	5,760	86					
주: 구합비는 전체 반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49.3%하는 비율임(%).						1,877	10.1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3호(2002.7.1~7.31).

표 3 2002년 8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36,446	2,159	13.4	농산물	551,986	1,119	4.8
기타 곡실류	500	1		쌀	105,114	253	
무	3,500	8		밀가루	272,000	84	
기타 채소	90,150	111		사과	27,285	155	
고사리	168,383	754		기타 곡실류	3,800	14	
고비	8,700	50		고사리	100	1	
표고버섯	9,858	38		녹차	24,000	107	
기타 버섯류	19,420	73		제조담배	71,416	389	
기타 견과류	18,700	8		소주	16,150	9	
기타 식물성유지	2,160	15		맥주	1,720	1	
식물성액즙	11,004	45		위스키	498	10	
제조담배	47,000	366		브랜드	2,080	48	
식물성 한약재	460,485	579		정당	18,000	5	
기타 주류	1,311	5		곡류가공품	4,212	25	
물	2,000	1		빙과류	5,293	13	
면류	78,915	44		모	319	5	
기타 농산가공품	114,000	61					
기타 농산물	360	1					
축산물	5,093	58	0.4	축산물	288,143	676	2.9
				쇠고기	173,142	383	
로얄제리	5,093	58		소시지	2,177	3	
				로얄제리	42,825	95	
				분유	63,000	133	
				모류	6,999	62	
임산물	0	0	0.0	임산물	5,532	23	0.1
				목재틀	10	-	
				젓가락	2,271	7	
				기타 목재류	3,251	16	
수산물	867,330	3,646	22.7	수산물	10,211	13	0.04
명태	36,580	41		기타 연체동물	100	-	
뱀장어	120	2		기타 수산가공품	10,111	13	
새우	8,000	55					
꽃게	49,910	122					
기타 게	3,388	25					
문어	88,264	179					
기타 조개	58,429	34					
기타 연체동물	141,817	209					
기타 염장수산물	9,825	20					
건조수산물	240,038	2,057					
기타 수산가공품	218,159	685					
기타 수산물	12,800	217					
합 계		5,862	36.5	합 계		1,831	7.8

주: 구성비는 전체 반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4호(2002.8.1~8.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827	80	176,298	495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1,124	109	222,855	2,720	166	64,436	287,291	△ 158,419
1996	1,648	128	182,400	2,980	166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2	193,069	2,185	281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5	92,264	2,847	376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1	121,604	3,421	404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6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0	176,170	3,034	490	226,787	402,957	50,617
소 계	20,685		1,794,717	21,311		1,134,458	2,929,174	△ 660,259
2002.1	444 (253)	91 (81)	20,008 (9,316)	218 (164)	123 (104)	7,392 (6,348)	27,400 (15,664)	△ 12,616 (△ 2,968)
2002.2	355 (212)	75 (57)	15,952 (8,178)	232 (200)	163 (131)	12,785 (12,965)	28,737 (21,143)	△ 3,167 (4,787)
2002.3	335 (333)	87 (83)	15,303 (13,281)	264 (306)	154 (174)	16,579 (26,475)	31,882 (39,756)	1,276 (13,194)
2002.4	375 (279)	89 (64)	14,095 (10,735)	243 (230)	151 (158)	27,876 (19,777)	41,971 (30,512)	13,781 (9,042)
2002.5	461 (317)	82 (75)	15,208 (8,846)	284 (252)	153 (135)	41,071 (56,705)	56,279 (65,551)	25,863 (47,859)
2002.6	436 (308)	85 (80)	15,445 (12,909)	263 (291)	143 (129)	13,223 (11,755)	28,668 (24,664)	△ 2,222 (△ 1,154)
2002.7	191 (335)	59 (84)	7,800 (12,204)	321 (300)	133 (155)	18,602 (12,810)	26,402 (25,014)	10,802 (606)
2002.8	374 (410)	76 (84)	16,070 (16,077)	395 (287)	173 (133)	23,408 (14,810)	39,478 (30,887)	7,338 (△ 1,267)
소 계	2,971 (2,447)	167 (170)	119,879 (91,547)	2,220 (2,030)	429 (417)	160,937 (161,643)	280,816 (253,190)	41,058 (70,096)
총 계	23,656		1,914,596	23,531		1,295,395	3,209,991	△ 619,201

주: 1) ()안은 2001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34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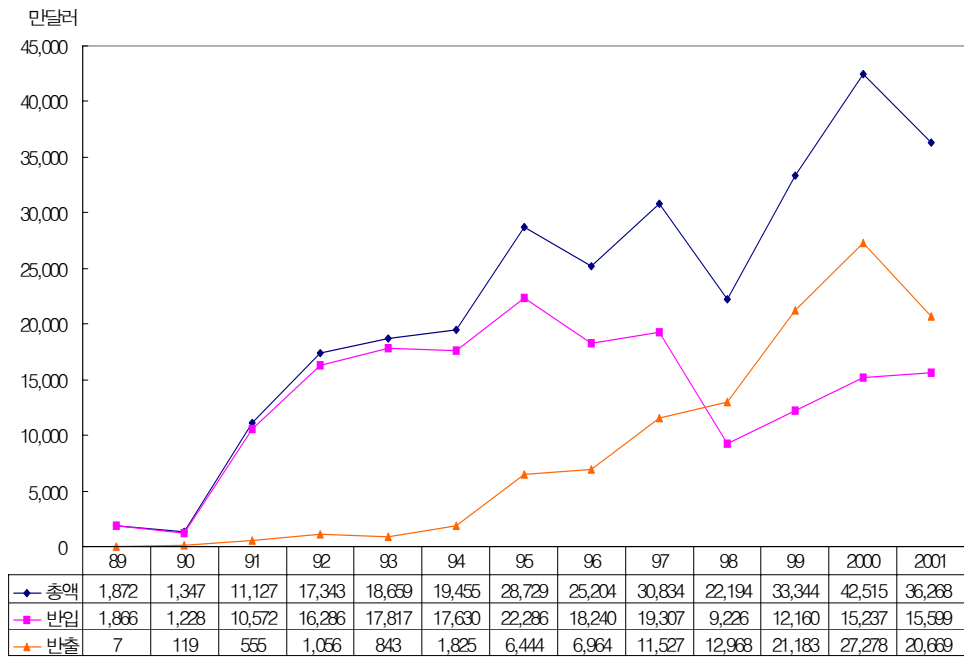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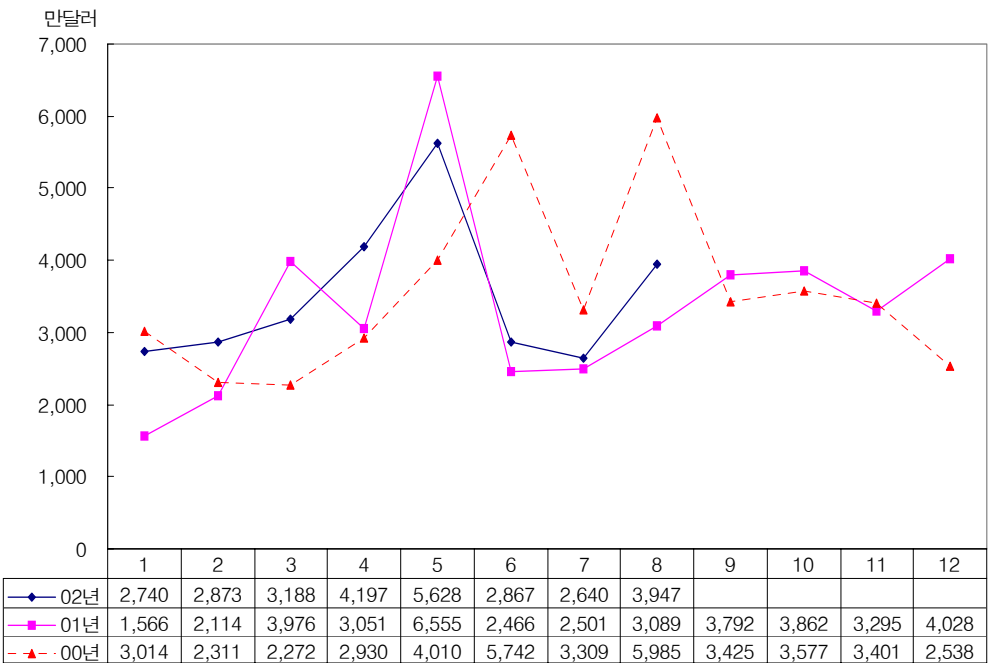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7,924	-	-	-	-	-	-
1990					-	-	-	10	-	-
1991	-	-	-	10,818	-	-	-	1,607	12,425	△ 9,211
1992	-	-	-	16,906	-	-	-	64	16,970	△ 16,842
1993	-	-	-	12,015	-	-	-	69	12,084	△ 11,946
1994	-	-	-	15,250	-	-	-	3,317	18,567	△ 11,933
1995	-	-	-	22,319	-	-	-	9,306	31,625	△ 13,013
1996	-	-	-	23,455	-	-	-	6,714	30,169	△ 16,741
1997	-	-	-	27,326	-	-	-	17,024	44,350	△ 10,302
1998	7,895	3,526	13,377	21,798	18,732	510	398	19,640	41,438	△ 2,258
1999	15,057	4,484	28,327	47,868	15,682	1,796	189	17,667	65,535	△ 30,201
2000	23,352	7,014	41,566	71,932	23,910	1,005	464	25,379	97,311	△ 46,553
2001	38,781	5,717	45,316	89,814	29,096	424	2,977	32,494	122,304	△ 57,320
소 계	-	-	-	277,611	-	-	-	100,797	378,408	△ 176,814
2002.1	4,972 (3,050)	8 (977)	6,481 (1,900)	11,461 (5,927)	810 (812)	228 (0)	53 (27)	1,091 (839)	12,552 (6,765)	△ 10,370 (△ 5,088)
2002.2	3,049 (1,267)	0 (90)	5,132 (2,914)	8,181 (4,271)	1,530 (799)	55 (14)	7 (1,153)	1,592 (1,966)	9,773 (6,237)	△ 6,589 (△ 2,305)
2002.3	1,388 (3,805)	1 (494)	5,794 (2,947)	7,183 (7,246)	1,168 (11,147)	39 (230)	4 (1,169)	1,211 (12,546)	8,394 (19,792)	△ 5,972 (5,300)
2002.4	1,625 (2,514)	0 (338)	4,594 (2,888)	6,219 (5,740)	1,200 (3,991)	76 (51)	150 (142)	1,426 (4,183)	7,645 (9,923)	△ 4,793 (△ 1,557)
2002.5	1,806 (1,852)	0 (535)	6,756 (3,277)	8,562 (5,664)	1,836 (615)	30 (1)	79 (60)	1,945 (676)	10,507 (6,340)	△ 6,617 (△ 4,988)
2002.6	2,819 (2,164)	7 (148)	7,211 (3,868)	10,036 (6,179)	1,180 (1,412)	34 (42)	36 (236)	1,249 (1,690)	11,285 (7,869)	△ 8,787 (△ 4,489)
2002.7	1,297 (2,488)	8 (193)	2,558 (3,607)	3,864 (6,288)	1,525 (828)	228 (2)	124 (0)	1,877 (830)	5,741 (7,118)	△ 1,987 (△ 5,458)
2002.8	2,217 (2,929)	0 (474)	3,646 (3,283)	5,862 (6,686)	1,795 (562)	23 (6)	13 (0)	1,831 (568)	7,693 (7,254)	△ 4,031 (△ 6,118)
총 계	-	-	-	338,979	-	-	-	113,019	451,998	△ 225,960

주: 1) ()은 2001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됨.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27~134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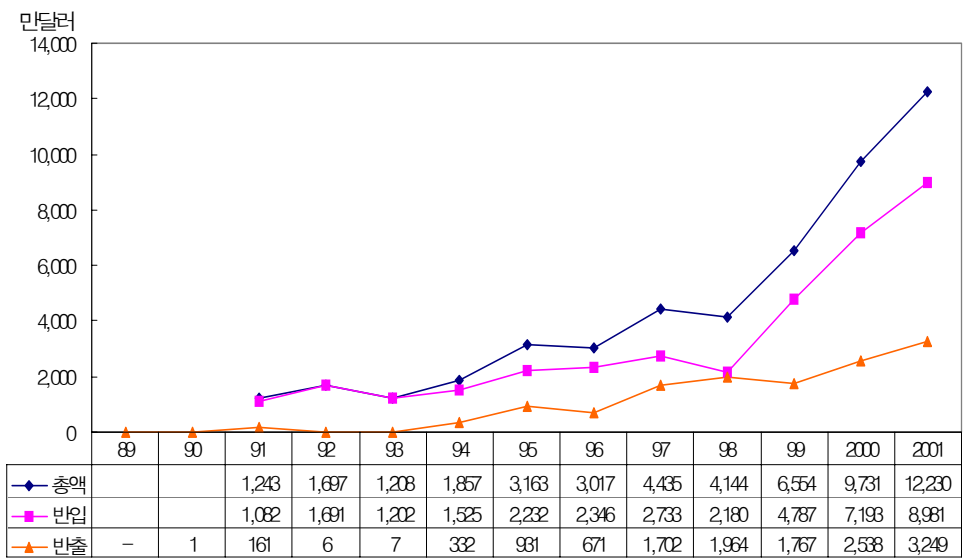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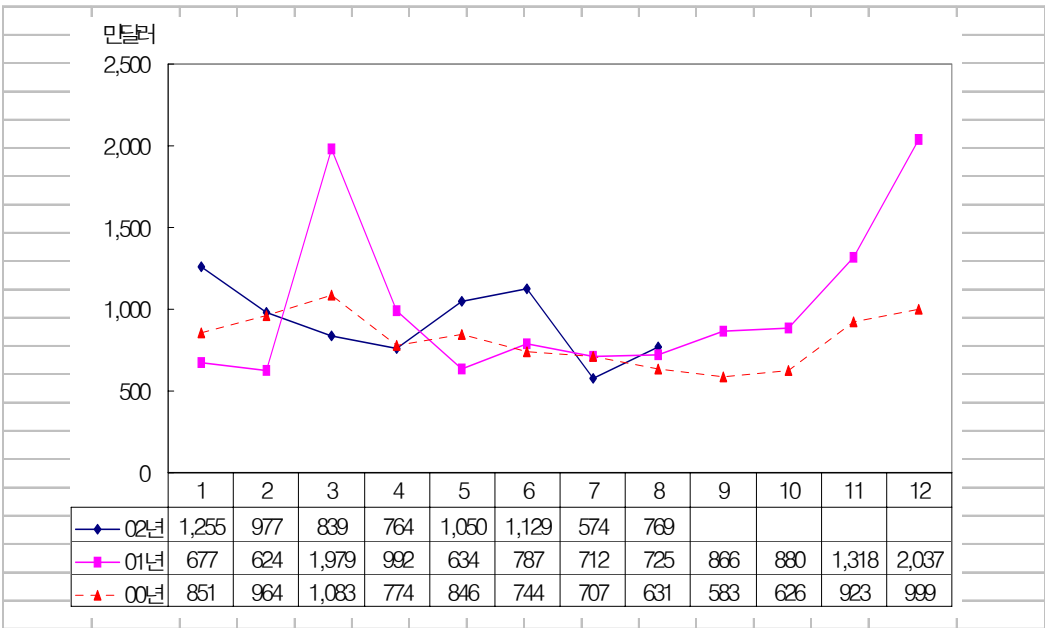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한 지원 동향

□ 6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61억 8,431만원

- 2002년 6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61억 8,431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29억 6,223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6 6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계속)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우리민족서로돕기	산양유 가공시설	4,240
	한방의료용품, 치과용품, 의약품	20,244
	축구공 2002개	3,003
	트랙터 1대, 축산급수설비	4,180
	경운기 200대	50,000
	콜타르 180,000liter, 에폭시	5,575
	밀가루 25톤	625
	트랙터 타이어 1,000개	7,313
한국이웃사랑회	방충망, 냉장고, 가스렌지, 전기밥솥, 식기 등 부엌설비	1,510
	우유생산 기자재	4,625
	내시경용 광구, 주방설비	703
	비료 100톤, 밀가루 250톤	8,703
	우유포장설비, 우유통 100개, 유리병, 배합사료, 차량타이어 14개	6,638
동북아교육문화재단	곡식(쌀, 콩), 생필품, 학용품	9,558
국제옥수수재단	농약, 제초제, 생필품 등	13,150
	비료 2,450톤, 옥수수 원종, 비닐 등	78,206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밀가루 50톤, 생필품	3,605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벽지	475
	두유제조설비, 공구, 설탕 등	2,753
	사이다, 초코파이	1,918
한국 기독교 북한동포 후원연합회	분유 8톤, 아동복, 아동신발 등	329,201

표 6 6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평화의 숲	묘목 73,500주, 양수기 3대, 전동기 1대	747
새천년 생명운동	묘목 10만주, 밀가루 100톤, 비료 25톤, 분무기 200대	18,563
천주교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양말 2,800켤레, 아동용 의류 15종	4,041
유진벨	치과재료 26종, 수액발생기, 레이저 프린터, 학용품 세트, 기타 치과재료 3종	16,244
	x-ray 부속품, 간염백신, 주사기	3,719
한민족복지재단	병원보수자재, 차량부속품, x-ray시스템, 5톤 화물차	10,349
	밀가루, 설탕, 급식빵	1,991
	앰블런스 1대	1,67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아동복 1만벌	4,875
총 계	618,431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2호(2002.6.1~6.30).

□ 7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13억 8,251만원

- 2002년 7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13억 8,251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61억 8,431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7 7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한국이웃사랑회	밀가루 100톤, 분유 11.5톤	23,346
	분유 45톤, 설탕 15톤, 식용류 10톤, 냉장고 3대, 가스렌지 2대, 전기밥솥(32인분) 9대, 전압조정기 10대, 의류 34,000여 벌, 식기 600세트	62,627
국제옥수수재단	농약 20.1톤, 옥수수 200대, 자전거25대	20,623
한민족복지재단	비료살포기 430대	1,861
천주교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옥수수 1천톤, 밀가루 300톤, 비닐15톤, 발전기 1대	29,794
총 계	138,251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3호(2002.7.1~7.31).

□ 8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58억 2,317만원

- 2002년 8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1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58억 2,317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13억 8,251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8 8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지원단체	품목 및 수량	금액(만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의류 4,886점, 옷감 등	14,039
Good Neighbors (한국이웃사랑회)	아기용 침대/침구200세트, 주방용 조리대, 벽제타일 400평, 양변기, 세면대, 환풍기 20개	6,905
	밀가루 100톤, 난방설비 6종	5,9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선 500kg, 진블럭, 커터기 10개 등 건축자재	1,864
	공구박스 1,400개, 페인트, 에나멜신나 등	4,060
	연도강판 19,200장, 못 30만개, 공구250개	35,889
	목초종자 3만 8천톤, 비료 260톤	6,108
	곡축 베어링 1천개	1,414
	트랙터 타이어 1천개, 벨트 1천개	8,360
	쌀 40톤	7,330
	트랙터 4대, 콤팩인 50대, 기타 부품	61,968
기독교북한동포돕기후원회	분유 6톤, 아동복 6만벌, 유아복8만벌 등	224,459
	아동용 의류 등	4,539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아동용 의류 등	4,539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분유 4.2톤, 아동복, 여성복, 신발 등	5,329
한국 JTS	전지분유 12톤, 쌀 38톤, 어린이영양식	7,373
한민족복지재단	치과용 의료기기, 시멘트 등 기타	963
	항균제 4만정, 항생제4만정, 점안액200개, 수술실 장비 13종, 피부연고제 1만개, 밀가루 520톤, 빵공장 설비자재 51종	140,957
월드비전	농약 9종	3,690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항생제, 한방용 침, 정제설비 부품	15,072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밀가루 172톤	8,153
총 계	582,317만원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4호(2002.8.1~8.31).

□ 대북 지원액 추이, 1995.6~2002.5

단위: 만원

연 도	민간차원			정부차원	합 계
	한적창구	독자창구	소 계		
1995	· 1995.9~1997. 5 (한적,국적경유)		396,915	18,500,000	27,397,160
1996	· 1997.6~1997. 7 (한적 1차지원)		757,000	240,000	
1997	· 1997.8~1997.10 (한적 2차지원)		810,000	2,400,000	
	· 1998.3 (한적 2차추가)		28,000		
1998	· 1998.4~1998. 6 (한적 3차지원)		1,309,045	1,540,000	
	· 1998.9~1998.12 (한적 3차추가)		1,416,200		
1999	-	-	2,235,920	3,390,000	5,625,920
2000	1,132,988	3,069,230	4,202,218	9,435,722	13,637,940
2001	-	-	7,944,634	8,495,400	16,440,034
소 계	-	-	19,099,932	44,001,122	63,101,054
2002.1	18,490	866,591	885,081	0	885,081
	(87,494)	(17,385)	(104,879)	(0)	(104,879)
2002.2	-	-	285,294	650,000	935,294
	(66,856)	(431,316)	(498,172)	(0)	(498,172)
2002.3	-	-	390,606	390,000	780,606
	(1,665,751)	(463,766)	(2,129,517)	(690,000)	(2,819,517)
2002.4	-	-	264,314	1,120,000	1,384,314
	(59,651)	(286,414)	(346,065)	(780,000)	(1,126,065)
2002.5	-	-	296,223	4,290,000	4,586,223
	(564,754)	(435,234)	(999,988)	(5,665,400)	(6,665,388)
2002.6	-	-	618,431	2,150,000	2,768,431
	(23,259)	(286,846)	(310,105)	(1,360,000)	(1,670,105)
2002.7	-	-	138,251	0	138,521
	(0)	(253,942)	(253,942)	(0)	(253,942)
2002.8	-	-	582,317	0	582,317
	(0)	(240,697)	(240,697)	(0)	(240,697)
소 계	-	-	3,460,517 (4,883,365)	8,600,000 (8,495,400)	12,060,787 (13,378,765)
총 계	-	-	22,560,449	52,601,122	75,161,841

주: 1) 통일부가 발표한 반출 승인기준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통관기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은 2001년 동기 실적임.

3) 대북지원창구 다변화(99.2.10) 이후 민간 대북지원은 한적창구와 독자지원창구로 구분됨.

4) 2월 민간지원액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를 경유하여 지원한 85,605만원이 제외된 것임.

5) 3월 정부지원액은 통일부의 3월 발표자료에는 710,000만원(내의 150만벌 48억원+옥수수 10만톤 2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7월 발표자료에는 내의 150만벌 지원액이 46억원으로 나타나 있음.

6) 2001년 5월 정부차원 대북지원액은 4,358만 달러에 대해 1\$=1,300원을 적용한 금액임.

7) 12월 지원액은 잠정치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34호.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2년 3~8월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이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없음. 8월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은 총 9개로 전체 79개 기업(단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47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5건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2년 8월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성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 선봉지대 협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재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 배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 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
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
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
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4호.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남북한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문 참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 사항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함.
-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함.
-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조사에 착수함.
-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추진함.
- 경제협력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함.
-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t(차관)과 비료 10만t을 지원함.
-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함.

□ 대북 식량 지원 및 비료 지원

- 금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당국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고, 비료 10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쌀 차관지원 합의문 참조)
- 그 동안의 국회 논의, 농민단체·종교단체의 요청 등 대북 쌀지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확인되었으며,
-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의 경우 부분적으로 상업적 교류의 의미를 띠고 있어 장기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쌀 차관제공 조건 :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2000년과 동일)

- 쌀 및 비료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북지원 과정에서 분배결과 통보·분배과정 현장 확인 등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함.
- 이번에 북한에 지원하는 쌀과 비료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남측의 지원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2.10.7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70	79.5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등
3차 '97.4~12	18,439	15,781	85.6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33, EU 2,752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등
5차 '99.1~12	29,208	18,980	65.0	미국 17,50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호주 270, 노르웨이 200,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263	48.6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80	64.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5, 스위스 222, 노르웨이 212,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²⁾ '02.1~12	24,683	18,461	74.7	미국 6,345, 한국 1,624, 호주 339, 스웨덴 228, EU 395, 영국 137, 독일 135, 캐나다 204 등
총 계	186,824	119,250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2) 2002년 10월 7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2호.

*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PR Korea

표 2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실적, 2002.1.1 ~ 10.7

기 구		지원요청액(달러)	조성금액(달러) ²⁾	부족액(달러)	실적율(%)
NGO	CAD	0 ¹⁾	0	0	0
	CESVI	1,150,000	1,274,857	-124,857	100.00
	CFGB	650,000	0	650,000	0
	CONCERN	1,090,000 ¹⁾	1,090,000	0	100.00
	DWH/GAA	188,857	188,857	0	100.00
	HIB	556,427 ¹⁾	556,427	0	100.00
	TGH	737,851 ¹⁾	737,851	0	100.00
FAO/UNDP		4,931,824	1,088,059	3,843,765	22.06
OCHA		962,064	603,638	358,426	62.74
UNDP		1,760,000	0	1,760,000	0
UNFPA		1,002,000	0	1,002,000	0
UNICEF		10,374,000	4,625,838	5,748,162	44.59
WFP		216,727,748 ¹⁾	101,407,979	44,569,170	79.44
WHO		7,242,000 ¹⁾	2,286,880	4,420,120	34.10
총 계		246,837,771	113,860,386	62,226,786	74.79

주: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2)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October 2002)

표 3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기구·프로젝트별)

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원요청액 (달러)	조성금액 (달러)	부족액 (달러)
UNDP	A01	고구마전분을 이용한 국수생산 지원	350,000	0	350,000
	A02	재해경감을 위한 재조립사업 지원	1,110,000	0	1,110,000
	A03	재해경감 및 대비 지원	300,000	0	300,000
		소 계(UNDP)	1,760,000	0	1,760,000
FAO/UNDP	A04	2모작 프로그램 지원(복작물과 주요 작물)	4,529,500	737,715	3,791,785
	A05	2모작 프로그램 지원(겨울작물과 주요 작물)	350,334 ¹⁾	350,344	0
	A06	주요작물인 감자생산 지원	0	0	0
	A07	토양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 비료사용 개선	0	0	0
	A08	토지산출력 관리	51,980	0	51,980
		소 계(FAO/UNDP)	4,931,814	1,088,059	3,843,765
OCHA	CSS01	2002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업무	362,064	413,816	-51,752
	CSS02	NGO 기금체계	600,000	189,822	410,178
		소 계(OCHA)	962,064	603,638	358,426
UNICEF	E01	기초교육	530,250	328,294	201,956
	H01	영양실조 및 미세 영양소 결핍 방지	1,564,500	401,037	1,163,463
	H02	산모와 아기 건강	1,092,000	247,497	844,503
	H03A	필수 의약품	3,790,500	1,634,481	2,156,019
	H04A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2,220,750	657,842	1,562,908
	WS01	용수와 환경위생	1,176,000	514,689	661,311
	UNICEF	여러가지	0	841,998	-841,998
		소 계(UNICEF)	10,374,000	4,625,838	5,748,162
UNFPA	H08	가족계획(RH/FP) 서비스	477,000	0	477,000
	H09	이동 산부인과 서비스	336,000	0	336,000
	H10	HIV/AIDS 인식과 예방을 위한 장려	189,000	0	189,000
		소 계(UNFPA)	1,002,000	0	1,002,000
WFP	F01	취약계층 긴급지원(EMOP 5959.03)	215,847,993 ¹⁾	172,154,968	43,693,025
	F02	지역 식량생산을 위한 특별사업			
	F03	취로사업을 위한 특별사업	879,755 ¹⁾	3,610	876,145
	F04	항만운역을 위한 특별사업			
		소 계(WFP)	216,727,748	172,158,578	44,569,170
WHO	H03B	필수 의약품	675,000 ¹⁾	0	675,000
	H04B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1,747,000	353,000	1,394,000
	H05	보건서비스 강화	2,255,000	474,243	1,780,757
	H06	한정 HIV/AIDS 및 전염병 관리강화	1,630,000	676,437	953,563
	H07	결핵 관리	400,000 ¹⁾	400,000	0
	WHO	미결정 배분액	0	383,200	-383,200
		소 계(WHO)	6,707,000	2,286,880	4,420,120
CAD	A09	함경남도 식량생산 지원	0	0	0
	A10	함경남도 지역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0	0	0
	H13	함경도 지방 여성건강 지원	0 ¹⁾	0	0
	H15	함경도 지방 어린이 겨울 지원	0 ¹⁾	0	0
	WS02	함경남도 수인성 질병 예방	0 ¹⁾	0	0
CESVI	H12	강원도 어린이에게 겨울 구호물자 지급	250,000	250,000	0
	WS04	강원도 영동 천내지역의 수인성질병 예방	900,000	1,024,857	-124,857
CONCERN	A11	가족회복 지원	0	0	0
	A12	환경보호 및 복구	200,000	200,000	0
	WS03	농촌 지역 용수공급 재건	890,000 ¹⁾	890,000	0
CFGB	H11	강원도 통합 보건 및 영양계획	650,000	0	650,000
HI B	H14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정형외과 서비스	556,427 ¹⁾	556,427	0
TGH	A14	평안남도 산림과 환경보호	48,101	48,101	0
	WS05	평안남도 협동농장 이동 용수 공급기 및 하수구 시설 재건	689,750 ¹⁾	689,750	0
DWHH/GAA	A13	화해남도 지역의 겨울미 종자 관리 및 주식 개선	188,857 ¹⁾	188,857	0
		소 계(NGOs)	4,373,135	3,847,992	525,143
		총 계	246,837,771	184,610,985	62,226,786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October 2002)

표 4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1)

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지원요청액 (달러)	조성금액 (달러)	부족액 (달러)
농업(Agriculture) 및 식량					
UNDP	A01	고구마전분을 이용한 국수생산 지원	350,000	0	350,000
	A02	재해경감을 위한 제주립사업 지원	1,110,000	0	1,110,000
	A03	재해경감 및 대피 지원	300,000	0	300,000
FAO/UNDP	A04	2모작 프로그램 지원(보작물과 주요 작물)	4,529,500	737,715	3,791,785
	A05	2모작 프로그램 지원(겨울작물과 주요 작물)	350,344 ¹⁾	350,344	0
	A06	주요작물인 감자생산 지원	0	0	0
	A07	토양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적 비료사용 개선	0	0	0
	A08	토지사출력 관리	51,980	0	51,980
소 계(UNDP, FAO/UNDP)			9,844,921	1,088,059	5,603,765
WFP	F01	취약계층 긴급지원(EMOP 5959,03)	215,847,993 ¹⁾	172,154,968	43,693,025
	F02	지역 식량생산에 위한 특별사업	879,755 ¹⁾	3,610	876,145
	F03	취로사업을 위한 특별사업			
	F04	항만운영을 위한 특별사업			
소 계(WFP)			216,727,748	172,158,578	44,569,170
CAD	A09	함경남도 식량생산 지원	0	0	0
	A10	함경남도 지역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0	0	0
CONCERN	A11	가족회복 지원	0	0	0
	A12	환경보호 및 복구	200,000	200,000	0
DWHH/GAA TGH	A13	함경남도 지역의 겨울민 종자 관리 및 증식 개선	188,857 ¹⁾	188,857	0
	A14	평안남도 산림과 환경보호	48,101	48,101	0
소 계(NGOs)			2,136,672	436,958	0
합 계			223,856,530	173,683,595	50,172,935
건강(Health)					
UNICEF	H01	영양실조 및 미세 영양소 결핍 방지	1,564,500	401,037	1,163,463
	H02	산모와 아기 건강	1,092,000	247,497	844,503
	H03A	필수 의약품	3,790,500	1,634,481	2,156,019
	H04A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2,220,750	657,842	1,562,908
WHO	H03B	필수 의약품	675,000 ¹⁾	0	675,000
	H04B	예방접종과 소아마비 근절	1,747,000	353,000	1,394,000
	H05	보건서비스 강화	2,255,000	474,243	1,780,757
	H06	결핵 HIV/AIDS 및 전염병 관리강화	1,630,000	676,437	953,563
	H07	결핵 관리	400,000 ¹⁾	400,000	0
UNFPA	WHO	미결정 배분액	0	383,200	-383,200
	H08	가족계획(RH/FP) 서비스	477,000	0	477,000
	H09	이동 산부인과 서비스	336,000	0	336,000
CEGB	H10	HIV/AIDS 인식과 예방을 위한 장려	189,000	0	189,000
	H11	강원도 통합 보건 및 영양계획	650,000	0	650,000
CESVI	H12	강원도 어린이에게 겨울 구호물자 지급	250,000	250,000	0
CAD	H13	함경도 지방 여성건강 지원	0 ¹⁾	0	0
	H15	함경도 지방 어린이 겨울 지원	0 ¹⁾	0	0
HI B	H14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정형외과 서비스	0 ¹⁾	0	0
합 계			17,276,750	5,477,737	11,799,013
식수와 위생(Water and Sanitation)					
UNICEF	WS01	식수와 환경위생	1,176,000	514,689	661,311
UNICEF	UNICEF	여리가지	0	841,998	-841,998
CAD	WS02	함경남도 수인성 질병 예방	0 ¹⁾	0	0
CONCERN	WS03	농촌 지역 용수공급 재건	890,000 ¹⁾	890,000	0
CESVI	WS04	강원도 영동, 천내지역의 수인성질병 예방	900,000	1,024,857	-124,857
TGH	WS05	평안남도 협동농장 이동 용수 공급 및 하수구 시설 재건	689,750 ¹⁾	689,750	0
합 계			3,655,750	3,961,294	-305,544
교육(Education)					
UNICEF	E01	기초교육	530,250	328,294	201,956
합 계			530,250	328,294	201,956
조정업무(Coordination)					
OCHA	CSS01	2002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업무	362,064	413,816	-51,752
	CSS02	NGO 기금체계	600,000	189,822	410,178
합 계			962,064	603,638	358,426
총 계			246,837,771	184,610,985	62,226,786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주: 2002년 10월 7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October 2002)

표 5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2)

분야/지원국가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농업(Agriculture)			
핀란드	FAO/UNDP	DPRK-02/A04	263,460
노르웨이	FAO/UNDP	DPRK-02/A05	350,344
Private/NGO/Int	TGH	DPRK-02/A14	16,410
Private/NGO/Int	TGH	DPRK-02/A14	31,691
스웨덴	FAO/UNDP	DPRK-02/A04	474,255
스웨덴	CONCERN	DPRK-02/A12	200,000
스웨덴	DWH/GAA	DPRK-02/A13	188,857
소 계			1,525,017
조정 및 지원 서비스(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			
노르웨이	OCHA	DPRK-02/CSS01	223,994
스웨덴	OCHA	DPRK-02/CSS01	189,822
스웨덴	OCHA	DPRK-02/CSS02	189,822
소 계			603,638
교육(Education)			
스웨덴	UNICEF	DPRK-02/E01	104,574
노르웨이	UNICEF	DPRK-02/E01	223,720
소 계			328,294
식량(Food)			
호 주	WFP	DPRK-02/F01	282,645
호 주	WFP	DPRK-02/F01	2,826,456
캐나다	WFP	DPRK-02/F01	1,740,036
캐나다	WFP	DPRK-02/F01	312,943
쿠 바	WFP	DPRK-02/F01	200,230
덴마크	WFP	DPRK-02/F01	528,401
핀란드	WFP	DPRK-02/F01	174,978
독 일	WFP	DPRK-02/F01	1,353,792
일 본	WFP	DPRK-02/F01	1,000
한 국	WFP	DPRK-02/F01	15,563,086
뉴질랜드	WFP	DPRK-02/F01	51,219
Private/NGO/Intl	WFP	DPRK-02/F01	14,914,369
전기이월	WFP	DPRK-02/F01	70,750,599
미 국	WFP	DPRK-02/F01	13,030
미 국	WFP	DPRK-02/F01	39,717,859
미 국	WFP	DPRK-02/F01	15,434
미 국	WFP	DPRK-02/F02;F03;F04	3,610
미 국	WFP	DPRK-02/F01	23,633,992
미 국	WFP	DPRK-02/F01	74,899
소 계			172,158,578

표 5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2)(계속)

분야/지원국가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보건(Health)			
호주	UNICEF	DPRK-02/H01	282,485
캐나다	WHO	DPRK-02/H07	400,000
덴마크	UNICEF	DPRK-02/H03A	104,998
덴마크	UNICEF	DPRK-02/H02	157,497
덴마크	UNICEF	DPRK-02/H04A	104,998
EU	HIB	DPRK-02/H14	441,609
EU	CESVI	DPRK-02/H12	250,000
핀란드	UNICEF	DPRK-02/H03A	157,480
핀란드	UNICEF	DPRK-02/H04A	104,987
한국	WHO	DPRK-02/H06	30,000
한국	WHO	DPRK-02/H06	26,437
한국	WHO	DPRK-02/H06	620,000
룩셈부르크	HIB	DPRK-02/H14	114,818
노르웨이	WHO	DPRK-02/H05	373,701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1	13,978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2	90,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05,000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94,842
Private/NGO/Intl	WHO	DPRK-02/H04B	353,000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5,7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4A	105,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2,816
스웨덴	UNICEF	DPRK-02/H01	104,574
스웨덴	WHO	DPRK-02/WHO	383,200
스웨덴	UNICEF	DPRK-02/H03A	259,902
영국	UNICEF	DPRK-02/H04A	342,857
영국	UNICEF	DPRK-02/H03A	994,285
EU	UNICEF	DPRK-02/H03A	841,998
소 계			6,876,162
식수 및 위생(Water and Sanitation)			
덴마크	UNICEF	DPRK-02/WS01	137,547
EU	CESVI	DPRK-02/WS04	836,000
EU	CONCERN	DPRK-02/WS03	890,000
EU	TGH	DPRK-02/WS05	689,750
스웨덴	CESVI	DPRK-02/WS04	188,857
영국	UNICEF	DPRK-02/WS01	377,142
소 계			3,119,296
총 계			184,610,985

주: 2002년 10월 7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October 2002)

표 6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식량지원)

지원국가	품 목	물량(톤)	금액(달러)
호 주	설탕	759	282,645
호 주	밀가루	11,569	2,826,456
쿠 바	여러가지	1,000	200,230
핀란드		480	174,978
독 일	여러가지	2,879	1,353,792
일 본			1,000
한 국	옥수수	100,000	15,563,086
Private/NGO/Intl	여러가지	42,232	14,914,369
전기이월	여러가지		70,750,599
캐나다		n.a	312,943
캐나다	물고기/고기	1,000	1,740,036
덴마크	여러가지	723	528,401
뉴질랜드		n.a.	51,219
미 국		n.a.	74,899
미 국	여러가지	100,000	23,633,992
미 국	여러가지	55,090	39,717,859
미 국			15,434
미 국			13,030
합 계			172,154,968

주: 2002년 10월 7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October 2002)

표 7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비식량 지원)

지원국가 및 단체	지원경로	프로젝트 번호	지원액(달러)
EU	CONCERN	DPRK-02/WS03	890,000
EU	TGH	DPRK-02/WS05	689,750
EU	CESVI	DPRK-02/WS04	836,000
EU	CESVI	DPRK-02/H12	250,000
EU	HIB	DPRK-02/H14	441,609
EU	UNICEF	DPRK-02/UNICEF	841,998
호주	UNICEF	DPRK-02/H01	282,485
캐나다	WHO	DPRK-02/H07	400,000
덴마크	UNICEF	DPRK-02/H03A	104,998
덴마크	UNICEF	DPRK-02/WS01	137,547
덴마크	UNICEF	DPRK-02/H04A	104,998
덴마크	UNICEF	DPRK-02/H02	157,497
핀란드	FAO/UNDP	DPRK-02/A04	263,460
핀란드	UNICEF	DPRK-02/H03A	157,480
핀란드	UNICEF	DPRK-02/H04A	104,987
한국	WHO	DPRK-02/H06	30,000
한국	WHO	DPRK-02/H06	26,437
한국	WHO	DPRK-02/H06	620,000
룩셈부르크	HIB	DPRK-02/H14	114,818
노르웨이	UNICEF	DPRK-02/E01	223,720
노르웨이	OCHA	DPRK-02/CSS01	223,994
노르웨이	FAO/UNDP	DPRK-02/A05	350,344
노르웨이	WHO	DPRK-02/H04A	373,701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2	90,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05,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4A	105,000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3A	12,816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5,700
Private/NGO/Intl	TGH	DPRK-02/A14	16,410
Private/NGO/Intl	TGH	DPRK-02/H01	31,691
Private/NGO/Intl	UNICEF	DPRK-02/H02	13,978
Private/NGO/Intl	WHO	DPRK-02/H04B	353,000
Private/NGO/Intl	WHO	DPRK-02/H05	94,842
스웨덴	OCHA	DPRK-02/CSS01	189,822
스웨덴	FAO/UNDP	DPRK-02/A04	474,255
스웨덴	UNICEF	DPRK-02/H03A	259,902
스웨덴	WHO	DPRK-02/WHO	383,200
스웨덴	UNICEF	DPRK-02/E01	104,574
스웨덴	UNICEF	DPRK-02/H01	104,574
스웨덴	OCHA	DPRK-02/CSS02	189,822
스웨덴	CONCERN	DPRK-02/A12	200,000
스웨덴	CESVI	DPRK-02/WS04	188,857
스웨덴	DWH/GAA	DPRK-02/A13	188,857
영국	UNICEF	DPRK-02/H04A	342,857
영국	UNICEF	DPRK-02/WS01	377,142
영국	UNICEF	DPRK-02/H03A	994,285
미국	WFP	DPRK-02/F02;F03;F04	3,610
합 계			12,456,017

주: 2002년 10월 7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7 October 2002)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1. 유엔기구

□ 유엔인도지도사무국은(OCHA)은 8월 14일 인터넷을 통해 금년 7월까지의 대북 인도 지원 실적으로 발표

○ 금년 7월말까지 2002년도 유엔의 일반 대북 인도지원계획의 62%가 접수되어 7월말 이전에 착수될 예정인 CAP(일반 인도지원사업) 사업의 61%를 추진할 수 있었음. 올해 계획된 사업 중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사업이 부분적이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됨.

○ 일반 인도지원사업의 8.5%를 차지하는 농업개발지원사업은 모두 14개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4개의 자금 부족으로 4개의 사업은 취소되고 5개의사업은 부분적으로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연기됨. 따라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AREP)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식량지원 사업은 5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나 일부 취약계층은 제외됨. 금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9,600톤의 식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OCHA, DPR Korea Common Humanitarian Action Plan-Activity Implementation Report January to July 2002, 14 August, 2002)

□ 세계식량계획(WFP)은 8월 16일 인터넷을 통해 'WFP Emergency Report No. 33 of 2002'를 발표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감소로 인해 2/4분기부터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세계식량계획이 당초 계획(EMOP 1014.0)대로 금년 연말까지 식량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14,621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며 이중 대부분은 곡물이라고 밝힘.

- 지원할 식량이 부족함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향후 식량배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동해안의 도시지역의 고아원과 소아병원, 지방 식품생산공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함.
- 북한 당국은 금년 7월1일부터 임금과 주곡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쌀 가격은 48배, 옥수수 가격은 41배 인상되었음. 임금은 부문별로 다르게 인상되었음. 이로 인해 북동부 지역의 가동이 중단된 기업소에 일하는 근로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배급소의 식품가격 동향을 관찰하고 있음.
- 7월 29일 발표된 FAO/WFP의 북한 식량평가 특별보고서에 의하며 금년의 봄 작물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벼와 옥수수의 병해충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물과 비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가을에 수확할 벼와 옥수수의 작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함.
- 북한 당국의 공공배급제도에 의해 분배되는 식량 배급량이 7월 들어 1인당 1일 350그램에서 300그램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7월의 배급량 150그램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임. 7월말 현재 금년 가을의 공공취로사업에 총 60개의 사업이 신청되어 평가가 진행중임.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량의 감소로 금년 가을의 공공취로사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33 of 2002, 16 August, 2002)

□ 세계식량계획(WFP)은 대북 지원 상황과 향후의 계획을 발표

-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물량 감소에 따라 향후 4개월 동안 핵심적인 수혜자에 대해 배급을 대폭 감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힘.
 - 9월에는 서해안에 거주하는 140만 명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들과 노인
 - 10월에는 20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임신했던 및 수

유부

- 11월과 12월부터는 290만 명의 유아원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학생, 임신부 및 수유부 등에 대한 식량지원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8월 22일 북한당국과 세계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은 오랜 협의 끝에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정서에 조인함.

- 영양실태조사는 12개 도중 자강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10개 도를 대상으로 하되 북한당국, 세계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실시함.
- 조사 결과는 금년 말까지 집계가 끝나 세계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에 전해질 예정이며 1998년의 조사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이 모아되고 있음.

○ 8월 초 북한의 대부분 지역이 홍수피해를 받았으며 특히 황해남도와 평안남북도의 피해가 컸음. 이번 홍수로 90,000ha에 달하는 논과 옥수수 재배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가옥 파괴, 도로와 다리 유실 등의 피해도 나타남. 또한 8월말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 해안 지역이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짐. 세계식량계획 긴급구호사무소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기업소의 근로자에게 수해복구를 위한 공공취로사업 기획 제공을 검토중임. 또한 긴급구호사무소는 북한의 7.1 경제개선조치로 인한 식품가격 및 임금 인상 효과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10월에 있을 전국적인 영양실태조사에 15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국제기구 직원들이 조사와 자료수집 절차에 대해 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 감시기능이 당분간 중단될 것임.

- 금년에는 8월말까지 총 499명의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식량배급 확인을 위해 각급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2001년의 같은 기간 365명보다 증가한 숫자임.

○ 공공취로사업검토위원회는 이번 가을에 추진될 총 72개의 공공취로사업 제안서 중에서 44개(61%)만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총 12,750톤의 곡물을 배급할 것이라고 결정함.

○ 8월에는 총 65,667톤의 곡물이 북한 지역에 도착함.

- 45,000톤의 미국산 밀이 남포와 홍남부두에 도착
- 11,600톤의 호주산 밀이 남포항에 도착
- 4,177톤의 미국산 혼합식품(쌀, 밀, 콩, 식용유)이 남포항에 도착

- 379톤의 미국산 식용유가 남포항에 도착
- 1,667톤의 미국산 콩이 홍남과 청진항에 도착
- 1,196톤의 미국산 콩과 210톤의 미국산 식용유가 중국의 대련에서 철도를 통해 남양에 도착
- 814톤의 큐바산 설탕과 624톤의 독일산 설탕이 중국의 대련에서 철도를 통해 신의주와 남양에 도착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DPR Korea Update No. 43, August 2002)

□ 세계식량계획(WFP)은 9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WFP Emergency Report No. 37 of 2002'를 발표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추가 지원 약속이 없기 때문에 세계식량계획은 9월부터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140만 명의 학생과 노인에 대해 곡물 배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밝힘. 또한 10월에는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임산부 및 수유부들에 대한 곡물 배급량도 줄게 될 것이라고 함. 게다가 11월과 12월에는 유아원 어린이의 겨울철 기본 식량인 곡물마저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힘.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약속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에는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명의 수혜자들도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세계식량계획은 경고하고 있음. 세계식량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식량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98,000톤의 곡물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음.
- 밀가루와 옥수수의 지원이 원만하지 못함에 따라 유아와 임신·수유부에게 공급할 영양강화 혼합식품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음. 제분소는 이미 재고 소맥 가공을 개시하였지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전기 공급이 더욱 나빠짐에 따라 지방의 식품생산 공장은 생산이 순조롭지 못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37 of 2002, 13 September, 2002)

□ 세계식량계획(WFP)은 9월 27일 인터넷을 통해 'WFP Emergency Report No. 39 of 2002'를 발표

- 세계식량계획의 혼합식량 재고는 8월부터 이미 바닥이 났으나 10월말 경에는 9,000톤의 CSM(Corn Soya Milk)이 도착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11월에는 식량배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9월부터 국제사회의 곡물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배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86,000톤의 곡물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함.
- 9월부터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140만 명의 학생과 노인에 대한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있으며 10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와 임신부 및 수유부에 대한 식량배급도 중단됨으로써 모두 200만 명에 대한 식량배급 중단이 우려됨.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약속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11월과 12월에는 유아원생에 대한 식량배급마저도 중단됨으로써 서해안 지역에는 총 300만 명이 식량배급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10월에 있을 영양조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이번 조사에는 세계식량계획 소속 직원 45명이 참여하게 됨.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공동 식량평가단이 9월 24일 평양에 도착하여 10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39 of 2002, 27 September, 2002)

□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4일 인터넷을 통해 'WFP Emergency Report No. 40 of 2002'를 발표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향후 2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은 서해안과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300만 명의 수혜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힘.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초에는 동부의 산업지대에 거주하는 150만 명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함.
- 이번 달부터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명의 초등학생들이 하루 200그램씩 배급 받는 식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며 14만 명 이상의 노인들은 하루 500그램씩

배급받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음. 식량지원이 감소하면서 25만 명의 중등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식량 지원이 중단된 채 아직도 지원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10월에는 46만 명의 유치원생, 25만 명의 임신부 및 수유부가 식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임. 11월에는 925,000명 이상의 유아원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식량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더 이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공공배급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공공배급제도는 2,300만 명의 주민에게 하루 평균 300그램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는데 이 양은 최소영양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쌀과 옥수수의 수확과 함께 10월부터는 공공배급제도의 식량 배급량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1월까지 계획대로 식량배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만 톤의 곡물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아직도 세계식량계획은 자유롭게 식량배급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북한에 있는 국제기구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독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음. 국제기구의 감시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제재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임.
- 북한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4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400만 명에 달하는 취학연령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50만 명의 임신부 또는 수유부들의 영양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40 of 2002, 4 October, 2002\)](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40 of 2002, 4 October, 2002)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북한의 보건 및 영양개선을 위한 인도 지원 사업으로 400만 유로를 제공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북한의 보건 및 영양개선을 위한 인도지원사업으로 417.5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북한의 1,800여 개 의료기관에 기본적인 약품과 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이동에 불편이 있는 3,200명의 환자들에게는 정형외과 기구와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센터나 소아병원에 있는 10,000명의 극심한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는 환자식을 제공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ECHO, Commission Provides Over EUR 4 Million in Humanitarian Aid for Health and Nutrition Actions in North Korea, 1 August, 2002)

□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는 지난 6년 동안 30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

- MCC(Mennite Central Committee)는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동부 지역에 있는 30만 명의 유아원과 유치원생에게 식량을 제공하였음. MCC는 취학 전 아동들의 단백질원 보충을 위해 140만 캐나다 달러(90만 미국 달러) 가치의 식용유, 곡물, 쇠고기 통조림을 제공할 계획임.
- MCC는 이 밖에도 9,000개의 학용품과 건강 키트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며, 4개의 시범농장에 비료, 종자, 농기구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MCC, Help the Children of North Korea, 16 August, 2002)

□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는 매일 25,000명의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빵 공장을 평양에 완공

- 지난 8월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는 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빵 공장을 완공하여 빵을 생산하고 있음.
- 평양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ADRA의 빵공장은 35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하루 50,000개의 빵을 생산하여 평양과 사리원 지역에 있는 95개의 고아원과 유치원에 제공하고 있음.
- 빵공장 건설에 총 475,000달러가 소요되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스위스 ADRA가 부담하였고 빵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비는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다른 기부단체가 부담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ADRA, *ADRA Bakery in Pyongyang Feeds 25,000 Children*, 28 August, 2002)

□ BWaid(Baptist World Aid)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북한에 만 달러를 지원

- 침례교의 지원단체인 BWaid는 지난 8월 31일에서 9월 1일 동안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북한에 10,000달러를 지원함.
- 태풍 루사는 43년만의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북한은 적어도 1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자료 : <http://www.reliefweb.int>(BWaid, *Baptist World Aid Assists in Korean Flood Relief*, 12 September, 2002)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북한에 3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

- 유럽공동위원회는 9월 27일 부뤼셀에서 유럽인도지원사무국(European Humanitarian Aid Office, ECHO)을 통해 북한에 3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북한은 최근 집중 호우로 서해안 지역에 상당한 홍수 피해를 입었음. 이번의 긴급지

원은 22,5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

자료 : <http://www.reliefweb.int>(ECHO, Commission Provides Humanitarian Aid Worth EUR 1.275 Million for North Korea, Vietnam and Laos, 27 September, 2002)

농 업 자 료

- 북한의 기상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합의문
- 남북한 식량차관에 대한 합의문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북한의 기상

□ 기 온

- 4~6월의 월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0.3\sim 1.6^{\circ}\text{C}$ 정도 높은 고온현상을 나타낸 데 이어 7~9월의 월별 평균기온도 평년에 비해 0.2°C 높았음.
- 연초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한반도의 기후패턴이 4~6월에 이어 7~9월에도 북한지역에 그대로 나타났으며, 주요 농업지대에 위치한 6개 기상관측지역(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에서도 7~9월 월별 평균기온은 예외 없이 모두 평년 보다 높았음.

□ 강수량

- 7월 강수량은 평년대비 81%로 적었는데 27개 기상관측지역 가운데 청진지역의 강수량은 304mm로 평년(111.3mm) 대비 273.1%의 강수량을 나타냈으며 선봉, 삼지연, 김책, 개성지역이 각각 평년대비 133.9%, 124.3%, 124.9%, 138.3%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뭄이 심했고 중강, 구성, 희천, 양덕, 남포, 사리원, 용연, 신계 등은 20~60%의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구성 지방은 21.2%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함.
- 8월 강수량은 평년대비 65%로 적었는데 27개 기상관측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강수량을 가진 지역은 장진 지방으로 작년 동월대비 216%의 강수량을 나타냈으며 용연과 해주 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20~60%의 매우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음. 특히 청진과 김책은 16.8%(21mm), 21.1%(29.8mm)의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함.
- 9월 강수량은 평년의 62%로 8월에 이어 가뭄현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7개 기상관측지역 가운데 청진, 김책, 장진, 신포, 안주, 원산 지역은 110% 이상의 강수량을 확보함. 특히 신포 지역은 207.6%(170mm)의 강수량을 나타냄.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강, 강계, 수풍,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양덕, 평양, 남포, 장진,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지역은 평년대비 50% 안쪽의 적은 강수량을 기록. 특히 남포지역은 평년의 5.5%(4.9mm)에 불과함.

□ 누적강수량, 7~9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315.9 (375.5)	362 (429.6)	403.2 (304.9)	191.4 (365.3)	202.7 (304.6)	274.6 (432.5)	202.5 (358.1)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255.3 (327.9)	323.8 (536.6)	290.3 (393.9)	267 (538.6)	264.1 (699.5)	204.6 (690.9)	376.9 (466.0)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389.3 (414.2)	477.3 (610.7)	262 (568.4)	867.3 (747.4)	326.3 (503.0)	192.4 (497.3)	814.1 (784.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273.2 (536.6)	304.5 (658.5)	363 (530.1)	491.8 (600.7)	690.4 (687.4)	380.9 (753.4)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C(기온), mm(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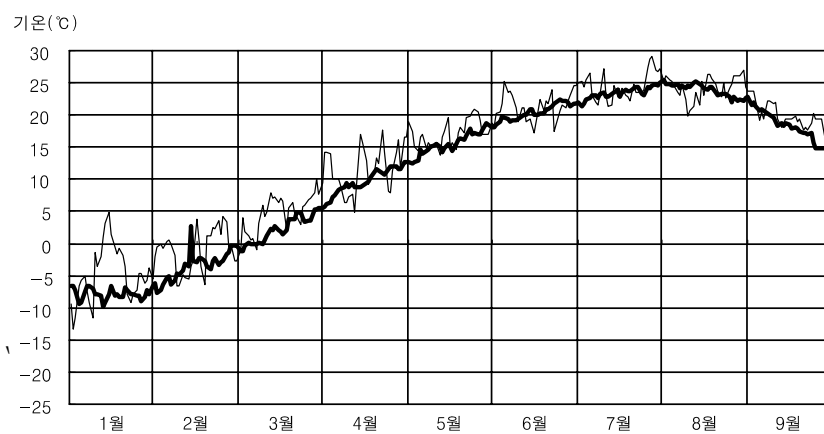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7월	기 온	24.4 (23.5)	24.5 (24.0)	23.8 (23.4)	19.1 (19.9)	22.4 (22.1)	21.9 (22.5)
	강수량	242.2 (296.9)	183.2 (243.5)	194.3 (263.5)	304 (111.3)	183.9 (193.1)	461.8 (261.0)
8월	기 온	24.1 (23.9)	24 (24.1)	23.9 (24.5)	20.4 (21.7)	22.3 (22.8)	22.2 (23.2)
	강수량	104.4 (214.6)	118.4 (176.4)	268.5 (214.0)	21.0 (128.8)	37.0 (177.7)	94.2 (286.8)
9월	기 온	19.9 (18.4)	20.3 (18.8)	21.2 (20.0)	17.5 (17.5)	18.7 (18.1)	18.6 (18.8)
	강수량	130.7 (99.2)	24.7 (83.1)	29.0 (123.2)	78.2 (64.8)	156.0 (95.2)	311.3 (199.6)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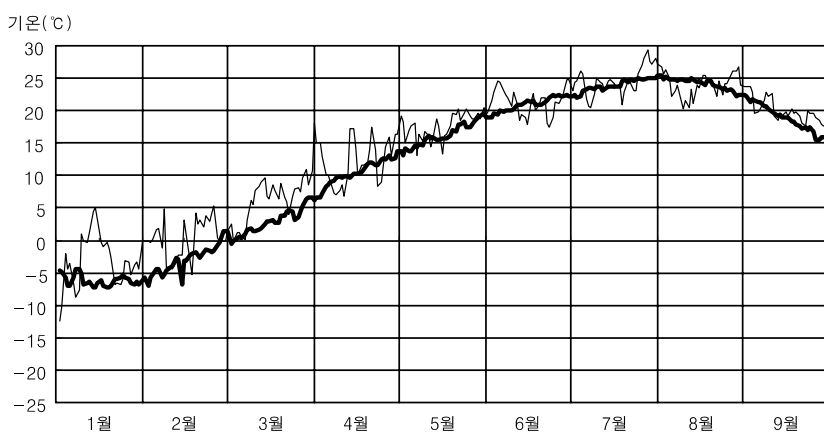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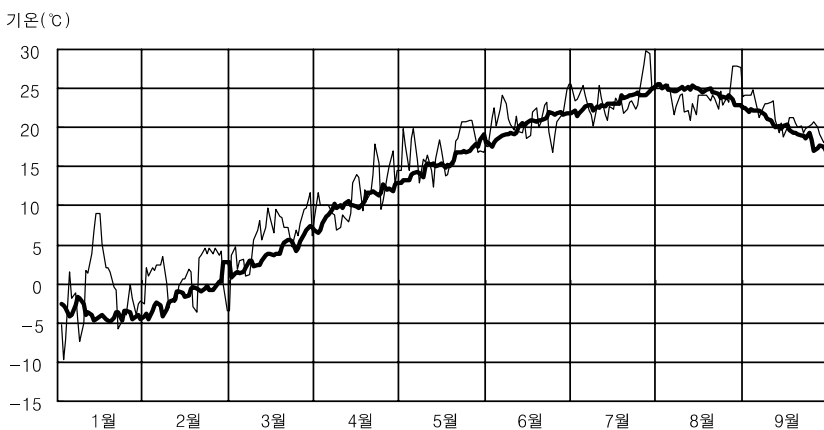
안주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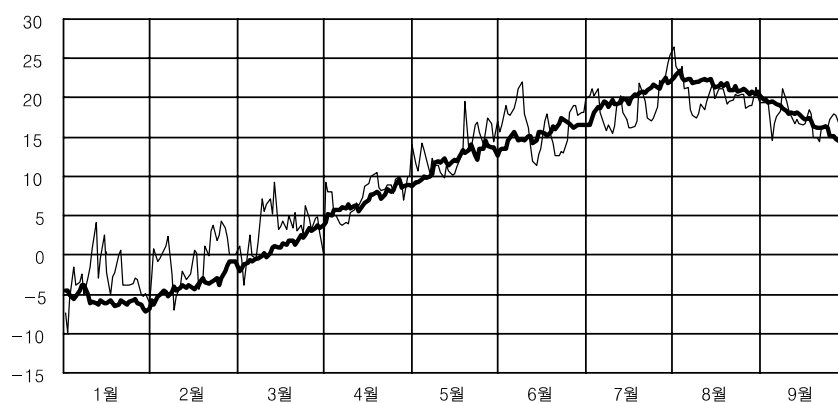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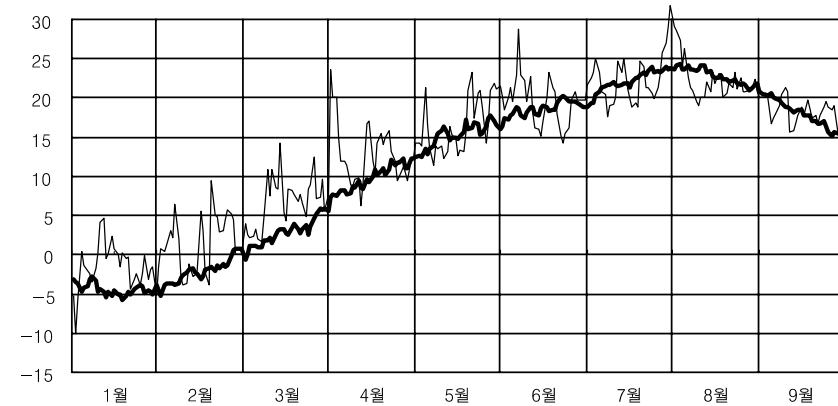
청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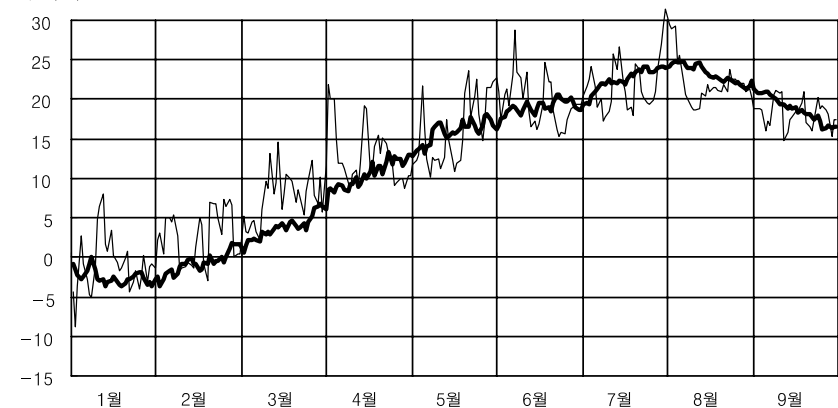
함흥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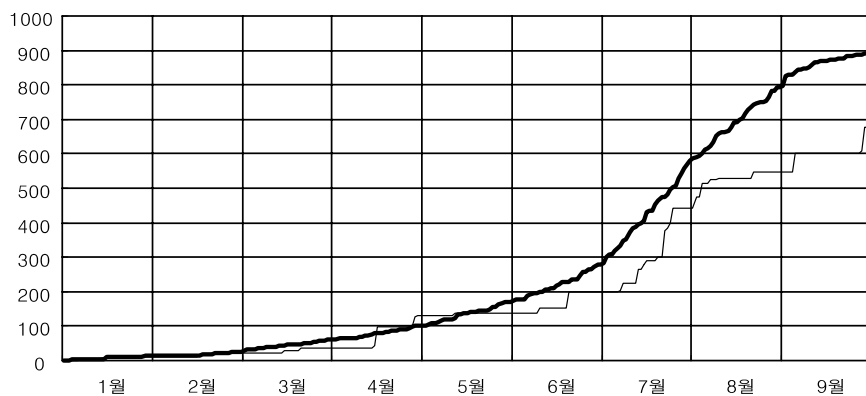
원산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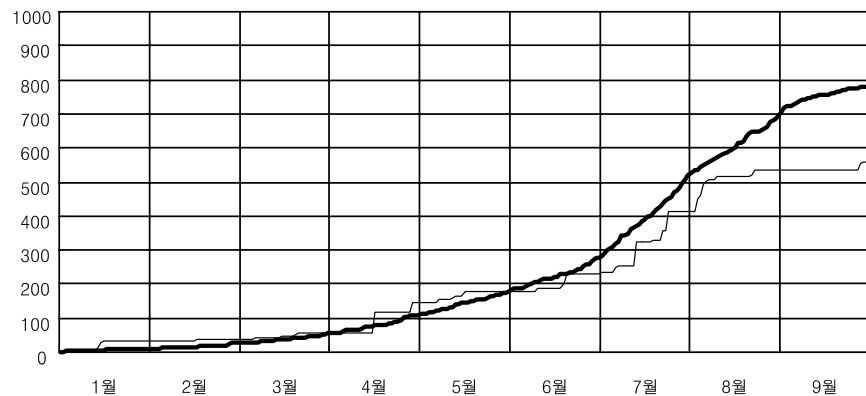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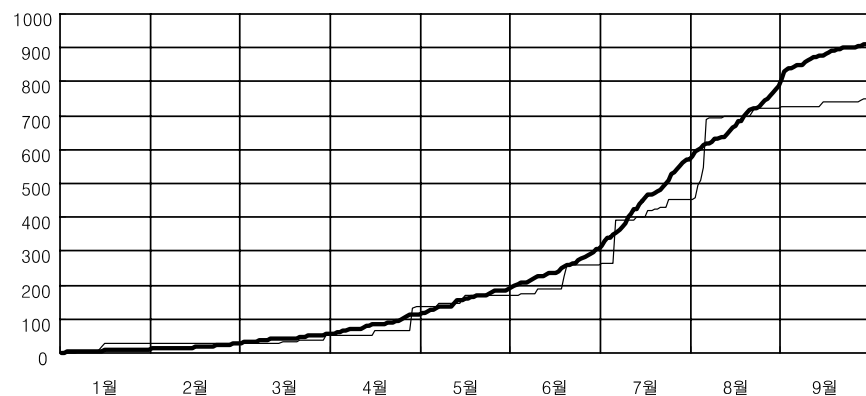
안주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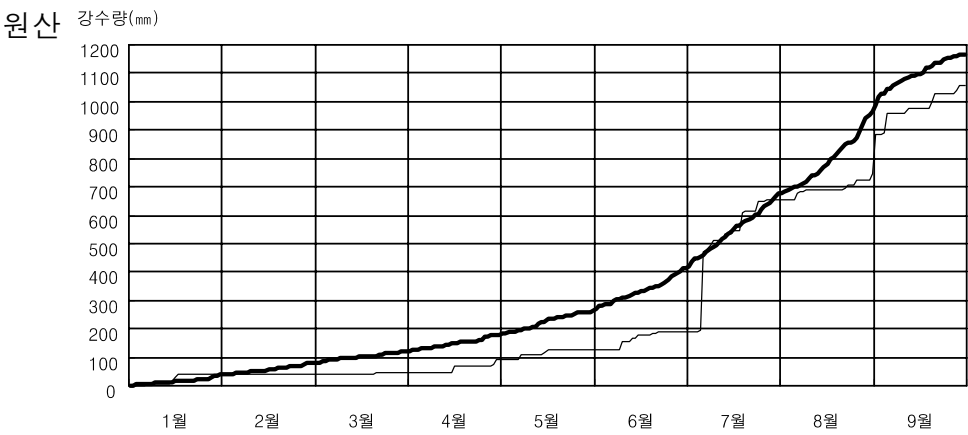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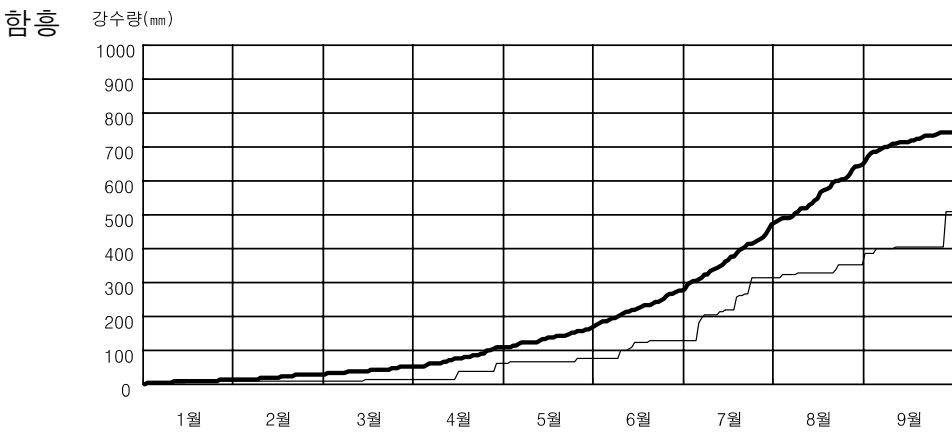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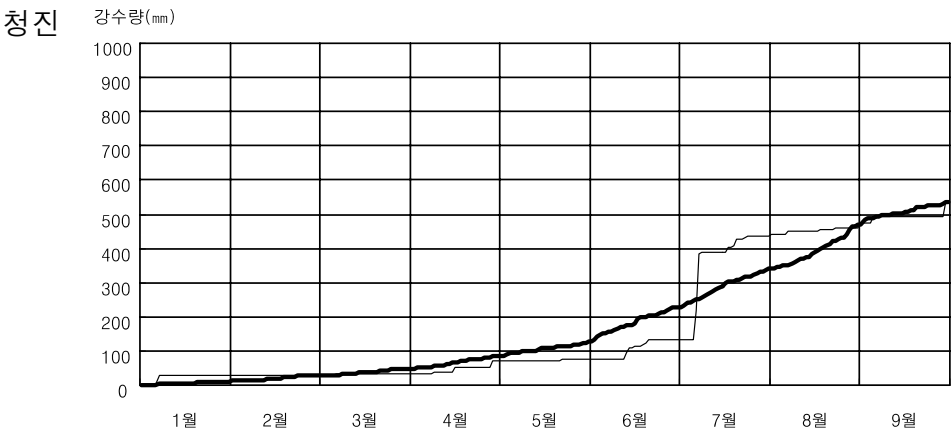


평양 강수량(mm)



해주 강수량(mm)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 합의문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 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기 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화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도로는 금년 11월 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
 - ②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 ③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9월18일 전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
 - ④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서 가진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운영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 톤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7. 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남북한 식량차관에 대한 합의문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이백육십오달러(US\$265)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2년 8월 30일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제 1 장 정 치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 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다.
-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 수 있다.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 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11조 국가는 전쟁, 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 2 장 경 제

-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 까지이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장하도록 한다.
-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로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 사회보장제 같은 노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
-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율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립법회의결정은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 자금, 정보, 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 3 장 문 화

-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 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한 주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 수 없다.
-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 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천연기념물, 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
-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 방송망 같은 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 체신 방송망을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 4 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 공화국국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 이상 거주한 자
 4. 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45조 주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파업,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 처리한다.
-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50조 주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 명절일의 휴식을 보장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 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 제55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 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국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 야 한다.

제 5 장 기 구

제1절 립 법 회 의

- 제60조 립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다.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 제61조 립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한다.
립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제62조 립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립법회의 의원으로 될 수 있다.
- 제63조 매기 립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립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 제64조 립법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 폐지한다.
 2. 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 승인한다.
 3. 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4. 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5. 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 지구재판소 소장, 판사를 임명, 해임한다.
- 제65조 립법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분기 1차, 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립법회의 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기간은 년에 100일이상으로 한다.
- 제66조 립법회의는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 제67조 립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둔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 제68조 립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립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의장,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립법회의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된다.
- 제69조 립법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립법회의를 사회한다.

2. 립법회의 소집날자를 정하고 공포한다.

3. 립법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0조 립법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의장이 결원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한다.

제71조 립법회의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장관과 행정부도 립법회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립법회의는 결정을 낸다.

립법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채택된다.

제73조 립법회의는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안에 다시 심의한다.

다시 심의하여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한다. 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

제74조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립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75조 립법회의 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립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립법회의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제2절 장 관

제76조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앞에 책임진다.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립법기관이 한다.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 것을 선서한다.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사업을 지도한다.
2. 립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3. 행정부성원을 임명, 해임한다.
4.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5. 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검찰소 부소장, 검사, 지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6. 구경찰국 국장을 임명, 해임한다.
7. 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경찰국 부국장, 부서책임자, 구경찰서 서장을 임명, 해임한다.
8. 상장을 제정, 수여한다.
9.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제80조 장관은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 될 경우 그것을 립법회의에 돌려 보내여 다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립법회의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차례까지 돌려 보낼수 있다.

제3절 행 정 부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제82조 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집행사업을 조직한다.
2. 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3.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4. 주민행정사업을 한다.
5. 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6. 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7.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8. 투자유치를 한다.
9. 기업의 창설신청을 심의, 승인한다.
10. 토지리용권, 건물을 등록한다.
11. 세무사업을 한다.
12. 세관검사, 위생, 동식물검역사업을 한다.
13. 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한다.
14. 소방대책을 세운다.

15. 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제4절 검 찰 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 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88조 지구검찰소 감사의 임명, 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 특별행정구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제5절 재 판 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 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 판결, 판정을 집행한다.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 수 있다.

-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 제97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제 6 장 구 장, 구 기

-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한다.
구장, 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 제10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져 있고 그 윗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원형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 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져 있다.
세로와 가로로 비는 1 : 1.5이다.

부 칙

-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 제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령해,령공,국가안전에 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 제4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끝)

조선중앙통신, 2002년 9월 25일

